연구보고서 2025-07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이혜림 • 이지영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2025-07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3F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T 055•713•7075 F 055•713•7093
www.gnwff.or.kr

비매품/무료
93300
9 791199 526839
ISBN 979-11-995268-3-9

연구보고서 2025-07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이혜림·이지영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2025-07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책임: 이혜림(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지영(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초빙연구위원)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발 간 사

최근, 경남은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안에 경남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결혼·출산을 하며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앙 정부의 육성형 이민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국내에서 출생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적응하는 것은 이들의 개인적 삶과 경상남도 지역사회에 모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들의 적응과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정책 대상을 규정하고,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실태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기조 수립을 위한 첫 단추로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본 연구가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정착, 성장과 발전의 시금석을 마련하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 연 희

요약

Ⅰ.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경남형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의 첫걸음으로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 정립, 규모 파악, 실태에 대한 탐색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 연구 대상 : 경남 거주 만 7세~18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 연구 내용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의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추정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국내외 정책 지원 현황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정책 수요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제안

□ 주요 연구 방법

○ 문헌 및 자료 분석

○ 면접 조사

- 대상: 경남지역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부모, 지원 관계자 등 36명
- 방법: 개별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
- 내용: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 등
- 기간: 2025.06.14.(토) ~ 07.26.(토)

○ 해외 사례조사

- 대상: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담당 공무원, NPO 담당자 11명
- 방법: 면접 조사
- 내용: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현안 및 지원 정책
- 기간: 2025.08.18.(월) ~ 08.22.(금)

○ 전문가 자문회의

II. 주요 결과 및 정책 시사점

영역	조사·분석 결과		시사점
이주 배경	결혼 이주자 자녀	가족해체, 초국적 가족관계 경험	심리·정서 안정 지원
		한국에서 재혼 가족 형성, 친족 관계 거의 없음	
		체류 자격 비교적 안정(국적 취득, F5, F1)	부모 교육
	외국인 노동자 자녀	초국적 가족관계 경험	
		한국에서 원가족 재결합, 친족 관계 유지	
		체류 자격 조건부 안정(F1, F2, F3, F4, B1 등)	정주 지원
문화 접변 특성	심리·정서적 불안정성	(내적) 두려움, 분노,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등	심리·정서 안정 지원
		(외적) 자해, 자살 충동, 자살, 절도, 게임중독, 학교 중퇴 등	
		(원인) 복잡한 가정사, 부모 돌봄 부재, 부모의 학대와 착취	부모 교육
	한국어 학습 어려움	(영향) 한국 친구와 또래 형성 어려움, 학습 결손	
		(원인) 한국어 학습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원인) 수시 편입학의 한계	한국어 교육 체계 개선
		(원인) 학교 언어교육체계의 한계	
가족 생활	가족구조	(재혼 가족) 새아빠(엄마), 친엄마(아빠), 동복·이부형제 등	심리·정서 안정 지원
		(이주 가족) 일반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가족 내 사용 언어	(재혼 가족) 모국어, 한국어, 영어 등 2~3개 언어	부모 교육
		(이주 가족) 모국어	
	가족생활	출신 문화권에 따른 부모 역할 차이	
		부모의 장시간 근로로 자녀 돌봄 공백	돌봄 지원
		부모-자녀 역할 역전으로 자녀의 부모화 현상	
학교 생활	교사	이중언어 강사, 한국어 학급 교사 의존도 높음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교육 인프라 개선·강화
	친구	국내외 거주 외국인 친구와 또래 관계 유지·형성	
		한국인 친구 관계 형성 어려움. 언어, 심리적 거리감 등 이유	
	수업	(한국어 학급) 한국어 교육 서비스 편차	
		(일반 학급) 학습 열망은 있으나 학습 부진 상태	
	진학	(개인) 한국어 역량, 성적, 상급학교 진학 정보 부족	
		(사회)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교육 인프라 부족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이유	취학통지서를 받아도 초등학교 입학 거부	
		학력심의위원회의 학교 배정 불만으로 편입학 보류	
		한국어가 부족해 학교생활의 재미와 의미 상실로 중퇴	
사회 경제적 활동	공공도서관, 청소년 지원 시설 등 이용 경험 없음, 청소년증 모름		이민 사회 인프라 마련
	아르바이트(카페, 식당, 예식장 서빙 및 배달 등) 경험 있음		
	아는 사람에게 차별받았다고 인식할 때 심리적 타격이 큼		

[그림]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분석 결과와 시사점

Ⅲ. 경남지역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근거 조례 제정
-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전담 지원 TF 조직 구성
-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위원회 구성·운영
-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센터 설치·운영
-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정례화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어 교육 체계 확충

- ❍ 경상남도
  - 한국어 교육 지원 기관 다각화
  - 지역 대학과 한국어 교육 지원 협업
  - 경남형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도입
- ❍ 경상남도교육청
  - 예비학교 과정 운영
  - 한국어 학급 설치 확대
  - 한국어 학급 지원 목표 재설정과 기간 확대
  - 한국어 학급 교사 정원 내 정교사 정수화
  - 팀티칭 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강사 제도의 이원화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교사 지원 체계 마련
- ❍ 교육부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내용적 학습권 보장 강화

☐ 심리·정서 안정 지원

-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지원 체계 구축
-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전담 인력 양성

☐ 돌봄 지원

- ❍ 보편적인 돌봄 지원 서비스 대상으로 포용
- ❍ 이중언어 돌봄 노동 인력(아이 돌보미) 양성

❑ **부모 교육**

- ❍ 부모 상담 교육
- ❍ 예비 학부모 교육

❑ **정주 지원**

- ❍ 진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체류 자격 안정화를 위한 비자 사다리 설계
- ❍ 대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
- ❍ 소속감 제고를 위한 청소년증 발급

❑ **이민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 ❍ 함께 하는 세계시민교육
- ❍ 인권 교육
- ❍ 다국어 정책 홍보

차 례

Ⅰ. 서론 ·····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 7
3. 연구방법 및 절차 ····· 8

Ⅱ.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 13

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의 및 유형 ····· 13
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 21
3. 소결 ····· 38

Ⅲ.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문헌연구 ····· 45

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고찰 ····· 45
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 정책 분석 ····· 53
3. 소결 ····· 67

Ⅳ.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 75

1. 면접조사 ····· 75
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분석 ····· 83
3. 소결 ····· 157

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일본 사례 ····· 175

1. 사례연구 개요 ····· 175
2. 일본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사례 분석 ····· 179
3. 일본 지자체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사례 분석 ····· 189
4. 소결 ····· 207

Ⅵ.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제언 ····· 213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213
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 216

참고문헌 ·····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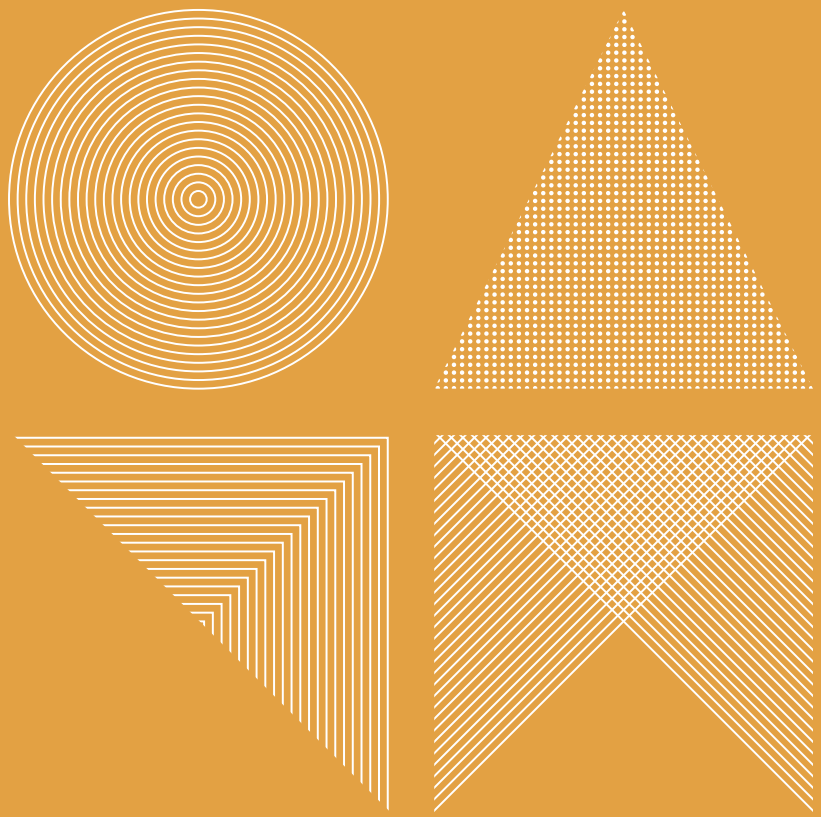
표 차례

〈표 Ⅱ-1〉 부처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주 ····· 14
〈표 Ⅱ-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의에 따른 유형 ····· 15
〈표 Ⅱ-3〉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하위범주별 대상 및 특성 ····· 16
〈표 Ⅱ-4〉 아동·청소년 관련 법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 ····· 17
〈표 Ⅱ-5〉 경남도민으로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위 ····· 19
〈표 Ⅱ-6〉 경상남도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 19
〈표 Ⅱ-7〉 전국 등록외국인 자녀(2025.06.) ····· 23
〈표 Ⅱ-8〉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자녀(2025.06.) ····· 25
〈표 Ⅱ-9〉 경남 시군별 등록외국인 자녀(2025.06.) ····· 26
〈표 Ⅱ-10〉 경남 시군별 외국국적동포 자녀(2025.06.) ····· 27
〈표 Ⅱ-11〉 전국 유형별 외국인 주민 자녀(2023) ····· 29
〈표 Ⅱ-12〉 경남 시군별 유형별 외국인 주민 자녀(2023) ····· 30
〈표 Ⅱ-13〉 전국 다문화 학생(2025.04) ····· 32
〈표 Ⅱ-14〉 유형별 다문화 학생(2025.04) ····· 33
〈표 Ⅱ-15〉 경남 시군별 유형별 다문화 학생(2025.04) ····· 34
〈표 Ⅱ-16〉 연도가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규모에 미치는 영향분석 ····· 37
〈표 Ⅱ-17〉 2025년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추산 ····· 38
〈표 Ⅱ-18〉 시군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상위 5위 지역 ····· 41
〈표 Ⅲ-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선행연구 ····· 50
〈표 Ⅲ-2〉 지역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선행연구 ····· 52
〈표 Ⅲ-3〉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 55
〈표 Ⅲ-4〉 시도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범위 비교 ····· 57
〈표 Ⅲ-5〉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과제 ····· 59
〈표 Ⅲ-6〉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중점과제 ····· 60
〈표 Ⅲ-7〉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2025년) ····· 61
〈표 Ⅲ-8〉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주요 사업 개요 ····· 62
〈표 Ⅲ-9〉 시도별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및 예산 ····· 63
〈표 Ⅲ-10〉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체계도 ····· 64
〈표 Ⅲ-11〉 경남 다문화교육 시행계획 정책 체계도(2025년) ····· 65
〈표 Ⅲ-12〉 경남교육청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사업 개요 ····· 66
〈표 Ⅳ-1〉 면접대상자와 조사 방법 ····· 76
〈표 Ⅳ-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심층 면접조사 내용 ····· 77
〈표 Ⅳ-3〉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부모 심층 면접조사 내용 ····· 78
〈표 Ⅳ-4〉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와 지도교사 면접조사 내용 ····· 79
〈표 Ⅳ-5〉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주요 특징 ····· 80
〈표 Ⅳ-6〉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부모 주요 특징 ····· 81
〈표 Ⅳ-7〉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 ····· 82
〈표 Ⅳ-8〉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도교사 ····· 82
〈표 Ⅴ-1〉 심층 면접 일정 및 대상 ····· 178
〈표 Ⅴ-2〉 일본 공립학교의 재적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수 ····· 180
〈표 Ⅴ-3〉 일본 공립 학교의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 수 ····· 181
〈표 Ⅴ-4〉 특별교육과정의 내용 ····· 183
〈표 Ⅴ-5〉 공립 고등학교 특별교육과정의 내용 ····· 184
〈표 Ⅴ-6〉 공립학교의 일본어 지도보조자
(일본어 지도를 지원하는 외부 인재) ····· 186
〈표 Ⅴ-7〉 공립학교의 모어 지도자
(모어 지도를 하는 외부 인재)와 지도 언어 ····· 186
〈표 Ⅴ-8〉 이쿠노파크 도야의 활동 ····· 194
〈표 Ⅴ-9〉 도도부현별 이주민 수 상위 5위 ····· 201
〈표 Ⅴ-10〉 일본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례 종합 비교 ····· 208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추진 절차 ····· 9
[그림 Ⅱ-1] 등록외국인 자녀 규모 변화(2009~2024) ····· 21
[그림 Ⅱ-2]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자녀 규모 변화(2010~2025.06) ····· 22
[그림 Ⅱ-3] 경남 나이별 등록외국인 자녀 수와 성비(2025.06.) ····· 24
[그림 Ⅱ-4] 경남 나이별 외국국적동포 자녀 수(2025.06.) ····· 26
[그림 Ⅱ-5] 외국인 주민 자녀 규모 변화(2016~2023) ····· 29
[그림 Ⅲ-1] 이민자의 문화접변 유형 ····· 46
[그림 Ⅴ-1] 오사카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의 학습지원 과정 ···· 192
[그림 Ⅴ-2] 이쿠노파크 도야의 가치 ····· 194
[그림 Ⅴ-3] 하마마츠시의 일본어 지도 프로그램 ····· 197
[그림 Ⅴ-4] TOMO2의 자체 개발 교재와 지도기록 시트 ····· 200
[그림 Ⅴ-5] 도도부현별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 수 ····· 204
[그림 Ⅵ-1]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분석 결과와 시사점 ····· 215



I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유입 증가

○ 최근 15년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2024년 기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등록외국인 기준 만 18세 이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139,675명으로 통계 수집 원년인 2009년 43,466명 대비 23배 증가함

○ 경남의 상황도 이와 유사함. 2024년 경남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총 6,048명으로 통계 수집 원년인 2012년 1,673명 대비 27배 증가함. 2025년 6월 기준, 경남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총 5,262명으로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50%, 초등(만 7세~12세) 31%, 중등(만 13세~15세) 10%, 고등(만 16세~18세) 9%로 구성되어 있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역 유입은 국내 비자 제도 개선, 러시아권 국가의 전쟁 및 경기침체, 지역에 안착한 국제이주 네트워크의 작동 등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 변화로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어려움

○ 우리나라는 학령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기본권 중 학습권 보장에 관한 것으로 UN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한 조치임

○ 2025년 기준 〈유초등통계〉[1]에 따르면, 경남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 비율은 21.7%로, 초등학교 24.9%, 고등학교

1)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자료로, 자료 수집 대상은 다문화 학생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을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로 규정하고 있음. 즉, 유초등통계에서 제시하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 비율은 전체 다문화 학생 수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체 학생 중의 비율이 아님을 주의해야 함. 한편, 본 통계에서 중도입국자녀는 국제결혼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정의함

18.5%, 중학교 17.4%임. 아 아이들은 일반고등학교보다 특성화고나 자율고 재학 비중이 높음

○ 아이들은 한국어와 한국 학교생활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도 없는 상태로 학교에 진입하면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됨. 이중언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더블 리미티드(double limited) 상태, 또래 관계 형성 어려움, 학습 결손, 진로에 대한 불안함 등으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과 문제행동 등을 경험함. 이주 배경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이 같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미비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진입을 제도화하여, 아이들의 학교 진입 편의성을 높인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교육 진입 전후 과정에 더욱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교육청은 한국어 교육을 최우선 중점과제로 '한국어 학급 운영',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지원', '다문화 예비교육과정 운영', '이중언어강사 인력풀 구성·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는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친다는 점, 최근 급증하는 수요에 의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점, 학교 밖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한국어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 등임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단위 사업은 존재하나,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는 미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집단의 규모가 확대되고 내집단 특성이 분화되는 등 현상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 체계의 미비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일선 학교 교사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필요성

○ 아동·청소년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지적, 사회적 영역의 고른 발달이 필요한데, 아동·청소년 관계법[2]에 따르면 정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이주 배경과 관계없이 이들의 발

2)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달과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우리 법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영주를 담보로 하는 조건부 정책이 아니라 아동·청소년기라는 인적 속성에 초점을 둔 인권 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법·제도는 아직 실천적인 계획으로 구체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2018년 수립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부터는 외국인 주민의 적응과 사회통합에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경상남도의 대응은 다소 소극적이라 할 수 있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언제든지 영주와 재이주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 지역에 남을 정주 인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후 경남 지역사회의 청년 인구로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결혼·출산을 하며 경남 발전의 동력으로 역할 하게 될 것임. 경상남도는 이들이 경남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는 곧 도래할 미래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함

2) 연구 목적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immigrant origin children and youth)은 이주민 자녀(the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와 같은 의미로 본인이 이민자이거나 부모 또는 보호자 중 한 명이 이민자인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정의됨

○ 이민자는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로 구분하는데, 이민 1세대는 국외에서 출생한 성인 이민자, 1.5세대는 국외 출생자지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와서 정착한 국가에서 사회화를 경험한 이민자, 2세대는 본인은 국내 출생이나 부모(보호자) 중 한 명이 국외 출생 이민자인 경우를 의미함

○ 우리나라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재혼 가정 자녀,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 이주 배경 등-를 사용하고 있음.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용어로, 행정 문서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아직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이는 그동안 국가의 이민정책이 선택적, 보수적 기조로 추진되어 온 탓에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와 용어를 부처별로 사용해 왔기 때문임

○ 용어와 관련한 이 같은 맥락은 최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냄. 첫째 부처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이 달라 이들에 대한 규모 파악은 물론이고 실태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 둘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집단이 정책 대상으로서 명확한 지위를 얻지 못해 지원 체계 수립이 지연된다는 점, 셋째 실천 현장에서 급증하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 등임

○ 최근, 중앙 정부는 현행 법·제도에 명시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귀납적으로 정리해 용어를 통일하고, 부처별 생산하는 다양한 통계를 연계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 생산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에 조응하는 한편, 경상남도의 경남형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 정립

○ 경남형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개념 정립이 필요함. 법령 분석으로 정책 대상의 지위를 조명하는 한편, 경남형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자 중심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 파악

○ 행정통계 연계 작업이 진행 중임에 따라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 파악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본 연구는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를 추산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탐색적 접근

○ 경남형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 실태 관련 정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본 연구는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문화접변(acculturation) 실태와 영향 요인,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으로 접근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현황 분석, 법·제도 분석, 면접조사, 해외 사례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경남형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경상남도

○ 대상적 범위: 경남 거주 만 7세~18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2) 연구내용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제도적 정의 분석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 추정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 분석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 추정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 지원 현황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국내외 정책 현황 분석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정책 수요

- (당사자) 문화적응, 가족, 학교, 사회·경제적 활동, 정책 수요 등
- (부모, 현장 전문가, 교사)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특징, 현안, 정책 수요 등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제안

3.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 문헌과 자료 분석

- 관련 법·조례, 기본계획, 경상남도 업무편람, 국내외 선행연구
- 외국인 주민 관련 행정통계

❍ 면접조사

- 기간 : 2025년 6월 14일(토) ~ 7월 26일(토)
- 내용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 등
- 대상 : 경남지역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부모, 지원 관계자 등 36명

구분	대상	규모	방법
A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만 7세~18세)	17명	개별심층면접
B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부모	6명	개별심층면접
C	현장 전문가	7명	초점집단면접
D	지원 교사(한국어 학급 교사(2), 이중언어 강사(4))	6명	개별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

주) A, B 집단 면접 시, 번역한 연구 개요와 질문지를 사전에 배포하고, 면접 당일 통역 배석함

❍ 해외 사례조사

- 기간 : 2025년 8월 18일(월)~22일(금)
- 내용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현안 및 지원 정책
- 대상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담당 공무원, NPO 담당자 11명
- 방법 : 사전 조사 ⇒ 인터뷰 섭외 ⇒ 질문지 사전 배포 ⇒ 면접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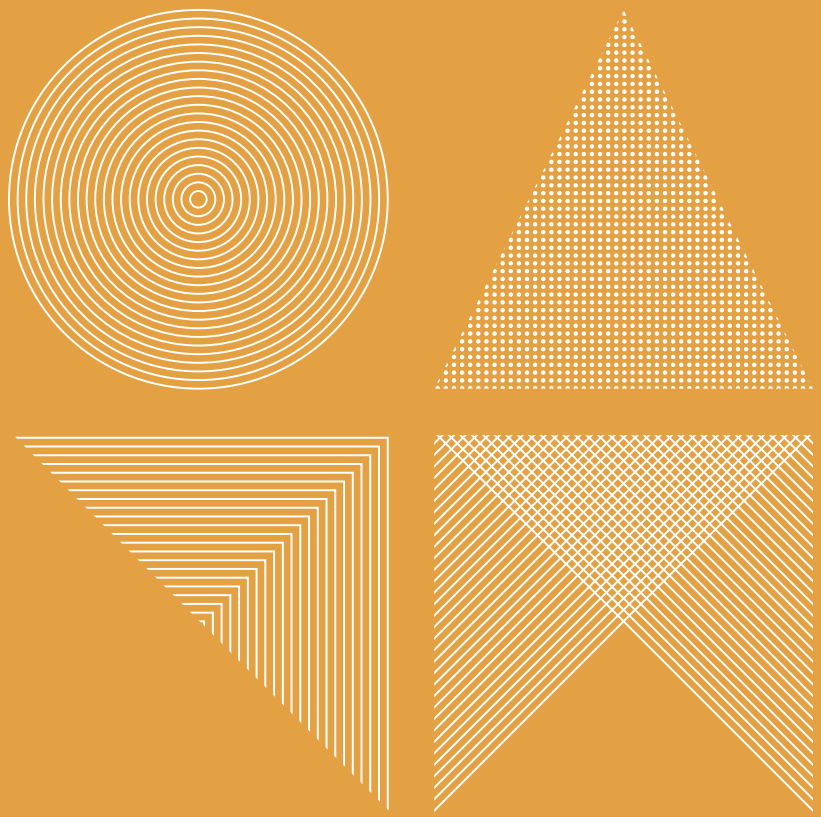
- 대상 : 이주 관련 연구와 지원 전문가
- 내용 : 면접조사 내용 분석 타당성, 정책 제언 등

2) 연구 추진 절차

○ 연구 추진 절차는 [그림 Ⅰ-1]과 같음



[그림 Ⅰ-1] 연구추진 절차



II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Ⅱ.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의 및 유형

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통일된 정의 부재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업무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를 필두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에서 수행함. 우리 사회의 정책 현안 특성에 따라 필요한 영역에 외국인 유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민정책이 확대되어 옴에 따라 이민정책은 관계부처 협동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동안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다문화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외에는 특별히 주목받는 정책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 동반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들 자녀의 정착, 적응, 교육 등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함. 이주민 자녀 지원 방법에 대한 정책 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이주민 자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그러나 최근까지 정부 이민정책은 분리, 배제와 선택적 동화 기조였기에 결혼이민자, 전문 외국인력, 재외동포, 탈북자, 영주권자, 귀화자, 난민 등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별 관련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정의가 달라 지자체가 관내 거주하는 이주민 자녀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종합적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즉, 지자체의 근거 기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부처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위

○ 정부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주 배경과 연관한 사회적 속성,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인적 속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사회적 속성인 국적과 체류 상태를 기준으로 이들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부처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이들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각각 만 18세 미만 미성년 외국인, 외국인 주민으로 보고 있음. 외국인은 문자 그대로 외국 국적자를 의미하나, 외국인 주민은 지역에 체류·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민등록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총인구 계상에는 포함됨

○ 생애주기 상 아동·청소년기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으로 이들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해 각각 다문화학생, 다문화가족자녀, 이주배경청소년, 북한이탈주민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 가운데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만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고, 나머지는 해당 조건의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는 차이가 있음

〈표 Ⅱ-1〉 부처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주

부처명	관계법령	대상	정책 용어 (연령)
교육부	교육기본법	◦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미등록 이주 아동 포함)	다문화학생
	초·중등교육법		만 24세 이하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 체류외국인 ◦ 등록외국인 ◦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 난민 ◦ 귀화자	외국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만 18세 이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 「국적법」 제2조(출생), 제3조(인지), 제4조(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	다문화가족자녀
			만 24세 이하
	청소년복지지원법	◦ 다문화가족 청소년 ◦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만 9세~24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자녀
			만 6세~24세 이하

출처: 연구자 작성

□ 아동·청소년 관련 조사통계에 따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르면, 이주 배경 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라고 규정됨

○ 양계민 외(2020)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한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 관한 광범위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개념과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함

❍ 이 연구는 현행 법·제도상 사용되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정리하는 한편, UN이 제시한 이주 배경 인구의 통계 산출을 위한 개념적 틀에 맞게 유형화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유형화의 기준은 본인 출생지와 부모의 국적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네 개의 유형이 도출됨. 아울러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모의 출신지가 북한인지를 적용해 아래의 〈표 Ⅱ-2〉와 같이 총 일곱 개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세부 유형을 도출함

〈표 Ⅱ-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의에 따른 유형

<table>
<tr><th>본인 출생지
부모배경</th><th>국내출생</th><th>국외출생</th></tr>
<tr><td>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td><td>①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td><td>②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td></tr>
<tr><td>부모 모두
외국인</td><td>③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td><td>④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td></tr>
<tr><th>본인 출생지
부모배경</th><th>국내출생</th><th>국외출생</th></tr>
<tr><td>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td><td rowspan="2">⑤남한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td><td>⑥북한출생 아동·청소년</td></tr>
<tr><td>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결혼가정</td><td>⑦제3국 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td></tr>
</table>

출처: 양계민 외(2020).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 연구: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p 22.

❍ 각 유형의 특징은 아래 〈표 Ⅱ-3〉에 제시함

❍ 유형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는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국내출생 다문화가족자녀가 대표적이고, 부모 중 한 명이 이주자라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됨. 최근 부모의 이혼·재혼 과정 가운데 외국 출신 부모의 나라에 일정 기간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순환 이주를 경험하면서 국외 출생 자녀의 속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유형②, ③, ④는 일명 중도입국자녀로 지칭됨. 유형②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자녀는 귀화로 국적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한국인과 결혼한 국제결혼 가정에서 이주 배경이 있는 배우자가 전혼관계에서 낳은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초청하거나 해외 입양하는 경우가 대표적임. 유형③과 ④는 가족 동반 전문외국인력, 동포, 유학생 등의 자녀로 이들은 본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외국 국적임

○ 유형⑤, ⑥, ⑦은 일명 북한이탈주민 자녀,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으로 지칭됨. 이들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본인의 출생지는 남한, 북한, 또는 제3국일 수 있음

〈표 Ⅱ-3〉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하위범주별 대상 및 특성

하위범주	대상 및 특성	일명
①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 국내 출생자이며 한국인	다문화가족자녀
②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 외국 출생자로 아동·청소년기에 한국 입국 ◦ 귀화한 한국 국적자, 외국 국적자 모두 존재	중도입국청소년
③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외국인 가정 자녀 ◦ 본인 역시 외국 국적 ◦ 미등록, 무국적자, 난민, 동포, 유학생, 전문외국인력 자녀 등 포함	중도입국청소년
④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⑤남한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 남한 출생자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탈북청소년
⑥북한출생 아동·청소년	◦ 북한에서 출생한 후 탈북한 아동·청소년	
⑦제3국 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 남북한 외 제3국 출생자면서 부모 중 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 가정의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출처: 양계민(20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p15~16을 원용해 연구자가 수정

2) 경상남도민으로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 아동·청소년 관련 법에 따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위

○ 아동·청소년 관련 법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이 있음. 각 법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각각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위 법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정의하면서 '국민'이 아닌 '아동', '사람'으로 표현하여 국내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했다는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본인이나 보호자의 인적, 사회적 속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받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보장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음

〈표 Ⅱ-4〉 아동·청소년 관련 법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

법률	목적	정책 대상 정의	기본이념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영유아의 이익 최우선 고려 ◦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으로 인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 되어야 함
아동복지법	아동의 복지 보장	18세 미만인 **사람**	◦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함 ◦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함 ◦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

법률	목적	정책 대상 정의	기본이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 ◦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은 삶을 누리고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출처: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검색일 2025.09.10.)

□ 경상남도 주민으로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위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자격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주소는 필수 구비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외국인은 주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경상남도에 '주소'를 가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등록 미등록 여부를 떠나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의 대상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짐.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미성년 시기에 부모가 영주 또는 귀화를 통해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국적법」 제8조(수반 취득)에 의해 영주 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그 후 3년이 지나고, 18세 이상이 되면 지방선거의 유권자가 됨

○ 최근, 외국인 주민의 영주 자격 및 국적 취득이 가능한 구조로 비자 정책이 설계되고 있는 만큼, 경남지역 역시 향후 민선 10기 구성을 위한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 유권자의 규모가 당선에 영향을 줄 만큼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표 Ⅱ-5〉 경남도민으로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위

법령	조항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개정 2011.11.7.〉)**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2.12., 2011.11.7., 2014.1.17., 2015.8.13., 2020.1.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출처: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검색일 2025.09.11.)

□ 경상남도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 경남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는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등이 있음. 각 조례에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맥락상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유형①~④ 모두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표 Ⅱ-6〉 경상남도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조례명	정의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2.06.21.〉

조례명	정의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2.06.21.〉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06.21.〉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도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09.12.)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조작적 정의

○ 관련 법·조례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서 본 보고서에서 말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일명 '중도입국자녀'로 다문화가족의 국외 출생 자녀(유형②), 경상남도에서 90일 이상 초과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가정의 자녀(유형③, ④)인 만 18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함

○ 다문화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유형①)는 본 연구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과 언어적, 문화적, 심리적 상태의 차이가 있고, 후기 청소년기(만 19세~24세) 이주 배경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이주 배경, 체류 자격, 사회·경제적 차이 등이 있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조작적 정의에서 제외하였음

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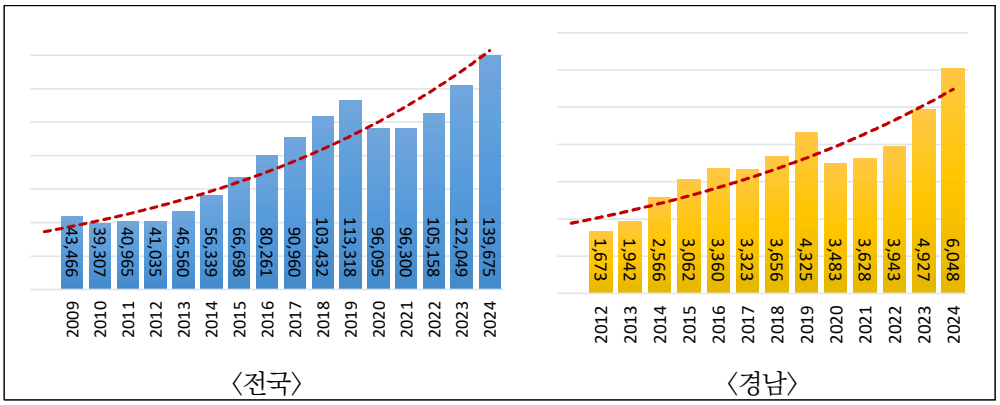
○ 부처별 생산하는 행정통계를 기반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의 양적 현황을 파악함. 다만, 부처별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개념과 범주의 정의, 자료 수집 시점 등이 달라 규모의 차이가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1)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 법무부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외국인'으로 지칭하는데, 출입국 기록이 있고 외국인 등록 및 거소 신고를 한 적이 있는 만 18세 이하인 자가 해당함. 즉, 이 통계에는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한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등록외국인 자녀 규모는 약 1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

○ 2024년 기준 등록외국인 자녀는 139,675명으로 2009년 43,466명 대비 221.3% 증가함. 코로나19 시기에 다소 감소했으나, 2023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출처: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KOSIS.
주: 연령 5세 단위로 공표되는 자료로 작성한 그래프로 만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그림 Ⅱ-1] 등록외국인 자녀 규모 변화(2009~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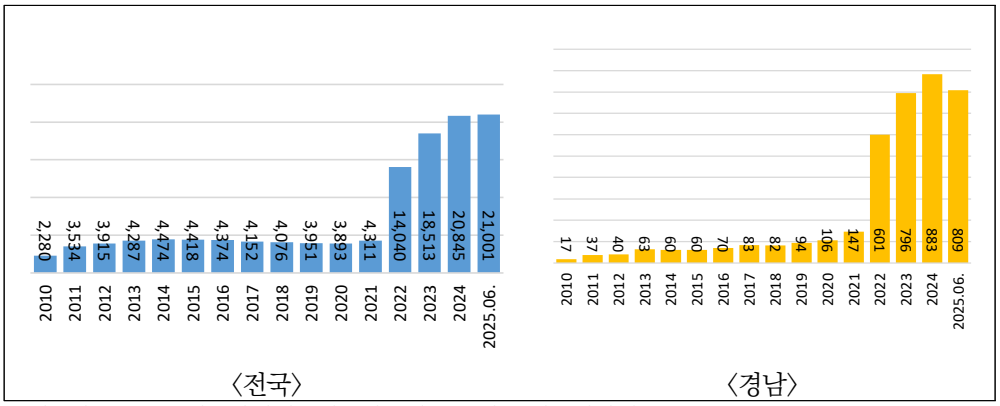
○ 경남도 전국적인 추세와 유사함. 2024년 기준 경남의 등록외국인 자녀는 6,048명으로 2012년 1,673명 대비 261.5% 증가함

□ 최근 5년,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자녀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

○ 2025년 6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자녀는 21,001명으로 2010년 2,280명 대비 821.1% 증가함

○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자녀는 2022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F-4, H-2)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임(박미화 외, 2024)

○ 경남도 체류 제도 변경의 영향을 받아 2022년을 변곡점으로 외국국적동포 자녀가 급증함. 2025년 6월 기준 경남의 외국국적동포 자녀는 809명으로 2010년 17명 대비 4,658.8% 증가함



출처: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 2023년까지 연령 5세 단위로 공표된 자료로 작성한 그래프로 만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그림 Ⅱ-2]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자녀 규모 변화(2010~2025.06)

□ 경남 등록외국인 대비 등록외국인 자녀 비율 4.9%, 전국 10위 수준

○ 2025년 6월 기준, 도내 거주 등록외국인 대비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 자녀 비율을 산출함. 경남은 4.9%로 인천 12.8%, 경기 8.4%, 광주 7.8%, 충남 6.7%, 서울 6.6%, 제주 6.4%, 충북 5.9%, 대구 5.7%, 울산 5.2%에 이어 전국 10위 수준임

○ 등록외국인 규모로 보면 경남은 106,869명으로 경기 483,350명, 서울 269,893명에 이어 전국에서 3위 수준이고,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 자

녀 수는 5,262명으로 경기 40,565명, 서울 17,724명, 인천 11,680명, 충남 7,072명에 이어 전국 5위 규모임

○ 그러나 등록외국인 대비 등록외국인 자녀 비율이 전국 10위 수준인 것은 등록외국인 대부분은 개인 단위 이주민이고 자녀 동반 등록외국인 규모는 비교적 적다고 이해할 수 있음

〈표 Ⅱ-7〉 전국 등록외국인 자녀(2025.06.)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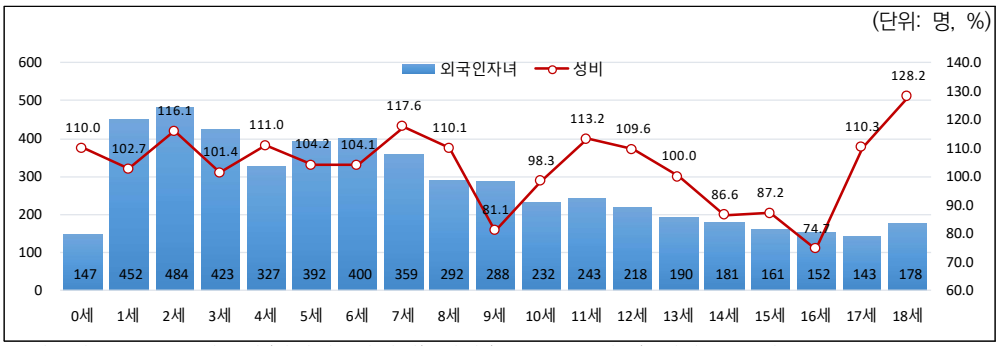
시도	등록외국인 수			등록외국인 자녀 수			등록외국인 자녀 비율 (B/A×100)
	계(A)	여성	남성	계(B)	여성	남성	
전국	1,559,975	649,800	910,175	104,785	51,174	53,611	6.7
서울	269,893	153,115	116,778	17,724	8,625	9,099	6.6
부산	57,448	24,736	32,712	2,239	1,088	1,151	3.9
대구	37,776	17,261	20,515	2,145	1,063	1,082	5.7
인천	91,425	39,748	51,677	11,680	5,723	5,957	12.8
광주	27,204	12,066	15,138	2,123	1,038	1,085	7.8
대전	27,221	14,452	12,769	1,257	655	602	4.6
울산	28,556	8,570	19,986	1,497	727	770	5.2
세종	6,417	2,352	4,065	262	117	145	4.1
경기	483,350	192,256	291,094	40,565	19,792	20,773	8.4
강원	32,447	12,721	19,726	796	400	396	2.5
충북	62,375	21,885	40,490	3,650	1,732	1,918	5.9
충남	104,926	39,876	65,050	7,072	3,494	3,578	6.7
전북	49,490	20,434	29,056	1,641	780	861	3.3
전남	60,296	17,736	42,560	1,392	667	725	2.3
경북	86,637	30,161	56,476	3,724	1,848	1,876	4.3
경남	106,869	31,080	75,789	5,262	2,579	2,683	4.9
제주	27,645	11,351	16,294	1,756	846	910	6.4

출처: 법무부, 등록외국인(지역별, 나이별) 현황(2025.06. 기준) 원자료 분석

□ 경남 등록외국인 자녀 미취학 50%, 초등 31%, 중등 10%, 고등 9%

○ 경남 거주 등록외국인 자녀의 인구구조는 만 6세 이하가 50%로 가장 많고, 만 7세~12세가 31%, 만 13세~15세가 10%, 만 16세~18세가 9%인 것으로 나타남

○ 나이별 등록외국인 자녀의 성비는 최솟값 74.7 최댓값 128.2로 만 9세~10세, 만 14세~16세의 여성 성비가 높음



출처: 법무부, 등록외국인(지역별, 나이별) 현황(2025.06. 기준) 원자료 분석

[그림 Ⅱ-3] 경남 나이별 등록외국인 자녀 수와 성비(2025.06.)

□ 경남 거주 외국국적동포 자녀 비율 5.5%, 전국 3위 수준

○ 2025년 6월 기준, 도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대비 만 18세 이하 외국국적동포 자녀 비율을 산출함. 경남은 5.5%로 광주 6.2%, 경북 6.2%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임

○ 외국국적동포 규모로 보면 경남은 14,834명으로 경기 239,277명, 서울 146,079명, 인천 44,696명, 충남 34,188명, 충북 16,248명에 이어 전국 6위 수준이고,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 자녀 수는 809명으로 경기 8,256명, 서울 3,051명, 인천 2,368명, 충남 1,810명에 이어 전국 5위 규모임

○ 그러나 외국국적동포 대비 외국국적동포 자녀 비율이 전국 3위 수준인 이유는 경남 거주 외국국적동포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주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표 Ⅱ-8〉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자녀(2025.06.)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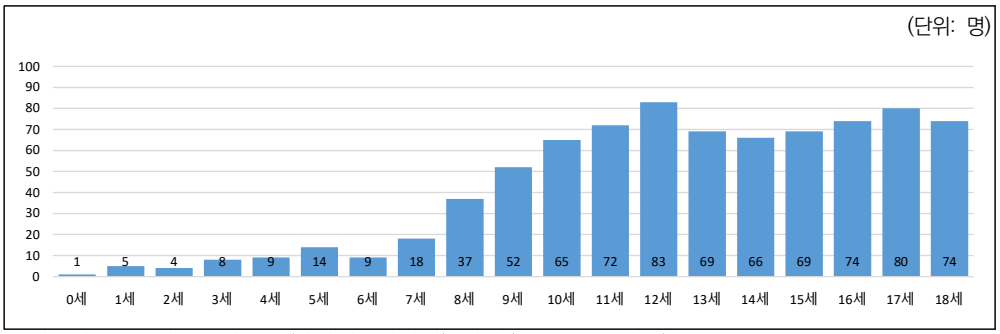
시도	국내 거소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외국국적동포 자녀 수			외국국적동포 자녀 비율 (B/A×100)
	계(A)	여성	남성	계(B)	여성	남성	
전국	552,419	281,867	270,552	19,407	9,658	9,749	3.5
서울	146,079	77,210	68,869	3,051	1,543	1,508	2.1
부산	7,499	4,167	3,332	326	154	172	4.3
대구	5,508	2,925	2,583	258	127	131	4.7
인천	44,696	23,903	20,793	2,368	1,153	1,215	5.3
광주	6,121	3,083	3,038	382	178	204	6.2
대전	3,345	1,841	1,504	61	35	26	1.8
울산	6,444	2,859	3,585	221	119	102	3.4
세종	1,410	710	700	40	21	19	2.8
경기	239,277	120,770	118,507	8,256	4,137	4,119	3.5
강원	4,118	2,317	1,801	84	49	35	2.0
충북	16,248	7,679	8,569	807	388	419	5.0
충남	34,188	16,098	18,090	1,810	886	924	5.3
전북	4,235	2,167	2,068	81	49	32	1.9
전남	4,052	2,017	2,035	96	46	50	2.4
경북	10,806	5,282	5,524	667	322	345	6.2
경남	14,834	6,912	7,922	809	407	402	5.5
제주	3,559	1,927	1,632	90	44	46	2.5

출처: 법무부, 외국국적동포(지역별, 연령별) 현황(2025.06. 기준) 원자료 분석

□ 경남 외국국적동포 자녀 초등 40.4%, 고등 28.2%, 중등 25.2%, 미취학 6.2%

○ 경남 거주 외국국적동포 자녀의 인구구조는 초등학교 재학 나이인 만 7세~12세가 40.4%로 가장 많고, 만 16세~18세가 28.2%, 만 13세~15세가 25.2%, 만 6세 이하가 6.2%인 것으로 나타남

○ 등록외국인 주민 자녀의 50%가 만 6세 이하인 것과 대조되는 이유는 국내 초중고교 재학 중인 동포 학생에게 동포 비자(F-4)가 발급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음



출처: 법무부, 외국국적동포(지역별, 연령별) 현황(2025.06. 기준)

[그림 Ⅱ-4] 경남 나이별 외국국적동포 자녀 수(2025.06.)

❑ 시군별 등록외국인 수 대비 등록외국인 자녀 비율

❍ 등록외국인 규모는 김해 26,079명, 창원 18,666명, 거제 15,619명, 양산 8,653명, 진주 6,602명 등 순이고, 만 18세 이하 자녀 수도 김해 1,888명, 창원 1,077명, 거제 789명, 양산 512명, 진주 266명 등의 순임

❍ 시군별 등록외국인 수 대비 만 18세 이하 자녀 비율은 김해 7.2%, 양산 5.9%, 창원 5.8%, 거제 5.1%, 창녕 4.6%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의 등록외국인은 가족 단위가 비교적 많을 것이라 예상됨

〈표 Ⅱ-9〉 경남 시군별 등록외국인 자녀(2025.06.)

(단위 : 명, %)

시도	등록외국인 수			등록외국인 자녀 수			등록외국인 자녀 비율 (B/A×100)
	계(A)	여성	남성	계(B)	여성	남성	
창원시	18,666	6,633	12,033	1,077	529	548	5.8
진주시	6,602	2,574	4,028	266	126	140	4.0
통영시	4,844	649	4,195	44	26	18	0.9
사천시	3,948	786	3,162	130	61	69	3.3
김해시	26,079	7,046	19,033	1,888	924	964	7.2
밀양시	5,265	2,803	2,462	108	55	53	2.1
거제시	15,619	2,868	12,751	789	382	407	5.1
양산시	8,653	2,809	5,844	512	260	252	5.9
의령군	894	265	629	33	13	20	3.7
함안군	4,868	777	4,091	156	80	76	3.2
창녕군	3,490	987	2,503	159	70	89	4.6
고성군	1,975	489	1,486	41	18	23	2.1
남해군	1,095	179	916	5	5	0	0.5

시도	등록외국인 수			등록외국인 자녀 수			등록외국인 자녀 비율 (B/A×100)
	계(A)	여성	남성	계(B)	여성	남성	
하동군	928	468	460	3	2	1	0.3
산청군	1,039	538	501	18	6	12	1.7
함양군	747	332	415	8	5	3	1.1
거창군	1,134	482	652	12	10	2	1.1
합천군	1,023	395	628	13	7	6	1.3

출처: 법무부, 등록외국인(지역별, 나이별) 현황(2025.06. 기준) 원자료 분석

□ 시군별 거소 외국국적동포 수 대비 외국국적동포 자녀 비율

○ 외국국적동포 규모는 김해 5,275명, 창원 3,387명, 양산 1,664명, 거제 1,654명, 창녕 663명 등 순임

○ 시군별 만 18세 이하 자녀 수가 50명 이상이고, 외국국적동포 수 대비 만 18세 이하 자녀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은 창녕 11.5%(76명), 김해 8.2%(434명), 양산 6.0%(100명)임

〈표 Ⅱ-10〉 경남 시군별 외국국적동포 자녀(2025.06.)

(단위 : 명, %)

시도	국내 거소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외국국적동포 자녀 수			외국국적동포 자녀 비율 (B/A×100)
	계(A)	여성	남성	계(B)	여성	남성	
창원시	3,387	1,633	1,754	96	48	48	2.8
진주시	452	208	244	25	8	17	5.5
통영시	354	170	184	3	0	3	0.8
사천시	283	143	140	6	3	3	2.1
김해시	5,275	2,539	2,736	434	216	218	8.2
밀양시	202	107	95	2	1	1	1.0
거제시	1,654	543	1,111	42	20	22	2.5
양산시	1,664	817	847	100	55	45	6.0
의령군	64	23	41	6	5	1	9.4
함안군	264	102	162	10	7	3	3.8
창녕군	663	313	350	76	38	38	11.5
고성군	107	51	56	2	1	1	1.9

시도	국내 거소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외국국적동포 자녀 수			외국국적동포 자녀 비율 (B/A×100)
	계(A)	여성	남성	계(B)	여성	남성	
남해군	104	65	39	2	1	1	1.9
하동군	66	41	25	0	0	0	0.0
산청군	84	54	30	0	0	0	0.0
함양군	76	35	41	1	0	1	1.3
거창군	76	44	32	2	2	0	2.6
합천군	59	24	35	2	2	0	3.4

출처: 법무부, 외국국적동포(지역별, 연령별) 현황(2025.06. 기준) 원자료 분석

(2)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행정안전부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외국인 주민' 자녀로 지칭하나, 통계 수집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어 한국 국적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를 의미함. 즉, 부모가 모두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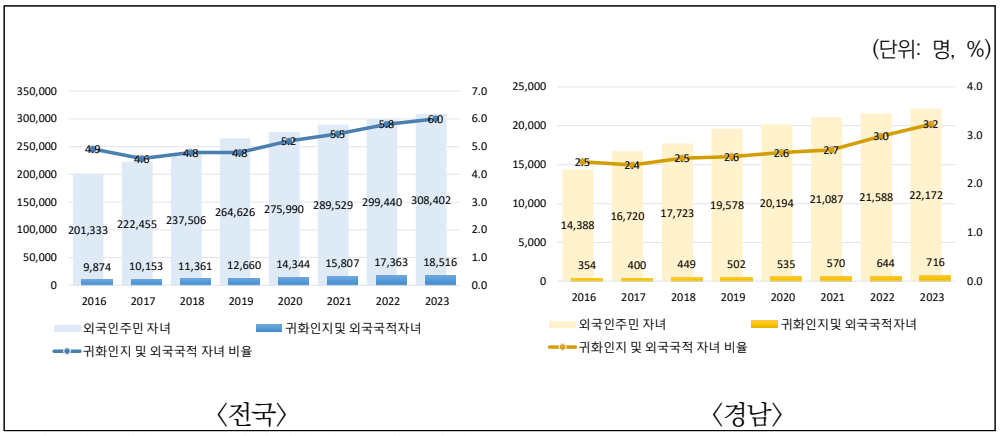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은 직전년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해 생산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 통계이며 다문화가족 자녀로 대표되는 국내출생 외국인 주민 자녀[3]와 귀화·인지 및 외국 국적 자녀로 구성됨

□ 2023년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2016년 대비 102.3% 증가

○ 2023년 경남 외국인 주민 자녀 중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는 716명으로 2016년 354명 대비 102.3% 증가함. 같은 기간 전국 평균 87.5%가 증가한 것보다 증가 폭이 큼

○ 경남 외국인 주민 자녀 대비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의 비율은 3.2%로 전국 6.0%보다 2.8%p 낮은 수준임

3) 국내출생 외국인 주민 자녀는 외국인 또는 귀화·인지한 자의 자녀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전국〉 〈경남〉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KOSIS.
주: 외국인주민 자녀 =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 국내출생 외국인 주민 자녀

[그림 Ⅱ-5] 외국인 주민 자녀 규모 변화(2016~2023)

❑ 경남 외국인 주민 자녀 중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3.2%, 전국 13위

❍ 2023년 경남 외국인 주민 자녀는 22,172명으로 경기 85,106명, 서울 39,729명에 이어 전국에서 3위 수준임. 이 가운데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의 규모는 716명으로 경기 7,315명, 서울 3,503명, 인천 2,032명, 충남 866명에 이어 전국 5위 수준임

❍ 외국인 주민 자녀 가운데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의 비율은 3.2%로 인천 9.9%, 서울 8.8%, 경기 8.6%, 제주 5.1%, 충남 4.8%, 울산 4.2%, 충북 4.1%, 세종 3.9%, 대전 3.6%, 부산 3.6%에 이어 전국 13위 수준임

〈표 Ⅱ-11〉 전국 유형별 외국인 주민 자녀(2023)

(단위 : 명, %)

시도	합계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자녀 비율 (B/A×100)
	계(A)	여성	남성	계(B)	여성	남성	
전국	308,402	151,054	157,348	18,516	9,617	8,899	6.0
서울	39,729	19,595	20,134	3,503	1,782	1,721	8.8
부산	13,495	6,660	6,835	485	255	230	3.6
대구	10,603	5,271	5,332	415	235	180	3.9
인천	20,545	10,033	10,512	2,032	1,056	976	9.9
광주	7,736	3,715	4,021	251	133	118	3.2
대전	6,973	3,412	3,561	253	133	120	3.6
울산	6,466	3,181	3,285	273	152	121	4.2

시도	합계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자녀 비율 (B/A×100)
	계(A)	여성	남성	계(B)	여성	남성	
세종	1,782	888	894	70	44	26	3.9
경기	85,106	41,829	43,277	7,315	3,768	3,547	8.6
강원	8,971	4,398	4,573	269	138	131	3.0
충북	11,751	5,745	6,006	476	266	210	4.1
충남	18,134	8,880	9,254	866	448	418	4.8
전북	14,255	6,861	7,394	370	199	171	2.6
전남	17,017	8,243	8,774	407	183	224	2.4
경북	18,114	8,845	9,269	534	281	253	2.9
경남	22,172	10,737	11,435	716	399	317	3.2
제주	5,553	2,761	2,792	281	145	136	5.1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KOSIS.
주: 외국인주민 자녀 =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 국내출생 외국인 주민 자녀

□ 경남 시군별 외국인 주민 자녀 중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 외국인 주민 자녀는 창원 5,215명, 김해 3,675명, 양산 2,218명, 진주 2,075명, 거제 1,823명 등의 순으로 많고,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의 규모 역시 창원 180명, 김해 150명, 양산 102명, 거제 61명, 진주 50명 등의 순으로 많음

○ 외국인 주민 자녀 중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규모는 양산 4.6%, 김해 4.1%, 사천 3.8%, 창원 3.5%, 거제 3.3%, 고성 3.3% 등의 순으로 큼

〈표 Ⅱ-12〉 경남 시군별 유형별 외국인 주민 자녀(2023)

(단위 : 명, %)

시도	합계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자녀 비율 (B/A×100)
	계(A)	여성	남성	계(B)	여성	남성	
창원시	5,215	2,564	2,651	180	94	86	3.5
진주시	2,075	960	1,115	50	26	24	2.4
통영시	1,012	503	509	21	14	7	2.1
사천시	872	416	456	33	15	18	3.8
김해시	3,675	1,839	1,836	150	84	66	4.1
밀양시	862	439	423	17	10	7	2.0
거제시	1,823	876	947	61	33	28	3.3

시도	합계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자녀 비율 (B/A×100)
	계(A)	여성	남성	계(B)	여성	남성	
양산시	2,218	1,087	1,131	102	60	42	4.6
의령군	255	113	142	-	-	-	-
함안군	650	309	341	21	14	7	3.2
창녕군	654	306	348	20	13	7	3.1
고성군	488	220	268	16	10	6	3.3
남해군	323	142	181	8	6	-	2.5
하동군	405	196	209	7	-	-	1.7
산청군	337	164	173	-	-	-	-
함양군	413	205	208	8	5	-	1.9
거창군	517	242	275	10	-	6	1.9
합천군	378	156	222	-	-	-	-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KOSIS.

(3)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 학생

○ 교육부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다문화 학생'으로 지칭하는데, 초·중·고에 다니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출생 및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통계를 생산함. 따라서 초·중·고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경남 다문화 학생 중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 비율 21.7% 전국 9위

○ 2025년 경남 다문화 학생은 14,833명으로 경기 56,961명, 서울 22,002명, 인천 15,005명에 이어 전국에서 4위 수준임. 이 중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 규모는 2,535명으로 경기 22,380명, 서울 7,723명, 인천 6,169명, 충남 4,149명에 이어 전국 5위 수준임

○ 다문화 학생 가운데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 비율은 21.7%로 인천 49.1%, 경기 47.0%, 서울 42.9%, 충남 35.6%, 충북 31.1%, 광주 28.1%, 울산 25.0%, 세종 23.1%에 이어 전국 9위 수준임

〈표 Ⅱ-13〉 전국 다문화 학생(2025.04)

(단위 : 명, %)

시도	다문화 학생 수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가정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
		국내출생	중도입국		
전국	202,208	136,592	12,740	52,876	32.4
서울	22,002	12,557	1,722	7,723	42.9
부산	8,001	6,767	509	725	15.4
대구	6,553	5,155	383	1,015	21.3
인천	15,005	7,641	1,195	6,169	49.1
광주	5,403	3,884	194	1,325	28.1
대전	3,959	3,289	226	444	16.9
울산	4,076	3,056	280	740	25.0
세종	886	681	95	110	23.1
경기	56,961	30,199	4,382	22,380	47.0
강원	5,249	4,661	273	315	11.2
충북	8,117	5,591	494	2,032	31.1
충남	14,004	9,020	835	4,149	35.6
전북	9,244	8,320	363	561	10.0
전남	11,290	10,433	370	487	7.6
경북	13,196	10,987	455	1,754	16.7
경남	14,833	11,613	685	2,535	21.7
제주	3,429	2,738	279	412	20.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유초등통계(25.04.01. 기준)」, 교육통계서비스(KESS).
주 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제결혼 가정 자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3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경남 다문화 학생, 초등 24.9%, 고등 18.5%, 중등 17.4% 재학

○ 학제별 다문화 학생 중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는 초등학교에 24.9%, 중학교에 17.4%, 고등학교에 18.5%가 재학 중임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는 주로 자율고 28.7%, 특성화고 27.7%에 다니고 있음

〈표 Ⅱ-14〉 유형별 다문화 학생(2025.04)

(단위 : 명, %)

시도	학제	다문화 학생 수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가정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
			국내출생	중도입국		
전국	계	202,208	136,592	12,740	52,876	32.4
	초등	116,601	76,201	6,216	34,184	34.6
	중등	51,172	36,069	3,636	11,467	29.5
	고등	33,622	24,087	2,604	6,931	28.4
	일반고	19,590	14,237	1,535	3,818	27.3
	특목고	1,574	1,260	115	199	19.9
	특성화고	10,672	7,242	853	2,577	32.1
	자율고	1,786	1,348	101	337	24.5
	각종학교	813	235	284	294	71.1
경남	계	14,833	11,613	685	2,535	21.7
	초등	8,134	6,111	313	1,710	24.9
	중등	3,938	3,251	178	509	17.4
	고등	2,743	2,236	193	314	18.5
	일반고	1,890	1,609	109	172	14.9
	특목고	80	68	7	5	15.0
	특성화고	752	544	75	133	27.7
	자율고	21	15	2	4	28.6
	각종학교	18	15	1	2	16.7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유초등통계(25.04.01. 기준)」, 교육통계서비스(KESS).
주 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제결혼 가정 자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3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경남 시군별 다문화 학생 중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 다문화 학생 수는 창원 3,262명, 김해 2,907명, 양산 1,375명 등의 순으로 많고,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는 김해 1,183명, 창원 640명, 양산 434명 등의 순으로 많음

○ 다문화 학생 중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은 김해 40.7%, 양산 31.6%, 창녕 31.4% 등의 순으로 큼

〈표 Ⅱ-15〉 경남 시군별 유형별 다문화 학생(2025.04)

(단위 : 명, %)

시도	학제	다문화 학생 수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가정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
			국내출생	중도입국		
창원시	계	3,262	2,622	163	477	19.6
	초등	1,912	1,480	79	353	22.6
	중등	792	662	51	79	16.4
	고등	558	480	33	45	14.0
	각종학교	-	-	-	-	-
진주시	계	1,225	1,062	49	114	13.3
	초등	628	517	26	85	17.7
	중등	312	284	11	17	9.0
	고등	280	256	12	12	8.6
	각종학교	5	5	-	-	-
통영시	계	636	589	20	27	7.4
	초등	303	277	9	17	8.6
	중등	221	208	8	5	5.9
	고등	112	104	3	5	7.1
	각종학교	-	-	-	-	-
사천시	계	520	475	14	31	8.7
	초등	271	249	3	19	8.1
	중등	150	137	6	7	8.7
	고등	99	89	5	5	10.1
	각종학교	-	-	-	-	-
김해시	계	2,907	1,724	134	1,049	40.7
	초등	1,775	1,042	64	669	41.3
	중등	748	467	33	248	37.6
	고등	384	215	37	132	44.0
	각종학교	-	-	-	-	-
밀양시	계	573	496	26	51	13.4
	초등	259	216	12	31	16.6
	중등	165	158	2	5	4.2
	고등	143	117	11	15	18.2
	각종학교	6	5	1	-	16.7
거제시	계	1,259	1,005	66	188	20.2
	초등	733	547	40	146	25.4
	중등	338	299	11	28	11.5
	고등	188	159	15	14	15.4
	각종학교	-	-	-	-	-
양산시	계	1,375	941	119	315	31.6
	초등	874	595	58	221	31.9
	중등	331	237	35	59	28.4
	고등	170	109	26	35	35.9
	각종학교	-	-	-	-	-
의령군	계	160	146		14	8.8

시도	학제	다문화 학생 수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가정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
			국내출생	중도입국		
	초등	78	68	-	10	12.8
	중등	46	43	-	3	6.5
	고등	36	35	-	1	2.8
	각종학교	-	-	-	-	-
함안군	계	455	368	13	74	19.1
	초등	243	185	5	53	23.9
	중등	124	101	5	18	18.5
	고등	88	82	3	3	6.8
	각종학교	-	-	-	-	-
창녕군	계	606	416	35	155	31.4
	초등	302	214	4	84	29.1
	중등	135	98	6	31	27.4
	고등	169	104	25	40	38.5
	각종학교	-	-	-	-	-
고성군	계	328	300	10	18	8.5
	초등	155	144	2	9	7.1
	중등	96	92	1	3	4.2
	고등	71	60	7	4	15.5
	각종학교	6	4	-	2	33.3
남해군	계	214	197	15	2	7.9
	초등	75	68	6	1	9.3
	중등	60	56	3	1	6.7
	고등	78	72	6	-	7.7
	각종학교	1	1	-	-	-
하동군	계	287	285	1	1	0.7
	초등	109	109	-	-	0.0
	중등	112	110	1	1	1.8
	고등	66	66	-	-	0.0
	각종학교	-	-	-	-	-
산청군	계	207	202	2	3	2.4
	초등	80	77	-	3	3.8
	중등	68	68	-	-	-
	고등	59	57	2	-	3.4
	각종학교	-	-	-	-	-
함양군	계	261	249	9	3	4.6
	초등	103	102	1	-	1.0
	중등	74	71	1	2	4.1
	고등	84	76	7	1	9.5
	각종학교	-	-	-	-	-
거창군	계	337	324	4	9	3.9
	초등	144	138	-	6	4.2
	중등	97	92	4	1	5.2
	고등	96	94	-	2	2.1

시도	학제	다문화 학생 수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가정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
			국내출생	중도입국		
	각종학교	-	-	-	-	-
합천군	계	221	212	5	4	4.1
	초등	90	83	4	3	7.8
	중등	69	68	-	1	1.4
	고등	62	61	1	-	1.6
	각종학교	-	-	-	-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유초등통계(25.04.01. 기준)」, 교육통계서비스(KESS).
주 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제결혼 가정 자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3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2)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추산

○ 본 연구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다문화가족의 국외출생 자녀, 경상남도에서 90일 이상 초과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가정의 자녀로 만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이 정의에 따라 행정통계를 활용해 추산한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6,787명임

- 이는 2025년 6월 말 기준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에서 추출한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 5,262명, 국내 거소 외국국적동포 809명과 2023년 11월 1일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외국인 주민(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716명을 단순 합산한 값임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통계 공표 시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2025년 외국인주민(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는 2016년~2023년까지의 외국인 주민 자료([그림 Ⅱ-3] 참고)를 회귀분석 하여 추산하고자 함. 계산 수식은 다음과 같음

$$\text{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_{(t)} = \alpha + \beta_1 \text{년도}_{(t)} + \epsilon$$

○ 이 모형은 다른 영향 요인을 통제했을 때, 연도가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 모형을 전제로 예측하는 것으로, 모형에서

t는 연도를 의미하고,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16년~2023년임. 종속변수는 귀화·인지 및 외국 국적 자녀 수, 독립변수는 연도를 활용한 단순 회귀분석인데, 회귀계수인 β_1은 연도가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분석 결과,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수는 1년마다 49.41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p<0.001$)

〈표 Ⅱ-16〉 연도가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규모에 미치는 영향분석

	Coefficient	Robust std.err.	t	p
년도	49.41	2.28	21.66	0.000
Constant	-99,251.67	4,605.56	-21.55	0.000
N	8			
R^2	0.9874			

N: 2016년~2023년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수

○ 회귀분석의 결과값을 수식에 대입해 2025년 경남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수를 계산하면 793.46명 즉 794명 정도로 나타남

$$\text{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_{2025} = -99{,}251.67+(49.41\times 2025)$$

○ 결론적으로 2025년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는 약 6,865명 정도로 추산함

-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에서 추출한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 5,262명, 국내 거소 외국국적동포 809명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외국인 주민(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자료로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 794명을 단순 합산한 결과임

○ 그러나 이 값은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한국 국적을 가졌으나 순환 이주를 경험한 국내출생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등이 제외되어 실제 규모보다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는 최근 육성형 이민정책 기조 아래 체류 자격이 완화되면서 등록 외국인주민 자녀, 외국국적동포 자녀가 급증하는 추세로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큼

〈표 Ⅱ-17〉 2025년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추산

구분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상남도 추산
규모	6,071명	716명	3,193명	약 6,865명
용어	외국인	외국인 주민 자녀	다문화 학생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의	◦ 출입국 기록 보유 ◦ 외국인 등록(거소 신고) 완료 ◦ 만 18세 이하	◦ 90일 이상 체류자 ◦ 한국국적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국적자의 미성년자녀	◦ 초·중·고 재학생 ◦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출생 및 중도입국자녀 ◦ 외국인 가정의 자녀	◦ 도내 90일 이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 ◦ 다문화가족의 국외 출생 자녀
제외 대상	◦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 한국국적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자의 미성년자녀	◦ 초·중·고에 다니지 않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 국제결혼 가정의 순환 이주 경험 자녀
통계명	◦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 다문화 학생 통계	◦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 (분석)
기준 시점	2025.06	2023.11.01.	2025.04.01.	2025.06

출처: 연구자 작성

3. 소결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의와 유형

○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정부가 이민자의 국내 유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탓에 부처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함에 있어 차이가 있었음

○ 정부는 관련 법에 명시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조항을 분석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주 배경 인구 통계 작성에 관한 UN의 분석 틀을 준용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출생지와 부모 국적을 기준으로 유형화함(양계민 외, 2020)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만 24세 이하)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세부 유형(유형화 기준: 당사자 출생지, 부모 국적)
  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②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③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④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⑤ 남한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⑥ 북한출생 아동·청소년,
⑦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 관한 조작적 정의

○ 본 연구는 양계민 외(2020)의 정의를 준용하되, 본 연구의 목적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조작적 정의
다문화가족의 국외 출생 자녀, 경상남도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로 만 18세 이하인 사람

○ 연구 대상 범위를 이같이 제한한 이유는 다국적, 다언어를 사용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장 포괄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세부 유형인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후기 이주 배경 청소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아동·청소년,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등은 인적, 사회적 속성 차이에 따라 생활 실태 역시 매우 다르고, 따라서 특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함

□ 정책 대상으로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만 24세 이하)이 성장 과정에서 본인이나 보호자의 인적, 사회적 속성으로 인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받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관련 법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정의하면서 헌법에 따른 '국민'이라는 표현 대신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성문화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에 '주민'의 권리(제17조)를 가짐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르면, 경상남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경상남도의 주민이 됨.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경상남도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 되기 전, 경상남도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주소는 필수 구비 사항이므로 등록외국인은 경남의 주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즉, 경상남도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다문화가족지원법」,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물론이고 보편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의 대상으로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추산

○ 2025년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는 6,865명 정도로, 추산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는 총 5,262명, 국내 거소 외국국적동포 809명으로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추출한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임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인 가정 자녀는 총 794명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의 외국인 주민(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자료로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함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는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인 가정의 자녀 수를 단순 합산함

○ 다만, 이 값은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한국 국적을 가졌으나 순환이주를 경험한 국내 출생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등이 제외된 자료로 실제 규모보다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 경남은 전반적으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음.

개인 단위 이민자가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민자보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많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내집단의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 비중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2025년 6월 기준, 경남 등록외국인 대비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 비율은 4.9%고, 외국인 주민 자녀 중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비율은 3.2%로 각각 전국 10위와 13위 수준임. 다문화 학생 중 국외 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 비율도 21.7%로 전국 9위 수준임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의 생활 인프라가 그나마 형성된 특정 시군-김해, 양산, 창원, 거제, 진주-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함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84.1% 김해, 양산, 창원, 거제, 진주 거주함

〈표 Ⅱ-18〉 시군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상위 5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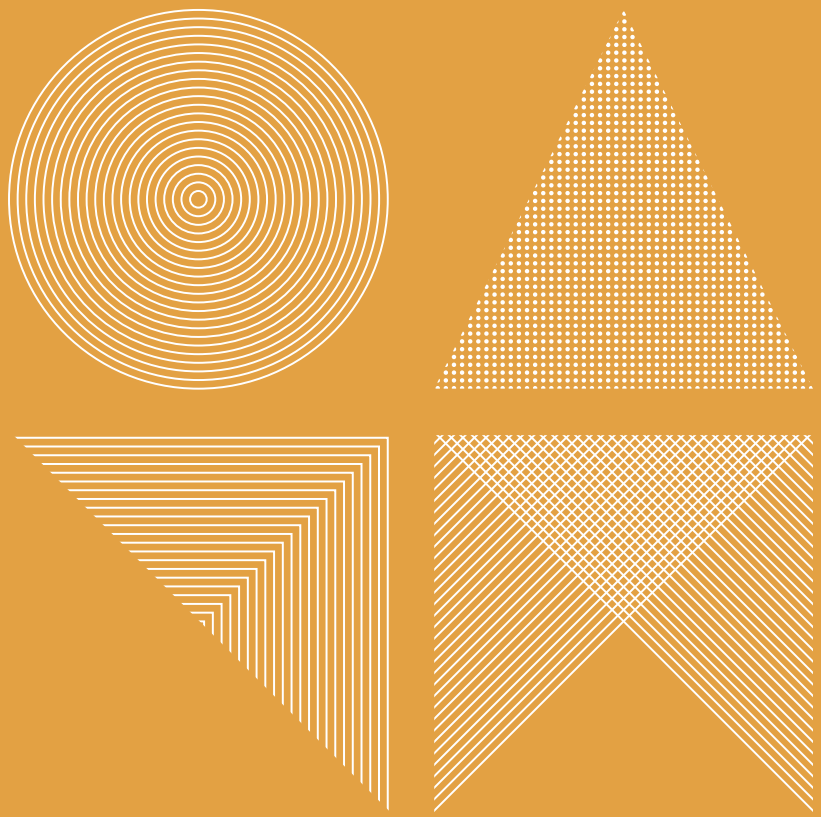
(단위: 명, %)

순위	등록외국인 주민 대비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 주민	외국국적동포 대비 만 18세 이하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주민 자녀 중 귀화·인지 및 외국 국적 자녀	다문화 학생 중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1	김해 (1,888 / 7.2)	창녕 (76 / 11.5)	양산 (102 / 4.6)	김해 (1,183 / 40.7)
2	양산 (512 / 5.9)	김해 (434 / 8.2)	김해 (150 / 4.1)	양산 (434 / 31.6)
3	창원 (1,077 / 5.8)	양산 (100 / 6.0)	사천 (33 / 3.8)	창녕 (190 / 31.4)
4	거제 (789 / 5.1)	창원 (96 / 2.8)	창원 (180 / 3.5)	거제 (254 / 20.2)
5	창녕 (159 / 4.6)	-	거제 (61 / 3.3) 고성 (16 / 3.3)	창원 (640 / 19.6)

출처: 연구자 작성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구구조

○ 경남 외국인 주민 자녀는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50%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 31%, 중학생 10%, 고등학생 9%로 구성되어 있음. 고등학생은 일반고보다는 자율고(28.6%), 특성화고(27.7%)에 주로 재학하고 있음



III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문헌연구

Ⅲ.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문헌연구

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문화접변

□ 문화접변(acculturation)

○ 문화접변은 서로 다른 문화를 지속해서 접촉한 모든 사람이 '서로'의 문화적 경계를 좁히고 바꿔 가는 과정이자 결과로, 이민자와 비이민자 모두 정서적, 행태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지만, 주로 해당 사회의 소수 집단인 이민자가 더 큰 변화를 경험함(Sam & Berry, 2010)

□ 문화접변 유형(acculturation Strateg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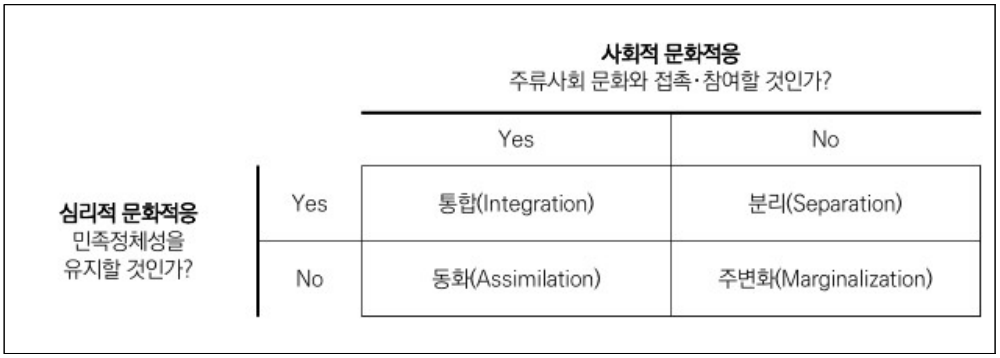
○ 문화접변 과정을 겪는 이민자 대부분은 본인의 성격, 인적자원, 사회·경제적 자원, 사회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이 정착한 국가와 사회에서 어떤 사회 구성원이 될지를 선택함

○ Berry(2005)가 문화접변 유형으로 개념화한 이론은 이민자의 ①심리적 문화접변, ②사회적 문화접변에 관한 '인식'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네 개의 문화접변 유형으로 유형화함

- 통합(integration) 유형: 본인의 고유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착한 지역의 주류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형. 이들은 이민자 집단과 주류 사회 집단 모두와 관계가 깊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집단으로, 가장 바람직한 문화접변 유형으로 여겨짐(김연수, 2012; 송지현·이태영, 2012, Berry & Sabatier, 2010, Sam & Berry, 2010)
- 동화(assimilation) 유형: 본인의 고유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으며, 정착한 지역의 주류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형. 이들은 정착한 국가의 주류 사회에 깊숙하게 뿌리내리는 것을 선호함. 다만, 사회마다 이민자에게 요구하는 문화접변 유형에 차이가 있어, 통합 유형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Navas et al., 2005)
- 분리(separation) 유형: 본인의 고유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정착한

지역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유형. 이들은 경제적 자립과 성공을 성취한 후에도 주류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데,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강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임(Sam & Berry, 2010). 사회적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고유한 민족 정체성과 문화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음(Dimitrova et al., 2013)

- 주변화(marginalization) 유형: 본인의 고유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으며, 정착한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도 없는 유형으로 가장 위험한 문화접변 유형임. Bourhis et al.(1997)은 왜 주변화되었는가에 따라 개인주의형과 아노미형으로 구분함. 개인주의-주변화형은 본인 성향의 영향이 크고, 아노미-주변화형은 차별과 사회적 배제가 심한 사회적 맥락에서 문화접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낮은 자존감,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임



출처: Berry(1997), p10.

[그림 Ⅲ-1] 이민자의 문화접변 유형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

○ Berry, Phinney, Sam, & Vedder(2006)는 성인 이민자의 문화접변 연구 결과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요 이민 국가 13개를 대상으로 국제 협력 연구를 수행함[4)]

○ 주요 변수는 문화접변 태도(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문화적 정체성(민족 정체성, 국가 정체성), 문화접변 행태(모국어 유창함, 이중언어 유창함, 주로 사용하는 언어, 동족 친구와의 접촉, 현지 친구와의 접촉), 가족관계

4)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 대상으로, 청소년 총 7,997명의 자료를 수집함

가치(가족 의무, 청소년의 권리), 인식한 차별, 심리적 적응(삶의 만족도, 자존감, 심리적 문제), 사회문화적 적응(학교 적응, 문제행동)을 측정함

○ 이주 배경 청소년의 문화접변 태도는 성인과 같이 4개 유형으로 유형화했고, 각 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삶의 만족도, 자존감, 심리적 문제), 사회문화적 적응(학교 적응, 문제행동)에 차이를 발견함. 전체적으로 통합 유형 아이들을 제외한 아이들 대부분은 삶의 만족도, 자존감, 심리적 문제를 비롯한 학교 적응, 문제행동(약물, 음주, 학교 중퇴 등)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합 유형 이주 배경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사회문화적 적응은 평균 이상 수준이나, 동화, 주변화 유형은 평균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주변화 유형 아이들은 삶의 만족도, 자존감 등의 심리적 문제, 학교 적응, 문제행동 등의 사회문화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분리 유형 아이들은 심리적 적응은 전체 평균 이상으로 안정적이라 볼 수 있으나, 사회문화적 적응에 해당하는 학교 적응, 문제행동 관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문화접변 영향 요인

□ 언어

○ 언어는 이민자가 이주한 나라에 정착, 적응하고 미래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원으로, 이주한 시점으로부터 3년 6개월 안에 집중적으로 성장하나(Chiswick et al., 2006), 기관에서 제공하는 언어 교육의 질, 본인의 교육 수준, 나이, 이주 목적, 출신 국가, 언어 노출 환경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음

□ 거주기간

○ 통합과 주변화 유형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거주기간과 관계를 주목할 만함

- 통합 유형과 거주기간은 정비례했는데, 이주 배경 청소년은 6년 이하 거주 시 약 20%, 6~12년 거주 시 약 40%, 12~18년 거주 시 45%가 통합 상태로 분류됨
- 주변화 유형과 거주기간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주 배경 청

소년은 6년 이하 거주 시 45% 이상, 6~12년 거주 시 약 25%, 12~18년 거주 시 약 10%가 주변화 상태로 분류됨

□ 가족관계

○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 구성원이 이민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음

○ 이민자 가족의 문화적 가치, 생활 양식 등은 정착한 국가의 그것과 다르기 마련인데, 같은 기간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문화접변 속도는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고, 이 차이는 부모-자식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됨

○ 부모-자식 간에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 생활 양식 등의 차이가 클수록 가족관계가 원만치 않고, 이런 가족관계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은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어려워 지는 경향이 있음(Costigan & Doki, 2006; Cho, 2016; 아영아·전명숙, 2017; 유지희·황숙연, 2018; 이종찬, 2019)

□ 거주지역 및 지방정부 정책

○ 분절된 동화 이론(segmented assimilation theory)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국가와 지역의 사회, 경제, 정책, 정치적 맥락(modes of incorporation),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함(Portes & Rumbaut, 2001)

○ 특히,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거주지 근린 환경이 취약계층, 중산층, 상류층 지역인지에 따라 문화접변의 롤모델 또는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문화접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적응의 결과는 달라진다고 설명함

- 이주 배경 청소년의 거주지가 인종과 민족 다양성이 높거나 균형 있는 근린 환경(neighborhood)이면 아이들이 통합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나, 반대로 민족 집단거주지(ethnic enclave)에 거주하면 분리되거나 주변화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Berry et al., 2006)

○ 학자 다수는 정부와 지역이 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얼마나 포용하려고 하는지와 관련한 태도(modes of incorporation)가 이민자의 긍정적인 문화접변, 적응 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함(Berry et al., 2006; Portes & Rumbaut, 2001, Williamson, 2018)

- 이민자는 새로운 삶터에 정착·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다양한 기회가 필요한데, 정부의 정책 기조 및 사업이 이민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기회, 차별, 배제 그리고 지역민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임

3)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연구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실태 파악을 위한 포괄적 연구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은 선택과 배제라는 국가 이민정책 기조에 따라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음.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재혼으로 중도입국자녀가 발생하자 순환 이주, 가족구조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었음

○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비교적 이주 배경 특성이 강한 중도입국자녀를 정책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정책 대상으로서의 필요조건은 아이들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임

○ 최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과 가족관계가 없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구가 청소년정책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음

-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가정 자녀 아이들의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의 체계적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인 개념 정립, 규모 파악과 관리 체계 구축(양계민 외, 2020), 발생 원인과 실태 파악(배상률 외, 2018; 신윤정 외, 2018; 양계민 외, 2021), 지원 정책 연계성 강화와 정교화(연보라 외, 2019; 윤현희 외, 2023) 등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가 추진됨

○ 상술한 주요 연구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개념, 지원 정책의 철학적 배경, 실천적 지원 정책 등에 관한 해외 자료를 검토해 부처별 파편화되어 있는 정책 대상을 이들의 주요 속성인 '이주 배경'을 중심으로 개념화했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을 제시함

〈표 Ⅲ-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선행연구

연구 제목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조사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배상률 외, 2018)	○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청소년, 보호자 대상 면접조사 ○ 전문가 면담 및 의견조사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방안 제시	○ 일/노동, 진로/진학, 가정환경, 입국 전 상황, 사회적 인식, 심리상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매체 이용 실태, 한국에서의 삶, 응답자 일반적 특징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신윤정 외, 2018)	○ 이주 배경 아동의 법적 지위와 권리 ○ 이주 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정책 ○ 이주 배경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 ○ 해외 거주 한국 이주 배경 아동 현황과 대책 ○ 일본, 대만, 독일 해외 사례 ○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정책 방안 제시	○ 이주 특성, 가족 특성, 아동의 인적 자본 형성 영향 요인, 취업 실태 등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역 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연보라 외, 2019)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정책 분석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역 기관 연계 지원 사업 사례 분석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역 기관 연계 실태 및 요구 분석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역 기관 연계 종합지원 모델 개발	○ 지역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현황에 대한 인식,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요구도, 지역 기관 연계 사업 모델에 대한 인식
포용사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양계민 외, 2020)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유형별 규모 통계구축방안 도출 ○ 청소년 일반집단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격차 분석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기회격차 해소를 위한 통계구축방안 도출	○ 보육·돌봄, 교육 및 진로, 건강 및 보건, 노동 및 취업 등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양계민 외, 2021)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영역 및 문항 개발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언	○ 학습과 활동, 진로와 직업탐색, 가치관, 성장환경, 건강과 보건, 노동과 취업, 코로나 이후 삶의 변화, 이주 배경 특성, 정책적 요구 등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윤현희 외, 2023)	○ 이주민 밀집 지역 및 소재 학교 통계 현황 및 변화 추이 분석 ○ 이주배경학생 관련 정책 및 사례 현황조사 ○ 이주민 밀집 지역 및 소재 학교 실태 분석 ○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 학교 혁신 정책 방안 도출	○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 학교 운영 현황조사(학교)와 학교 운영 방안 조사(교사)

□ 지역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골간을 마련하고 있으나,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전국적으로 실행되기까지 시간 차가 있음. 일부 지자체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 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능동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구 규모보다는 이들 인구가 가지는 중요성 때문임. 지자체로서 이들은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어려운 시절에 지역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인구로 이들이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지역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적응, 정착 지원을 충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지자체별 진행한 실태조사 연구는 관내 유입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이들 집단의 규모,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음. 실태는 주로 선행연구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아이들의 적응 또는 문화접변 영향 요인인 이주 배경, 개인의 심리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가족구조와 생활, 학교생활, 사회·경제적 참여 활동, 정책 경험 등을 조사함(김경주 외, 2023; 김영혜 외, 2024; 이수인 외, 2019; 이해응, 2019; 우복남, 2020; 최정호, 2022;)

- 특히, 우복남(2020)은 이 같은 실태를 아동 인권 관점으로 접근해, 인권 증진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는 차별성이 있음

○ 경기도(김영혜 외, 2024)와 전북(이수인 외, 2019)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했고, 이 외 대부분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당사자, 부모, 이들을 가까이서 지원하는 기관 종사자, 현장 전문가 등과 면접조사를 진행해 지역 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다양한 행위자의 관점에서 풍부하게 파악하고자 시도함

○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유입으로 우리 사회에 전개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대응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고, 비교적 소규모 집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접조사로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Ⅲ-2〉 지역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선행연구

연구 제목	주요 연구 내용 조사 방법	주요 조사 내용
경기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김영혜 외, 2024)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개념, 유형 관련 선행연구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분석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파악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환경과 생활 실태 분석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제안 ○ 설문조사(N=600) ○ 면접조사 20명	○ 응답자 특성, 가족생활, 학교와 학습활동, 심리·정서·사회 인식, 경제활동, 정책서비스 경험과 수요 등
인천 이주배경청소년 포용적 지원방안 연구 (최정호, 2022)	○ 이주배경청소년 특성과 정책 수요 방향 ○ 이주배경청소년 현황과 지원 정책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수요 분석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제언 ○ 면접조사 18명	○ 언어구사력, 교육 및 사회문화, 경제 활동, 진로·진학, 정서와 심리, 동료 관계, 한국 사회적응 등
충남 이주배경아동 지원방안 (우복남, 2020)	○ 한국 국적이 없는 아동 관련 선행연구 ○ 이주배경아동 관련 법, 정책 현황 검토 ○ 이주배경아동 정책수요 파악 ○ 타지자체 우수 지원사례 검토 ○ 이주배경아동 복지 및 인권 증진 정책과제 발굴 ○ 면접조사 33명 - 이주배경아동 아동/가족 23명 - 관련 분야 활동가 10명	○ 생존권(영양, 건강, 주거), 보호권(돌봄, 상담), 발달권(교육, 여가와 문화, 놀이), 참여권(표현의 자유, 참여, 차별과 무시)
지역 사회 기반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이수인 외, 2019)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이론적, 경험적 쟁점 고찰 ○ 이주배경청소년의 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 분석 ○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현황 분석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 설문조사(N=300) ○ 지역 유관기관 사례조사	○ 개인특성, 가족특성, 언어 능력, 학교 생활, 사회 생활, 진로, 주관적 안녕, 건강, 다문화 수용도, 사회적지지, 정책에 대한 태도 등
전남 이주배경청소년 생활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 (김경주 외, 2023)	○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 이주배경청소년 생활실태 및 이해관계자 정책 수요 파악 ○ 이주배경청소년 성장단계별, 영역별 지원 방안 제안 ○ 면접조사 27명 - 이주배경청소년 13명 - 기관 종사자 및 현장 전문가 14명	○ (청소년) 가족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진학 및 진로, 심리·정서, 지역사회 및 정책 욕구 등 ○ (현장 전문가) 지역사회 환경 및 생활지도, 학습 및 진로지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사업) 평가, 정책 개선 및 제안
제주지역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방안 (이해응, 2019)	○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통계 및 보고서 검토 ○ 제주지역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분석 ○ 제주지역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 수요 조사 결과 분석 ○ 제주지역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방안 제시 ○ 면접조사 15명 - 이주배경청소년과 부모 7명 - 현장 전문가(활동가, 실무자, 교사 등) 8명	○ (청소년·학부모) 가족상황, 학교생활, 진로계획, 지원 서비스 이용, 정책 수요 ○ (현장 전문가) 업무경력,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현황, 정책 수요

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분석

1) 법·조례 분석

□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보육·교육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닌 아동·청소년들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기본 이념을 명시함

- 즉,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보편적인 보육·교육 정책의 대상이 되고, 이주 배경으로 인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특화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특화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과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어 및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 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함

○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모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으나 몇 가지 차이가 있음

- 먼저,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제15조(아동의 보육), 제15조의2(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의 정책 대상 나이 범위를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만 24세 이하로 볼 수 있음
- 지원 내용을 보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취학 전 학습 지원,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을 비롯해 중도입국자녀 즉,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지원, 그리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외에 별도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의 보육·교육 등에 관한 지원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음

○ 다만,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재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함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역시 모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준용하되 몇 가지 차이가 있음. 경상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10개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3개는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 해당하는 항목임

○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는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같이 보육사업, 교육사업(취학 전 학습 지원,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중도입국자녀 사회·문화 적응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은 다문화 학생이 비다문화학생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의 역할을 명시함

- 교육부장관은 다문화 학생 등의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다문화 교육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교육감은 다문화 학생 등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학교장은 다문화 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생하는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지자체 조례 비교 분석

○ 시도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함. 조례의 종류는 정책 대상별 분리 조례와 통합 조례[5]로 구분할 수 있음

□ 시도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 17개 시도별 조례를 분석 한 결과,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나 정책 대상과 지원 정책 내용은 〈표 Ⅲ-3〉에 정리한 바와 같음

〈표 Ⅲ-3〉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정책 대상		지원 내용	비고
부모		사회 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영유아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 지원금 지원	돌봄 지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드는 비용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언어 교육
		한국어 교육	
		모국어 교육	
		취학 전 방문학습	학습 지원
		학교생활 적응	
		학과 외/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가정학습 환경조성 지원	
	중도입국	사회·문화 적응	문화 적응
	학교 밖	사회 적응	

5) 통합 조례는 5개 지역-서울, 대구, 인천, 세종, 강원, 경북-이 운용하나, 내용상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에 관한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 지원 내용을 다른 지역 조례와 함께 코딩함

○ 정책 대상은 크게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성장 단계별, 정책 현안별로 세분됨

- 성장 단계별: 영유아, 아동·청소년
- 정책 현안별: 중도입국자녀, 학교 밖 청소년

○ 정책 대상별 지원 내용은 주로 단위 사업 내지는 세부 사업 성격임

- 부모 대상 지원은 (다문화가족) 부모의 사회 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은 아이들의 보육·교육 지원임. 지자체 대부분은 우산 조항과 같은 이 조항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세분한 지자체도 있는데 크게 보육료 지원, 언어 교육, 학습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언어 교육에는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이 모두 포함됨. 학습 지원은 취학 전, 학과 외/방과 후 학습 지원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 생활 교육, 가정학습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현안별 대상으로 중도입국자녀와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는 사회문화 적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도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범위 비교

○ 조례에 따르면, 경남은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 같은 내용 범위의 지원을 하게 되어 있음. 지원 내용을 촘촘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우산 조항으로 지원 영역을 설정하고 있어, 정책 공급자의 자유도가 비교적 높다 볼 수 있음

○ 경남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 보육·교육 지원, 취학 전 방문학습, 학과 외/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부모 대상 사회 적응 교육, 언어 교육,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제공은 모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데, 해당 공공서비스는 서울과 경기의 조례에만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자녀를 둔 보편적인 외국인 부모 대상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함

〈표 Ⅲ-4〉 시도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범위 비교

시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부모 지원			자녀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대구*						○ ●									
인천*				●		○	○								
광주						○ ●		○ ●	○ ●	○ ●	○ ●	○		○ ●	○
대전						○ ●	●				●			●	
울산						○ ●									
세종*						○ ●	○								
경기	○	○	○			○ ●				○ ●	○ ●	○		○ ●	○
강원*						○ ●	○								
충북						○ ●									
충남					●	○	○			●	●			●	
전북						○ ●	○								
전남						○	○			○ ●	●		○	○ ●	
경북*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출처: 연구자 작성

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통합 조례

①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 ②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 ③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④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드는 비용, ⑥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⑦한국어 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⑧한국어 교육, ⑨모국어 교육, ⑩취학 전 방문학습, ⑪학교생활 적응, ⑫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⑬가정학습 환경조성 지원 , ⑭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⑮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은 경남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나, 조례에 근거를 명시한 지역은 부산, 인천, 충남 정도임

❍ 경남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

다는 조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 모국어 지원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광주 정도나 서울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광주만 외국인 아동에게도 모국어 학습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광주, 경기 정도로 이들 역시 다문화가족 자녀이면서 학교 밖 청소년인 아이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분석

(1) 다문화가족정책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목표, 동등한 출발선 보장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다문화가족 자녀'로 표현되는데, 다문화가족 자녀는 본 기본계획의 중요 정책 대상임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목표로 이들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추진과제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배치됨

□ 공교육 진입 접근성 제고 및 교과 학습 역량 지원 위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다음의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있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교과 학습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자원연계
-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원
- 학부모 대상 정보제공

〈표 Ⅲ-5〉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과제

구분	1차 (2010~2012)	2차 (2013~2017)	3차 (2018~2022)	4차 (2023~2027)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목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사회발전 동력으로서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추진 과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장기 정착 지원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정책추진체계 정비		

출처: 연구자가 각 차수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을 토대로 재구성

〈표 Ⅲ-6〉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중점과제

구분	중점과제	
1차 (2010 ~ 2012)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확대
		◦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 **학교 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중도입국자녀 사회 적응 지원방안 마련
		• 한국사회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취학 전 초기적응 프로그램, 특별학급 운영
		• 공립 대안학교 설립 검토
		•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등 연계, 현황 파악 기반 마련
2차 (2013 ~ 2017)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 한국어능력 향상
		◦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외국출신 자녀의 입학절차 안내,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조기 진입 유도
		–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 포함 방안 모색
3차 (2018 ~ 2022)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로 위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고취 및 진로직업 체험기회 확대
		• 무지개 잡아라[진로], 내일을 잡아라[직업교육] 등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진로프로그램 활성화
		– 직업교육훈련기관(다문화 청소년 특화 폴리텍 다솜학교) 운영 지원 및 우수 사례 발굴
		◦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 한국어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수준 제고
		• '한국어 교육과정(KSL)' 개정에 따른 교재개발과 교원연수 실시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 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 포함 운영
		–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
		•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야간 및 주말과정 운영 등 참여기회 확대
		• 레인보우스쿨 과정을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여부 검토
		– 심리·정서적 안정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및 내실화
		–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 등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 운영 및 훈련과정 확대
4차 (2023 ~ 2027)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교 적응 지원 : 학교 교육 준비 지원[교육부]
		• 시·도교육청 및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통해 공교육 진입 전과정 지원
		• 법무부 정보연계, 초등학교 입학 예정 만6세 중도입국자녀 학부모 대상 입학 안내자료 제공
		– 학령기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 지원[여가부, 교육부]
		• 한국어 학급 : 학교 내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급,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실시
		•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 중도입국자녀(학교 밖 청소년 포함) 대상 한국어 교육 실시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분석[여가부, 통계청, 법무부, 교육부]
		•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교육 등 사회 적응 지원[여가부]
		– 학교밖 다문화 청소년 지원[여가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 상담·건강검진·학력취득·직업훈련 등 지원
		• 고등학생인 경우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여가부, 교육부, 고용부, 외교부, 산자부, 통계청]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

출처: 연구자가 각 차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재구성

□ 경상남도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위주 지원

○ 〈2025년도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경상남도 본청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구체적으로 한국인과 가족관계가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련한 국비 사업만 수행하고 있음. 총 4개 사업에 도비 약 1억 원을 매칭 함

○ 4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기초학습 지원과 교과 학습 지원이고, 도비 예산의 45%는 국비 예산이 가장 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투입됨

○ 시행 계획상 정책 대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미성년 아동·청소년이나, 가족 사업의 지침상 사업 방향이 지원 대상을 외국인, 난민 가족 등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도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음(여성가족부, 2025: 93)

○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미성년자녀를 대상으로 설계된 사업이니만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후순위 지원 대상일 수밖에 없음

〈표 Ⅲ-7〉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2025년)

구분	내용	
비전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목표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중점 과제	1.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1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특성화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2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 지원 강화
		3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설계지원
		4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 안정 기반 조성

출처: 연구자가 「2025년도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업무편람을 참고해 재구성

〈표 Ⅲ-8〉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주요 사업 개요

구분	사업명	대상	기준	주요내용	방법	예산(천원)			
						계	국	도	시군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자녀	◦ 최초 입국 5년 이하	◦ 한국어 교육 ◦ 자녀생활서비스 ◦ 부모교육	◦ 방문교육	2,558,750	1,279,375	383,817	895,558
2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초·중·고 자녀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다문화가족	◦ 교육활동비 지원 초 400천원/연 중 500천원/연 고 600천원/연 ◦ 전담인력인건비 지원	◦ 현금 지원	3,000,630	1,500,315	450,094	1,050,221
3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자녀	◦ 다문화가족	◦ 기초학습 지원 (읽기, 쓰기, 셈하기 등)	◦ 집체교육	981,000	490,500	147,150	343,350
4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 지원	◦ 학령기 자녀 (만7~18세)	◦ 다문화가족	◦ 전문 심리상담, 사후관리 ◦ 진로·취업 컨설팅 연계 ◦ 전담인력인건비 지원	◦ 상담 ◦ 서비스 연계	336,000	168,000	50,400	117,600
계						6,876,380	3,438,190	1,031,461	2,406,729

출처: 연구자가 「2025년도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과 업무편람을 참고해 재구성

□ 시도별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및 예산

○ 시군 사업을 모두 포함한 시도별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영역의 사업과 예산은 다음과 같음. 경남은 '25년 총 16개 사업에 4백만 원을 투입했는데, 전년 대비 사업은 6개 예산은 116백만원이 감소함

○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지역은 경기 15,890백만원, 전남 12,782백만원, 인천 8,926백만원 등의 순이고,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경기 49개, 충남 37개, 충북 3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9〉 시도별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개)

시도	소요예산			과제수		
	'24년	'25년	증감	'24년	'25년	증감
전국	95,479	96,599	1,120	383	387	4
서울	11,044	8,802	△2,242	29	29	0
부산	9,052	7,509	△1,543	23	23	0
대구	9,057	6,615	△2,442	23	18	-5
인천	9,168	8,926	△242	21	16	-5
광주	1,492	1,349	△143	11	13	2
대전	1,539	2,265	726	14	17	3
울산	4,220	3,746	△474	19	19	0
세종	2,828	1,056	△1,772	16	19	3
경기	19,041	15,870	△3,171	51	49	-2
강원	2,284	2,090	△194	16	17	1
충북	3,152	5,960	2,808	19	32	13
충남	1,558	1,886	328	34	37	3
전북	4,865	4,940	75	17	14	-3
전남	2,663	12,782	10,119	14	16	2
경북	1,364	1,962	598	29	25	-4
경남	4,407	4,291	△116	22	16	-6
제주	7,745	6,550	△1,195	25	27	2

출처: 관계기관 합동(2025.04.).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3~'27) 2025년도 시행계획(안)

(2)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 이주배경학생 지원 목표, 함께 성장하는 교육체계 구현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은 공교육 내에서 이주배경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현을 목표로 함. '구축'이 아닌 '구현'인 이유는 지금까지 구축한 교육 인프라를 정교하게 조정·강화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의미로, 정책은 단위학교의 이주배경학생 밀집도를 낮추고, 정책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설정함

○ 정책 대상은 기존 초등학생 중심에서 영유아, 중·고등학생, 학부모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원범위는 한국어 중심 지원에서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한국어 포함 진로, 취업, 상담 지원까지 확대함

〈표 Ⅲ-10〉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체계도

구분		내용			
목표		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체계 구현			
정책 방향		◦ 밀집학교 단위 노력 ⇒ 밀집지역 교육력 제고 집중 지원 ◦ 초등, 한국어 중심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및 학생별 맞춤 지원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	밀집 학교 교육력 제고	1 특정 학교 밀집 현상 완화 -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청별 밀집도 완화 방안 마련 - 밀집학교 밀집도 완화 관련 법적근거 마련 2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인력·재정 집중 투입 - 교원·지원인력 추가 배치 및 예산·지역사회 자원 투입 3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교육 모델 육성 - 밀집학교 대상 교육과정 등 자율 운영 특례 부여 - 지역별 특색있는 학교 설립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1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국적, 한국어 역량, 체류자격 등을 고려한 맞춤 지원 - 학생의 초기 한국어·진로·취업·상담 지원 강화 2 지원 대상을 확장하여 포용적 교육정책 추진 - 초등학생 중심 지원에서 중·고교(직업계고 포함), 영유아, 학부모 등까지 정책 지원 대상 확장			
	교원 전문성 강화	1 이주배경학생 지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교원 양성·연수 체계 마련 - 전국 교원·학교 간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2 모든 교원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 예비교원부터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양성 과정 개선 - 현직교원 대상 수준별·단계별 연수 개설			
		▲	▲	▲	▲
	지원 체계	근거법률 제정	실태조사	지역 자원 연계	다문화 인식 개선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5.02.)「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p7.

□ 경남교육청의 이주배경학생 지원 비전,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학교 조성

○ 경남교육청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공동체의 수준을 높이고 이주배경학생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지역 자원 연계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지원함

〈표 Ⅲ-11〉 경남 다문화교육 시행계획 정책 체계도(2025년)

구분	내용		
비전	다 같이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		
목표	◦ 다름을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로 다문화감수성 향상 ◦ 이주배경학생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으로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기반 구축		
추진 과제	1. 교육과정 중심의 다문화 이해교육	[1] 교육과정연계 다문화교육 운영	◦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을 통한 다문화교육 ◦ 다가치 꾸러미 대여 사업 활성화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2]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 다문화 밀집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연구 ◦ 징검다리 과정 운영
		[3] 교육공동체 다문화 감수성 역량 지원	◦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 다문화교육 학부모 연수 ◦ 다문화 협력강사 연수
	2. 이주배경학생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1] 공교육 진입과 초기 적응 확대	◦ 이주배경학생 편입학 및 학적생성 지원 ◦ 한국어학급 운영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 다문화 예비교육과정 지원 ◦ 이중언어강사 구성·운영 ◦ 김해 한국어교육센터 구축
		[2]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학습 및 심리정서 지원	◦ 찾아가는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상담 ◦ 대학생 멘토링 내실화 ◦ 기초학력보장 지원
		[3] 자아존중감 및 꿈 희망찾기로 글로벌 인재 육성	◦ 이중언어 강점 개발 프로그램 지원 ◦ 진로·진학프로그램 지원
	3. 경남형 다문화 교육 지원 체계 구축	[1] 경남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경남 다문화교육지원단 운영 ◦ 다가치 통번역지원단 ◦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다가치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다문화 협력강사 인력풀 구성·운영
		[2] 다문화교육 특구 프로그램 지원	◦ 지역연계 다문화교육 협력기관 발굴 ◦ 다가치 통합성장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지역 연계 사업 운영 및 지원	◦ 지역 다문화축제 연계 사업 운영 ◦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출처: 경상남도교육청(2025.01.) 2025. 경남 다문화교육 시행 계획, p5.

○ 이주배경 학생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영역은 공교육 진입과 초기 적응지원에 가장 많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한국어 학습 지원으로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Ⅲ-12〉 경남교육청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사업 개요

<table>
<tr><th>사업명</th><th>대상</th><th>주요내용</th><th>방법</th></tr>
<tr><td>한국어학급</td><td>입국초기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학생
(유아 포함)</td><td>◦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과정(KSL)’ 별도 학급
◦ ’25년 기준 2원 28교/총 40개 ‘학급’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유</th><th rowspan="2">초</th><th rowspan="2">중</th><th colspan="2">고</th></tr>
<tr><th>일반</th><th>특성화</th></tr>
<tr><td>거제</td><td>-</td><td>1</td><td>-</td><td>-</td><td>-</td></tr>
<tr><td>김해</td><td>2</td><td>12</td><td>7</td><td>-</td><td>1</td></tr>
<tr><td>밀양</td><td>-</td><td>1</td><td>-</td><td>-</td><td>-</td></tr>
<tr><td>양산</td><td>-</td><td>4</td><td>2</td><td>-</td><td>-</td></tr>
<tr><td>진주</td><td>-</td><td>1</td><td>-</td><td>-</td><td>-</td></tr>
<tr><td>창녕</td><td>-</td><td>1</td><td>1</td><td>-</td><td>2</td></tr>
<tr><td>창원</td><td>-</td><td>3</td><td>1</td><td>-</td><td>-</td></tr>
<tr><td>함안</td><td>-</td><td>-</td><td>1</td><td>-</td><td>-</td></tr>
</table></td><td>학급
운영비 지원</td></tr>
<tr><td>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td><td>한국어학급
미운영 학교</td><td>◦ ‘한국어교육과정(KSL)’ 운영
◦ 최초 1회차+1회 재신청 가능(총2회차)
◦ 1회당 100시간 내외 한국어 집중 교육</td><td>강사비 지원</td></tr>
<tr><td>다문화
예비교육과정 운영</td><td>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다문화 대안교육
기관</td><td>◦ 생활 한국어, 기초 학습 한국어, 학년별 교과중심 한국어 등 언어·문화 학습기회 제공 및 공교육 진입 지원
◦ 기간 : 3개월~6개월
◦ 운영방식
a. 원적교 있는 상태에서 교육받고 출석 인정
b. 공교육 진입 전, 예비 한국어교육 실시 후 학적 생성</td><td>위탁</td></tr>
<tr><td>이중언어강사
인력풀 구성·운영</td><td>이중언어강사</td><td>◦ 이중언어가 가능한 내외국인으로 구성
◦ 이주배경학생의 의사소통, 모국어 지원, 학부모 상담 및 통역, 모든 학생 대상 국제 이해 및 다문화 감수성 함양 협력 수업, 이중언어 방과후 수업 등
◦ 학교당 최대 80시간 운영</td><td>인력풀 구성
강사비 지원</td></tr>
</table>

출처: 「2025. 경남 다문화교육 시행계획」 재구성

○ 이 외에도 기초학력보장 지원, 교과 학습 지원 멘토링, 진로·진학프로그램 지원, 심리상담 등을 제공함

3. 소결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문화접변과 영향 요인

○ 문화접변(acculturation)은 서로 다른 문화를 지속해서 접촉한 집단(개인) 간 '서로'의 문화적 경계를 좁히고 허물어 가는 과정이자 결과로, 이 과정은 '관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보통, 해당 사회의 소수자인 이민자가 더 큰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나, 이들을 받아들이는 지역사회 역시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음

○ 문화접변 과정은 단선적이지 않음.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은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각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심리적, 사회적 적응 결과의 차이임

- 통합: 이민자로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에 적극적 참여
- 동화: 이민자로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주류 사회에 적극적 참여
- 분리: 이민자로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에 참여하지 않음
- 주변화: 이민자로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주류 사회에도 참여 안함

○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거나, 우울감을 경험하며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 약물, 음주, 학교 중퇴,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문화접변에는 개인의 인적 자본(한국어 역량, 학력 등), 가족 자본(가족구조, 가족 기능,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학교생활(학업,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지역의 이민자 친화적·포용적 지원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13개 주요 이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45% 이상은 입국 후 6년까지 주변화 상태의 특성을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화 집단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정부의 적절한 정책 개입은 주변화 집단의 규모 변화 자체뿐 아니라 이 집단이 분리가 아닌 통합 또는 동화 집단으로의 상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Berry et al., 2006, Portes & Rumbaut, 2001; Williamson, 2018)

□ 경상남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기본법」,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경상남도가 운용하는 두 조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주민 (중도입국) 자녀가 정책의 대상이고, 이들은 보육사업, 교육사업(취학 전 학습 지원, 학과 외/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중도입국자녀 사회·문화 적응지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상술한 조례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으로 구체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025년도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경남은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국비 사업-교육활동비 지원, 기초학습지원, 진로 설계 지원-만 운영하고 있음

○ 사업 설계 자체가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사업이다 보니 학습지원에 초점을 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사업 지침상, 지원 대상에 외국인 주민 자녀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주민 자녀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학습지원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인데, 현재 추진하는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가족 자녀인 중도입국자녀 대상 사업으로 입국 5년 이하인 아이들 대상 한국어 방문 교육임. 그러나 이 또한 결혼이주자와 자원을 경쟁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지원 정책

○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에 있는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주배경학생의 기본권 중 하나인 학습권 보장 즉,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의 핵심은 공교육 진입과 한국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경상남도교육청은 '공교육 진입과 초기 적응 확대'를 목표로 이주배경학생 편입학 및 학적생성 지원, 한국어학급 운영,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다문화 예비교육과정 운영, 이중언어강사 구성·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어 교육 서비스 공급 부족

○ 2025년 기준, 경남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상태임

○ 경상남도는 특성화 사업으로 한국어 방문 교육을 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자녀가 아닌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접근하기 어렵고, 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음

○ 경남교육청은 2025년 8개 시군에 40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는 정책수혜자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큼. 일단, 학교를 거점으로 공급되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학생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움

- 한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주 배경 학생은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한국어 역량, 교과 학습 역량,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등 한국 생활이 전혀 달라질 수 있음

- 학교의 종류는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학교, △한국어학급은 운영하지 않지만, 찾아가는 한국어학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학교, △한국어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가 있음

○ 〈표 Ⅲ-12〉는 지역별, 학제별 한국어학급 운영 편차가 심한 것을 보여줌

- 김해를 제외한 지역에서 영유아기에 한국에 온 이주 배경 아동은 놀이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음

- 경남 내에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일반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도 교육 기회의 측면에서 눈여겨볼 점임. 이주 배경 고등학생이 '수시' 편입학하면 중학교에 배정된다거나, 이주 배경 중학생이 특성화고나 자율고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일반고등학교에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 〈표 Ⅱ-26〉에 따르면, 거제는 경남 내에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가 큰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학습 지원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한국어학급은 2025년부터 초등학교 1개교에 1학급 운영되고 있음

□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 시간 차이

○ '한국어학급'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주 배경 학생에게 최대 2년간 한

국어 교육을 제공함. 아이들은 매일 아침 1~2교시를 한국어학급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3교시 이후 본 학급으로 돌아가 수업을 받음

○ 이주 배경 학생에게 지원되는 한국어학습 시간은 초등학생 507시간, 중학생 570시간, 고등학생 633시간으로 학교급별 차이가 있음

- 초중고의 연간 수업 일수는 190일이고, 학제별 수업 시간은 초등 40분, 중등 45분, 고등 50분임. 이주 배경 학생은 최대 2년 즉 380일 동안 하루 2교시씩 한국어학급에서 한국어를 학습함으로 학제별 시간 산정 식은 다음과 같음

$$\text{초등} = (380\text{일} \times 2\text{교시} \times 40\text{분}) / 60\text{분} = 507\text{시간}$$

$$\text{중등} = (380\text{일} \times 2\text{교시} \times 45\text{분}) / 60\text{분} = 570\text{시간}$$

$$\text{고등} = (380\text{일} \times 2\text{교시} \times 50\text{분}) / 60\text{분} = 633\text{시간}$$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는 학교당 최대 2회 신청할 수 있고, 1회당 신청 학교의 학생은 100시간 내외의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즉, 최대 200시간의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문화 예비교육과정' 역시 원적교를 두고 다른 장소로 가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나 경남 18개 시군 중 단 1곳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 수혜자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제한되고 있음

○ '이중언어강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정교사 한 명이 소화하는 것에 버금가나, 학교당 최대 80시간 강사비가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해도 16일에 불과함. 이중언어강사 제도도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현행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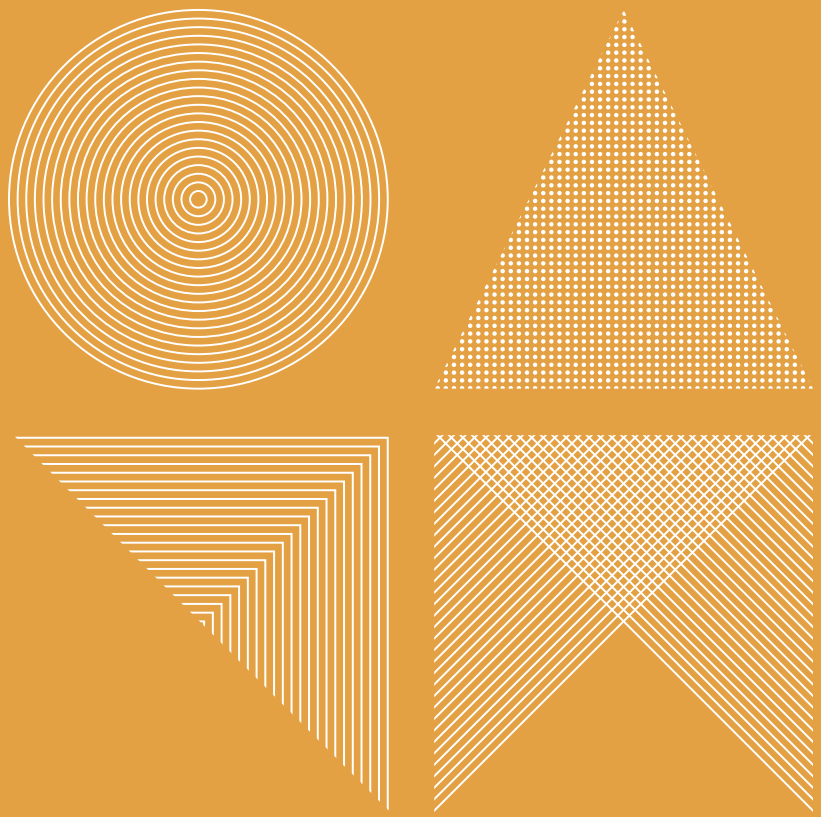
○ 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서비스양의 차이가 뚜렷함을 확인함. 이는 최근 이주 배경 학생 유입 급증으로 한국어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학교의 교육 질 저하, 이주 배경 학생이 집중되는 학교와 교사의 부담 가중 문제, 이주 배경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과 무관하지 않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 조명

○ 현재 경남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학교가 아니면 마땅히 한

국어교육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우나, 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모든 이주 배경 학생이 접근할 수 있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님

- ❍ 교육청의 정책 대상은 '학생'으로 미취학 아동, 학령기지만 학교에 입학, 편입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 학교를 중퇴한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
- ❍ 경남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경상남도의 주민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경상남도는 이들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우선은 이주 배경 학생의 문화접변에 주요 영향 요인인 한국어 교육 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어떻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인지 숙의가 필요함



IV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Ⅳ.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1. 면접조사

1) 개요

□ 조사 목적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

□ 조사 기간

○ 2025.06.14.(토) ~ 2025.07.26.(토) (42일간)

□ 면접대상자와 조사 방법

○ 면접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실태 자료를 다양한 행위자의 관점에서 수집하는 트라이앵귤레이션(triangulation) 방법을 적용함

○ 면접 대상은 총 36명으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당사자 17명과 당사자 주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부모 6명, 현장 전문가 7명, 지도교사 6명으로 구성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과 부모는 언어의 다양성과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해 통역이 배석한 상태에서 개별심층 면접을 진행함

- 아이들 조사는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번역해 제공한 반구조화 질문지를 토대로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날, 수업하는 장소에서 시간을 조정해 1시간 정도 진행함. 아이들의 부모에게는 사전에 언어별로 번역한 연구 소개와 조사 내용을 미리 제공하고 부모 동의서를 받았음
- 부모 조사는 아이들과 같이 사전에 각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 반구조화 질문지를 토대로 재단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함

○ 현장 전문가, 이중언어 강사, 한국어 학급 교사 조사 역시 사전에 반구조화 질문지를 제공하고 면접을 진행함

- 현장 전문가와 이중언어 강사는 재단에서 2시간 정도 초점집단면접으로,

한국어 학급 교사는 각 학교 교실에서 1시간 정도 개별심층 면접을 진행함

〈표 Ⅳ-1〉 면접대상자와 조사 방법

면접대상자	규모	조사 방법	통역	비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당사자	17명	개별심층면접	○	◦ 초 9 ◦ 중 4 ◦ 고 4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부모	6명	개별심층면접	○	◦ 결혼이주 1 ◦ 노동이주 5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	7명	초점집단면접	-	◦ 가족센터 4 ◦ 사회복지관 1 ◦ 시민단체 2
한국어 학급 교사	2명	개별심층면접	-	◦ 초 1 ◦ 중 1
이중언어 강사	4명	초점집단면접	-	◦ 중국 1 ◦ 베트남 1 ◦ 인도네시아 1 ◦ 러시아 1

□ 면접대상자 섭외 방법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주로 경남 가족센터의 협조로 섭외함

- 경남 가족센터는 2025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인생네컷' 사업을 양산 가족센터, 창녕 가족센터, 진주 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추진하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부모 일부가 면접조사에 참여함

❍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의 자체 프로그램인 '모국어 학습 지원'에 참여하는 아이들 일부가 면접조사에 참여함

❍ 현장 전문가는 '인생네컷'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자체 사업을 하는 기관의 담당자를 소개받아 초점 집단을 구성함

❍ 이중언어 강사는 가족센터의 이중언어 강사 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교육청 이중언어 강사 풀에 등록되어 학교 현장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들을 소개받아 초점 집단을 구성함

❍ 학교 한국어 학급 교사는 각 지역 가족센터 담당자의 연계로 면접함

○ 이들을 중심으로 면접조사를 추진하면서 조사의 취지를 이해한 통역, 현장 전문가의 소개로 눈덩이 표집을 통해 면접조사를 진행함

□ 조사 내용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주 배경, 개인 특성, 가족 특성, 학교생활, 사회·경제적 생활 등에 대한 현황, 문제점과 정책 수요를 조사함. 조사 대상별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표 Ⅳ-2〉 ~ 〈표 Ⅳ-4〉에 제시함

〈표 Ⅳ-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심층 면접조사 내용

영역	조사 내용	
이주배경	◦ 인적특성	◦ 나이, 태어난 나라, 비자(VISA) 유형 등
	◦ 한국 오기 전 가족생활	◦ 부모 나이, 직업 등 ◦ 가족관계 및 가족해체 경험, 부모와 별거 기간 등
	◦ 한국에 온 배경	◦ 한국에 오게 된 시기와 이유 ◦ 한국에 오기 전 준비 사항 및 정도
개인	◦ 생활	◦ 한국의 첫인상과 한국 생활의 어려운 점 ◦ 입국 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문화적응	◦ 한국어, 한국문화 등 학습·습득 어려움 ◦ 한국어, 한국문화 등 학습·습득 경로 ◦ 다문화 수용성, 국적 정체성 혼란 여부 등
가족	◦ 가족구조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 가족의 경제적 여건
	◦ 가족관계	◦ 가족관계 인식 ◦ (양) 부모와 갈등 경험 및 대응 방법
	◦ 가족생활	◦ 가족 간 대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 주중 저녁 시간, 주말 시간 활용 방법
학교	◦ 재학	◦ 학교 재학 여부 ◦ 한국 학교의 첫인상과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 사교육 경험 여부
	◦ 비재학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 평일 및 주말에는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 학교에 (다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 관계	◦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 진로 및 진학	◦ 한국에서의 나의 미래, 최종 희망 학력, 장래 희망 ◦ 향후 진로 계획 및 진로 고민 해결 방법

영역	조사 내용	
사회·경제적 활동	◦ 일·노동	◦ 일 경험 여부 및 근로 여건 ◦ 일하는 곳에서 부당한 경험 여부
	◦ 사회 활동	◦ 학교 외의 사회적 모임·활동 등을 하는지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이용 경험 여부
	◦ 차별	◦ 차별 경험 여부와 대응 방법
정책 수요	◦ 한국 사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	

〈표 Ⅳ-3〉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부모 심층 면접조사 내용

영역	조사 내용	
이주배경	◦ 인적특성	◦ 나이, 태어난 나라, 직업, 비자(VISA) 유형 등
	◦ 자녀가 한국 오기 전 가족생활	◦ 자녀의 성격, 학교생활 등 ◦ 자녀와의 관계 ◦ 정서적, 경제적 지원 여부
	◦ 자녀가 한국에 온 배경	◦ 자녀와의 별거 기간 ◦ 자녀를 한국에 초청한 시기와 이유, 과정 등 ◦ 자녀가 한국에 오기 전 준비 사항 및 정도(자녀, 본인) ◦ 자녀의 한국 정착에의 어려움 여부
가정환경	◦ 가족구조	◦ 현재 함께 사는 가족 ◦ 가족의 경제적 여건
	◦ 가족관계	◦ 가족관계 인식 ◦ 자녀와 갈등 경험 및 대응 방법
	◦ 가족생활	◦ 가족 간 대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 주중 저녁시간, 주말 시간 활용방법
자녀	◦ 돌봄	◦ 자녀 돌봄의 현실과 어려움
	◦ 교육	◦ 자녀 교육의 현실과 어려움 ◦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로서 고민 ◦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자녀가 현재 받는 공적 지원
정책 경험 및 수요	◦ 정부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주로 습득하는 경로 ◦ 한국 사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	

〈표 Ⅳ-4〉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와 지도교사 면접조사 내용

영역	조사내용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특성	◦ 개인 특성
	◦ 가정 환경 특성
공공서비스 및 추진체계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
	◦ 유입경로
	◦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
	◦ 지원 시 어려운 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현황
정책 수요	◦ 필요한 정책 지원

2) 면접 참여자의 주요 특징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 면접 참가자의 나이는 7세부터 18세까지고[6] 한국 거주기간은 최소 7개월에서 최대 9년이며, 국적은 키르기스스탄 1명, 러시아 2명, 베트남 3명, 우즈베키스탄 4명, 중국 1명, 카자흐스탄 4명, 태국 1명, 투르크메니스탄 1명임. 이 가운데 1명은 국내에서 출생했고, 종교를 가진 아이는 없었음

❍ 체류자격은 방문 동거(F-1) 7명, 거주(F-2) 1명, 가족 동반(F-3) 1명, 재외동포(F-4) 6명, 기타(G-1)[7] 1명, 사증 면제(B-1)[8] 1명임. 부 또는 모가 결혼 이주 자격인 아이들은 4명이고, 나머지는 동포 포함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임

- 방문 동거(F-1)는 부모의 체류자격이 결혼 이주(F-6), 동포(F-4)면, 가족 동반(F-3)은 부모의 체류자격이 D 계열(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E 계열(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일 때 발급됨

6) 본 연구의 대상의 나이 범위는 만 18세 이하이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면접조사 방식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얻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면접 대상에서 제외함

7)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사람. 즉, 산재·질병 치료, 난민 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되며 1년 유효기간이나 연장할 수 있음(법무부, 2022)

8) B 계열 비자는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으로 3개월 이내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할 수 없는 단기 체류 비자임(법무부, 2022)

○ 17명 중 6명(A3, A8, A9, A11, A14, A17)은 통역에 의지하지 않고 한국어로 면접을 진행함

〈표 Ⅳ-5〉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주요 특징

구분	성별	나이 (세)	국적	비자 유형	한국 입국 시기	학제	거주 지역
A1	여	7	키르기스스탄	F-1	2023.01.	초	창원
A2	남	7	우즈베키스탄	F-1	2018.03.	초	창원
A3	여	9	우즈베키스탄	F-1	국내출생	초	창원
A4	남	11	카자흐스탄	F-4	2022.11.	초	창녕
A5	여	11	카자흐스탄	F-4	2022.11	초	창녕
A6	여	12	카자흐스탄	G-1	2023.11.	초	창원
A7	여	12	카자흐스탄	F-1	2021.07.	초	창원
A8	남	12	투르크메니스탄	F-4	2018.	초	창원
A9	여	13	베트남	F-1	2024.07.	초	진주
A10	여	13	베트남	F-1	2024.07.	중	창원
A11	여	13	러시아	F-4	2017.05.	중	김해
A12	여	15	베트남	F-1	2024.01.	중	진주
A13	여	16	중국	F-2	2024.04.	중	창원
A14	남	17	우즈베키스탄	F-3	2023.01.	특성화고	창원
A15	남	17	태국	B-1	2022.04.	일반고	양산
A16	남	17	러시아	F-4	2024.12.	미등교	양산
A17	남	18	우즈베키스탄	F-4	2018.04.	일반고	김해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부모

○ 면접 참가자의 나이는 34세부터 48세까지로 30대 2명, 40대 4명이고, 한국 거주기간은 최소 1년 10개월에서 최대 7년 8개월이며, 출신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카자흐스탄 1명, 러시아 2명, 베트남 1명임

○ 면접대상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 B1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14년을 생활한 남편이 최근 비자를 E-7

으로 바꾸면서 가족을 초청해 입국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중학교 수학 교사로 일했음. 동반 비자(F-3)로는 일할 수 없어 유학(D-2) 비자로 전환하였으나,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음

- B2는 고려인 동포로 천안-함안을 거쳐 창원에 정착함. 키르기스스탄에서 보석 세공사로 일하다가 방문취업(H-2)으로 입국했으나, 국내에서 자격증 취득 후 동포 비자(F-4)로 전환하고 가족을 초청함
- B3은 베트남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다가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한국인과 재혼하여 결혼이민비자(F-6)로 한국에 입국해 전혼(前婚) 관계의 두 자녀를 초청하고, 셋째를 출산함
- B4는 고려인 동포로 카자흐스탄에서 세무·회계 분야에서 일하다가 코로나 무렵 일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친척이 있는 창원으로 와 직장생활하고 있음. 최근, 딸이 한국에 와 함께 살고 있고, 아들은 키르기스스탄에서 남편은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음
- B5는 고려인 동포로 출신국은 카자흐스탄이나 국적은 러시아임. 카자흐스탄에서 이혼 후, 일을 구하기가 어려워 한국으로 옴. 동포 비자로(F-4) 거제에서 일하고 번 돈을 카자흐스탄으로 보내다가, 최근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의 딸을 데리고 와 함께 살고 있음
- B6는 남편이 러시아 출신 고려인 동포(F-4)로 결혼 전부터 한국에 와서 살 계획을 함. 최초 한국 입국은 울산으로 했으나, 거제의 자연경관에 매료되어 거제로 이주함. 현재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음

〈표 Ⅳ-6〉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부모 주요 특징

구분	성별	나이 (세)	국적	비자 유형	한국 입국시기	경제 활동	혼인 상태	거주 지역
B1	여성	40	우즈베키스탄	D-2	2023.01.	×	초혼	창원
B2	남성	47	키르기스스탄	F-4	2018.01.	제조업	초혼	창원
B3	여성	34	베트남	F-6	2019.09.	×	재혼	창원
B4	여성	48	카자흐스탄	F-4	2020.09.	제조업	초혼	창원
B5	여성	48	러시아	F-4	2018.03.	제조업	이혼	거제
B6	여성	35	러시아	F-1	2023.11.	×	초혼	거제

주) B1은 A14의 모친, B2는 A1의 부친, B3는 A10의 모친, B4는 A7의 모친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

○ 경남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김해, 양산, 진주, 창녕, 창원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다년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과 그 자녀의 지원을 해 오고 있음

〈표 Ⅳ-7〉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

구분	참여자	지원 기간	지역
C1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8년	김해
C2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7년	김해
C3	양산시가족센터	23년	양산
C4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21년	진주
C5	창녕군가족센터	11년	창녕
C6	경상남도가족센터	21년	창원
C7	경상남도가족센터	13년	창원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도교사

○ 한국어 학급 교사 2명(초 1, 중 1), 이중언어 강사 4명(중국어 1, 인도네시아어 1, 베트남어 1, 러시아어 1)으로 구성함. 한국어 학급 교사는 한국어 학급을 담당하면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음

〈표 Ⅳ-8〉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도교사

구분	활동유형	참여자	지원 기간	지역
D1	한국어 교사	○○초등학교 교사	2년	창녕
D2		○○중학교 교사	4년	양산
D3	이중언어 강사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3년	창원
D4		인도네시아어 방과 후 시간제 강사	4년	창원
D5		베트남어 이중언어 강사	4년	창원
D6		러시아어 이중언어 강사	8년	김해

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분석

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1) 이주 배경

□ 아이들의 한국 이주 결정은 제한적 선택의 결과

○ 부모가 먼저 한국에 와 있던 아이들은 입국 시기와 의사에 차이가 있으나, 결국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제한적 선택 환경에 놓여 있었음

- 면접에 참여한 일부 아이들은 아빠 혼자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엄마와 본국에서 생활하다가 아빠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은 후 입국했는데, 자신들도 한국에 오고 싶었다고 답함

◦ 아버지가 한국에 8년 정도 먼저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한국 오라고 해서 갑자기 식구들이랑 오게 됐어요. (A16)
◦ 엄마랑 언니랑 왔고, 아빠는 한국에서 일하기가 어려워서 카자흐스탄에서 일하고 있어요. (A6)
◦ 아빠가 먼저 와서 일하고 계셨고, 엄마랑 누나랑 동생이랑 저는 나중에 왔어요. (A8)
◦ 아빠가 15년 전에 한국 오셔서 먼저 일하고 계셨어요. … 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A14)

- 어쩔 수 없어서 한국에 왔다는 아이들도 있음. 이들은 주로 본국에서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음.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적 요인도 아이들이 원하지 않지만, 한국으로 오게 된 하나의 이유임
- 고려인 동포 자녀는 성장할수록 본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이민자 친화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이주를 결정함

◦ 저는 엄마가 한국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A12)
◦ 엄마가 재혼하셔서 7년 전에 한국으로 가셨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동생이랑 태국에서 살았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나이도 많으시고 일도 바쁘셔서 시간이 없으셔서 저하고 동생이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엄마도 오는 게 좋겠다고 하시고. … 저는 상관없었

어요. (A15)

◦ 한국에 어쩔 수 없이 왔어요. 부모님들 여기 있고.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말하면, 약간 고려인이면 저 같은 사람이면, 약간 될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없어요. 차별 이런 거 조금 있어서. 제가 태어났던 도시가 약간 마을? 시골? 중간이라서 대학도 못 가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일자리도 없어요. … 우즈베키스탄도 소련이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우즈벡 사람들한테 러시아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처럼 우즈벡어 몰라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약간 "너 약간 중국인이야." 이러면서 차별받아요. 어릴 때 한번 맞은 적 있어요. 막 이거 눈 때문에. 눈이 좀 그래서 (A17)

□ 초국적 가족관계 경험

○ 아이들은 일찌감치 초국적 가족관계를 경험함. 부모의 이주 노동으로 인한 초국적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의 해체나 단절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로 아이들은 부모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항상 전화, 영상 통화,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일상적 소통과 교류를 하고 1년에 1달에서 3달 정도 한국과 본국을 오가며 만나 왔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 공백을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엄마랑 동생이랑 살았어요. … 아빠가 1년에 한 번씩 우즈베키스탄에 왔었고 자주 통화했어요. (A14)

◦ 부모님이 한 10년 정도 한국에서 일하고 계셨고, 어렸을 때 잠깐 한국에서 유치원 다녔었어요. … 초등학교를 중국으로 갔고 그동안 저는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엄마가 (한국에 오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봤고,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요. (A13)

◦ 부모님이 한 몇 년? 기억이 안 나지만, 갔다가 다시 와서 언니랑 저랑 데려왔어요. 그동안 할머니랑 살았어요. (A11)

◦ 부모님이 나오고, 형이 먼저 가서 저 할머니랑 살고 있었어요. 형이 한국에 가서 저도 2018년도에 한국에 따라왔어요. 부모님이 결정하시고 일주일 만에 왔어요. 할머니랑 5~6년 살았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중간에 막 3개월씩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약간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하러 갔어요. (A17)

○ 일부 고려인 동포 가족은 이 같은 초국적 가족관계를 한국에서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음. 부부가 모두 고려인 동포가 아닌 경우, 동포가 아닌 배우자는 동반가족 체류자격을 얻는데, 배우자는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음

○ 남편만 고려인 동포인 가족은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이주하고, 아내만 고

려인 동포인 가족은 초국적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 이때 한국이 미성년자녀의 교육 환경에 좋다고 판단하면 실질적 한부모 가족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엄마랑 언니랑 할머니랑 (한국) 왔어요. 아빠는 한국에서 일할 수가 없어서 카자흐스탄에서 일하고 있어요. (A6)
◦ 엄마랑 저랑 (한국) 왔고, 오빠는 카자흐스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아빠는 러시아에서 일해요. (A7)

❍ 가족관계 해체로 초국적 가족관계를 경험한 아이들도 있음. 이들은 주로 만 6세 미만인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가족관계 해체를 경험하고 10대 중반 한국에 오기 전까지 외조부모와 살면서 엄마와는 인터넷 기반 통신 수단이나 매체를 이용해 일상적 소통과 교류를 함

❍ 가정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엄마가 경제적 여력이 되는 경우 1년에 몇 번씩 베트남을 방문해 아이를 챙기고, 재혼으로 형성한 새로운 가족과 아이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 한국 오기 전까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학교에서는 친구 아주 많았고, 재미있게 지냈어요.… 엄마랑은 매일매일 통화했고, 엄마가 1년에 두 번 설날하고 여름휴가 때 왔었어요. … 새아빠도 베트남에도 왔었어요. (A10)
◦ 베트남에서 엄마는 아빠랑 결혼 안 하고 같이 살다가 헤어지셨고, 한국에 갔어요. 그동안 저랑 동생은 외할아버지랑 살았어요. (A12)
◦ 저는 3살 때부터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엄마는 베트남 다른 도시에서 일하다가 2020년에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하이퐁으로 와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엄마가 다시 한국으로 갔어요. 엄마 한국 가서도 핸드폰으로 매일 전화했어요. (A9)

□ 한국으로 오기 위한 준비, 한국어 공부

❍ 아이들은 한국행이 결정되고 나면, 나름대로 한국어 공부를 했다고 답함. 인터넷을 활용한 독학, 한국에 있는 엄마와 전화로 공부, 본국에서 학원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일 년까지 한국어를 준비함

◦ 한국 오기로 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1년 정도 동생이랑 한국어 학원 다녔어요. (A14)
◦ 5학년 때부터 한국 오는 거 엄마랑 이야기했고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혼자 한국어 공부했어요. (A10)
◦ 한국 오기 전에 전화로 엄마랑 한국어, 같이 공부했어요. (A9)
◦ 한국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한국어 배웠어요. (A13)

(2) 문화접변

□ (첫인상) 깨끗한 환경에 대한 높은 만족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큰 기대

○ 아이들은 한국, 경남,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 문화와 관습에 대한 차이를 크게 느끼기보다는 깨끗한 환경과 자연경관, 기후 등에 차이를 느끼고, 이런 차이를 흥미로움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즐거워함

◦ 대한민국 너무 예뻐요. 여기서 사람들 안 싸워요.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화 안 내요. 잘 가르쳐줘요. 일자리 많아요. 산이 많아서 바람 시원해요. (A4)
◦ 되게 설렜고, 너무 흥미로웠어요. 제가 살았던 도시랑 놀이터까지 다 다르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A11)
◦ 깨끗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요. (A16)

□ (초기) 한국 생활 적응의 가장 큰 어려움, 한국어

○ 한국 생활 적응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단연 한국어임. 아이들 대부분은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게 됨. 한국어를 모르다 보니 소통이 안 되고, 친구를 못 사귀고, 수업 내용을 알아듣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음.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무섭고, 슬프고, 부끄럽고, 외로운 감정을 느끼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싫었다고 말함

○ 한국어 학급이 있는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도 한국어 학급에 있는 2시간을 제외하고 3교시부터 한국어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A17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냥 앉아 있는 것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고 함

◦ 한국말 못해서 너무 무섭고, 부끄러웠어요. (A4)

◦ 말은 알아듣는데, 말을 못 하니까 마음이 슬펐어요. (A5)
◦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과 대화를 못 하니까 좀 (어려워요) … 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말을 아예 모르니까 친구들과 소통을 못해서 외로웠어요. 반에서 친구들이 저를 완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A10)
◦ 지금 가장 고민은 언어 배우기. (A13)
◦ 언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그냥 달라요. … 처음에 한국 와서 학교 다녀도 언어 못하니까 친구 없어서 너무 외로웠어요. (A15)
◦ 처음에 한국말 몰라서 친구들과 같이 있기 어려웠고, 학교 다니기도 싫었어요. (A14)
◦ 친구가 없는 거 하고, 한국어를 몰라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없어서 힘들어요. (A16)
◦ 학교 바로 가니까 말도 아예 모르고, 근데 우리 초등학교에 러시아 친구들 많아서 외롭진 않았는데, 그냥 반에서, 반 수업 시간에 반에 있을 때 좀 이상했어요. 약간 슬펐어요. 러시아에서 이렇게나 재밌게 수업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한국말도 배워야 하고 또 그랬어요. 슬펐어요. (A17)

□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기초 한국어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함

❍ 기초 한국어를 습득했어도,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데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임. 5살에 한국에 온 A8은 4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식함

❍ 기초 한국어를 습득했다고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년 전에 입국해 한국어로 인터뷰할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A14는 자신의 발음이 어눌해 한국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함

❍ A11은 한국어 학급이 운영 중인 학교에 다녔는데, 당시 자신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상태였지만, 외국인인 자신이 한국 아이들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한국말을 틀리게 구사하는 것이 걱정되어 외국 아이들과 어울렸다고 말함

◦ 제가 처음 입학한 그 학교, 초등학교는 사실 거기에는 외국인도 좀 섞여 있었던 학교다 보니까, 저는 한국어를 좀 배워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도 살짝 부끄러워했어요. 다른 한국 애들이랑 말을 걸기가 좀 쑥스러워했고. 낯선 애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언어를 쓰는 게 좀 부끄러웠다고 해야 하나? 틀릴 수도 있으니까. (A11)
◦ 지금도 말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발음이 안 좋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A14)

◦ 지금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한국말로는 4학년 때부터 정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A8)

□ 부모님의 기대, 기초 한국어 능력과 교과 한국어 능력 차이 인식 필요

○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매우 큰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 발생하는 학습 결손은 불가피한 일일 수 있음. 학교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못 알아듣는 아이는 수업 시간에 자거나 딴짓할 수밖에 없고, 공부에 대한 효능감과 자신감을 잃어갈 수 있음

○ 한국에 오기 전 본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실했던 아이일수록 부모는 아이가 한국에서도 금방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향이 있음. 교과 공부를 할 수 있는 한국어와 기초 생활 한국어가 다르다는 점을 부모가 분명히 인지하고 아이를 지도하지 않으면 가족 내 부모-자녀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엄마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간 다툼이 있어요. (A13)
◦ 아빠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 중학교 때 제가 매일 학교 가서 계속 잤어요. 밤에 늦게 자서. 그때는 태국 사는 친구랑 전화해서 게임도 하고, 지금은 여기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이랑. 3학년 때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부모 상담했는데, 선생님이 제가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잔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핸드폰 밤 11시까지 사용하는 규칙 만들었어요. (A15)

□ 한국어 학습 방법, 한국어 학급 〉 센터 〉 사교육

○ 면접에 참여한 아이들 대부분은 한국어 학급이 운영되는 학교에 다녔고, 한국어는 학교의 한국어 학급에서 배웠거나 배우고 있음. 학교 외에서는 가족센터에서 주 1회 매주 토요일 운영하는 '인생네컷'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한국어 사교육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기초 한국어 수준은 넘은 아이들은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전혀 한국어가 안되는 아이들은 본국에 있는 한국어 선생님과 줌(Zoom)에서 만나 모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는 학교, 가족센터,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줌으로 베트남 선생님이랑 일주일에 세 번 1시간씩 공부해요. … 학교에서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선생님이 천천히 이야기해 주고, 숙제도 주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친구들도 한국말 많이 도와줘요. (A10)
◦ 한국어 학급에서 배우고 주말에 여기 센터 와서 공부해요. (A13)
◦ 한국어 학급에서 배우고, 주말에 여기 센터 와서 공부하고, 일주일에 두 번 한국어 학원에도 가요. (A6)
◦ 저 유치원 때, 언니도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완전 낯선 언어가 아니었어요. 유치원에서도 가벼운 단어 배웠고. 초등학교 가서 한국어 학급 1, 2교시마다 수학, 국어만 빠지고 거기서 한국어 2년 동안 배웠어요. (A11)
◦ 학교 한국어 학급에서 배웠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 한국어 학원에 갔어요. 센터에 한국어 배우러 갔어요. 거기서 이제 기초 배우고 좀 나아졌어요. 학교생활. 이제 한국 친구들과 좀 사귀고, 약간 대화하고, 장난치고. 그때 좀 나아졌어요. 한국 친구들과 소통해 보니까 한국말도 잘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한국말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A17)
◦ 여기(센터)서 월, 화, 목, 토 9시부터 12시까지 배우고, 자료 가져가는 거 숙제들 그거 집에서 혼자 해요. (A16)

□ 문화 학습은 학교 수업 시간에

❍ 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관해 물었을 때, 본인의 생활 반경에서 경험한 표면적인 차이에 대해서 비교적 관점으로 답함. 주로 대중교통이 정확하고 편리하고 쾌적하다거나, 학교 급식이나 시설이 너무 좋다거나, 거리가 깨끗하다는 등의 설명을 함

❍ 이 같은 표면적인 차이 말고 한국의 제도와 관습 등 핵심 문화에 대해서는 학교 '사회'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답함. 동포 자녀의 경우는 한국적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사신 조부모에게 식문화, 식사 예절 등에 대해 배워서 알고 있다고 언급함

❍ 그러나 동포 가족이라도 부모가 한국적 생활 양식을 유지하지 않고 본국에 동화되어 살아간 경우, 가족 내에서도 한국의 관습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음. 특히, 5살에 한국에 온 A8은 본국의 관습에 대해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관습에 대한 이해가 양쪽 국가 모두에 대해서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급식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좋아요. 카자흐스탄에서는 국 하나만 나왔는데. 카자흐스탄 학교에는 약간 나쁜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건 아직

안 느껴 봤어요. 한국에는 다 새 차고 깨끗한데, 카자흐스탄은 낡은 차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버스 타면 버스 정류장에 시간표랑 다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고, 버스도 제시간에 오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듯하게 만들어 놨는데 카자흐스탄이랑 완전히 달라요. (A6)

◦ 한국 명절에 대해서 배운 적 없어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명절 안 지내봤어요. 그런 날은 그냥 쉬는 날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A8)

◦ 수업 시간 때. 비빔밥 같은 옛날 음식도 수업 시간 때만 알았고. 그냥 단어 같은 거 배울 때도 나오긴 나왔지만, 제대로 배우는 거는 사회 시간 그때 주로 배웠고. 역사, 대통령 법적 그런 거 정치 6학년 때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회 시간 때만 다 배웠어요. … 외할머니, 할머니가 고려인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예의 없다"라는 말 많이 들었고, 밥 예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 먼저 그리고 아빠 다리 하는 것도 할머니한테 온 것 같아요. (A11)

◦ 제가 태국에서 사립학교 다녔어요. 근데 태국 공립 학교는 보통 에어컨도 나쁘고, 음식도 별론데 한국 공립 학교는 돈도 안 내고, 에어컨도 점심도 다 주고 급식도 너무 좋아요. (A15)

◦ 저는 그냥 한국에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 우즈베키스탄 살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약간 국밥이나 한식을 주로 해주셨어요. (A17)

☐ 한국 정주 의사, 한국에 계속 살고 싶어요. vs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 한국 정주 의향은 아이들의 한국 문화접변 척도로 볼 수도 있는데, 가족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낸 아이들은 주로 동포로 체류자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가족 구성원 모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음

❍ 어릴 때부터 긴 시간 초국적 가족관계를 경험 한 아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A6와 A9, A10의 양상은 차이가 있음

- A6의 아빠와 언니들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고 대학생인 언니들이 방학마다 한국에 방문해, 일 년에 몇 달씩 함께 지내는 초국적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비교적 약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A6는 한국어나 학교생활도 곧잘 하는 편으로 보이나, 엄마의 권유로 중학교를 마치면 최근 카자흐스탄에 생긴 한국 '콜리지'[9]에 진학할 것이라고 말함

- A9과 A10은 현재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잘 생활하고 있고, A9은 한국에 입국한 지 1년 정도 만에 통역의 도움 없이 인터뷰를 소화할 정도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지만, 한국 생활이 외로운 A9은 3살 때부터 자

9) 고등학교 과정의 직업전문학교

신을 돌봐준 외할머니 곁에 살고 싶어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면 베트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함

- A10은 한국어, 특히 말하기 영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어 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인근 학교에 입학했다가 왕따당한 A10은 지금도 당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심리적 괴로움과 슬픔이 컸음. 아이는 앞으로 한국에 오는 아이들이 자기처럼 힘들지 않게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함

◦ 베트남 돌아가고 싶어요. 베트남에서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A10)
◦ 저는 대학교 다 졸업하면 베트남 돌아가고 싶어요. 외할머니 근처에서 살고 싶어요. (A9)
◦ 저는 중학교 마치면 카자흐스탄에 갈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한국 칼리지가 있어서 거기 다니고 싶어요. (A6)

◦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고, 가능하면 국적도 바꾸고 싶어요. (A13)
◦ 러시아에는 중요한 추억이 없어서, 제가 원하지 않아요. (A11)
◦ 우즈벡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A17)

(3) 가족

□ 다문화가족과 동포 가족 간 가족 지지체계의 차이

○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자녀는 한국에서 새아빠, 엄마, 동복형제, 이부형제와 가족이 되어 지내고 있음. 면접에 참여한 아이들은 가족 간 관계가 좋은 편이고, 새아빠의 돌봄과 지지를 받고 있는데, 가족 외에 친척과 교류는 거의 없는 편임

- 오랫동안 외조부모와 살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로부터는 독립적인 편인 A9은 새아빠의 '한국식' 돌봄이 고맙기는 하지만, 불편하기도 함

○ A12는 엄마가 초청해 한국에 왔는데, 정작 엄마는 새아빠와 별거하고, A12가 새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음. A12를 지원하는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 새아빠가 아이의 한국 생활 적응과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잘하고 있음. 그러나, A12는 한국 생활에 적응·정착하고 학업을 이어감에 있어 엄마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나 엄마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지

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엄마, 새아빠, 동생 두 명 이렇게 5명 있어요. 베트남 동생은 저보다 2년 먼저 한국 왔고, 막냇동생은 4살이에요. (A10)
◦ 새아빠랑 엄마랑 동생 둘이랑 다섯 식구에요. 태국 동생은 저랑 같이 왔어요. (A15)
◦ 엄마랑 새아빠랑 저랑 셋이 살아요. 새아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가고 너무 행복해요. … 아빠 착한 사람인데, 아빠랑 저랑 생각이 달라요. 아빠는 저를 아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이해 안 돼요. (A9)
◦ 저는 새아빠랑 둘이 살아요. … 한국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줬으면. (A12)

❍ 반면, 고려인 동포 가족은 친척들이 인근에 모여 사는 경향이 있어, 다문화가족 아이들보다는 가족 자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엄마는 중앙동 할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고, 아빠는 용원에 가게 있어요. 삼촌이랑 숙모는 근처에서 우즈베키스탄 마트 해요. (A3)
◦ 엄마랑 언니랑 살고 있고, 둘째 언니는 대학생인데 방학 때 카자흐스탄에서 와요. 이모랑 삼촌도 창원에 있어요. (A6)

□ 가족 내에서는 주로 모국어로 소통

❍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와 모국어로 소통하고, 모국어로 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모국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유는 한국어를 못하는 부모님과 TV를 함께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어 콘텐츠를 보고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하므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모국어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모국어가 서로 다른 재혼 가정 아이들은 엄마와 모국어로 이야기하고, 새아빠와는 간단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일상생활의 소통은 하고 있음. 필요한 경우 엄마가 통역하거나,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하지만, 아이들이 새아빠와 감정, 정서, 생각 등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아이들은 모국어를 잊지 않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까? A11은 모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모국어 서적을 보고, 글쓰기 연습을 한다고 했지만, A11을 제외한 아이들은 모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음

◦ 가족 안에서는 베트남어도 말하고 한국어도 조금 해요. … 그냥 간단한 거. 밥 먹고, 서로 소통할 수는 있는데, 어려운 거는 엄마가 도와줘요. (A10)
◦ 아빠한테는 한국말로 하고, 엄마한테는 가끔 한국말로 하고 주로 베트남어로 말해요. (A9)
◦ 새아빠랑은 영어로 하고, 엄마랑은 태국어로 해요. 아빠랑 이야기할 때 이해가 안 가면 번역기 써요. (A15)
◦ 집에서는 러시아어 써요. … 러시아어 안 잊어버리려고 책도 읽고, 시간 날 때마다 러시아어로 글쓰기도 하고. (A11)
◦ 집에서는 러시아말 써요. 부모님이 한국말 못하세요. … 저는 러시아 친구랑 사귑니다. 나가서 놀거나 유튜브 보거나. 저는 한국 노래도 안 들어요. 러시아권 것만. 취향이 아니라, 한국어로 뭐라도 들으면 약간 쉬지 않고 계속 집중해야 해서 피곤해요. 즐길 수 없어요. (A17)
◦ 한국 프로그램이 더 재미있는데, 엄마, 아빠 한국말 몰라서 러시아 TV 프로그램 같이 봐요. (A5)

□ 가족구조와 부모님의 경제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른 아이들의 생활

○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은 평일엔 학교생활과 학업을 중심으로 일과를 소화하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말에는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외출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전반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음

◦ 평일에는 낮에 학교 가고, 저녁에 가족과 지내고, 금요일은 저녁마다 가족 다 같이 모임하고, 주말에는 가족 다 같이 밖에 놀러 가요. (A10)
◦ 학교 끝나면 아동센터 갔다가 합기도 가요. 집에 와서 밥 먹고, 게임을 하거나 TV 봐요. … 주말에는 밖에서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축구하고 놀아요. 일요일엔 엄마랑 아빠랑 치킨 먹으러 가요. (A4)
◦ 평일은 주로 친구랑 같이 놀고, 문제집 사서 풀고, 주말에는 아빠 엄마랑 다른 도시에 가서 여행해요. (A13)
◦ 저는 평일에는 기숙사에 사니까 맨날 학교에 있어요. 수업 마치면 동아리하고, 친구들과 축구하고 … 주말에는 집에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랑 놀러 가요. (A14)
◦ 평일은 학교 다니고. 월, 수, 금 한국어 사회복지관에서 배우고. 주말에는 요즘에는 잘 안 가지만, 입학 후 몇 주 지나고 나서 친한 애들끼리 다시 모여서 피시방이나 카페 놀러 가요. 부모님이랑은 꼭 일요일에 놀러 가요. (A11)
◦ 저는 평일에 학교 다니고, 월, 수, 금 한국어 수업 마치고 헬스장 가요. 주말에는 알바를 하든가 알바 없으면 친구들하고 놀고 부모님과도 가끔 놀고. (A17)

❍ 어른의 보살핌 없이 아이들끼리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도 있음. 실질적 한부모 가정, 부모 모두 쉬는 날 없이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엄마가 깨워주든 알람으로 일어나든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 혼자 준비해 학교에 가고, 돌아와서 부모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음. 초등학생들은 집에서 자거나, 핸드폰 하거나, 청소하거나, 밖에 나가서 놀거나 하고, 고등학생은 친구를 만나거나 아르바이트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함

❍ 이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편이고, 동네에 머무는 시간이 길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부모의 출근 시간이 아이들 등교 시간보다 빨라, 아이들은 아침 식사를 못 하고 학교에 감. 저녁 식사를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아이도 있지만, A6와 A8은 엄마가 주는 카드로 아래층에 있는 식당에서 혼자 사 먹거나, 엄마가 배달시켜 주는 햄버거 또는 자기들이 해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먹는 것으로 나타남

◦ 아침 7시에 엄마가 저 깨워주고 출근하세요. 학교 다녀와서 혼자 있을 때는 핸드폰 (러시아 콘텐츠) 보거나, 청소하거나, 자요. 저녁은 보통 엄마가 카드를 두고 가면 자기가 집 아래 있는 러시아 식당에서 혼자 사 먹어요. (A6)

◦ 엄마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니까, 저는 알람으로 일어나요. 아침 안 먹고 학교 가고 저녁은 엄마가 6시쯤 오시면 같이 먹어요. … 주말엔 (외국인) 친구랑 상남동 놀러 가고, 일요일은 그냥 집에서 자요. (A7)

◦ 저 혼자서 일어나서 아침 안 먹고 학교 가요. 학교 마치고 역도부에 가서 운동하고 방과 후 갔다가 집에 와요. 부모님은 보통 밤 10시에 오시는데, 저녁은 엄마가 주로 햄버거 시켜주고, 아니면 라면 먹어요. … 주말에도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일요일만 쉬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놀아요. (러시아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거나, 산에서 자전거 타요. 한국애들은 위험하다고 안 해요. (A8)

◦ 평일에 학교 마치면 엄마 집에 가서 엄마랑 저녁 먹고, 새아빠 집으로 가요. … 창원에 놀러도 오고, 아르바이트도 가끔 해요. … 주말에는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들 만나러 서울 가거나, 사촌들 보러 부산 가요. (A12)

❍ 부모가 식당, 가게 등 자영업을 하는 아이들은 동네에 머무는 시간이 많음. A2와 A3는 사촌지간으로 학교를 마치면 할아버지 가게로 하교하는데, A3의 엄마는 할아버지 가게에서 함께 일함. 아이들은 가족들이 운영하는 가게로 하교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숙제도 하고 근처 놀이터에서 놀다가 가게가 바쁘면 심부름이나 서빙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A15의 부모님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업종인 탓에 A15는 주로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집에서 핸드폰만 한다고 답함

◦ 학교 끝나고 할아버지 가게에 가서 밥 먹고 놀이터 가요. 놀이터 가면 (러시아) 친구들 만나서 러시아말로 얘기하고 놀아요. … 주말에는 할아버지나 (사촌) 누나랑 놀이터도 가고 놀아요. … 엄마랑 아빠가 쉬는 날이 없어요. (A2)
◦ 학교 갔다 할아버지 가게로 가서 밥 먹고 조금 놀이터에서 놀고. 나중에 엄마 가게 가서 도와줘요. … 엄마 아빠가 월요일에 쉬어서, 월요일에 가끔 외식하거나 해요. (A3)
◦ 주말에는 계속 그냥 핸드폰 봐요. (A15)

(4) 학교

□ 미취학 시기에 온 아이들은 어린이집-초등학교 입학

○ 미취학 시기에 한국에 온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기초적인 한국어 감각을 익힌다고 이해할 수 있음. 취학통지서를 받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학교에 한국어 학급 유무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

○ A11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학교에 한국어 학급이 있었음. 학교생활을 하면서 한국어가 익숙해졌어도,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다고 회상함

- 외국인인 자신이 한국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색하고, 말을 틀릴까봐 부끄러웠다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학교의 분위기가 실수해도 계속 한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고 독려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외국인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문화가 팽배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A11은 3학년에 외국인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작은 학교로 전학했을 때, 한국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함. 이때는 더 이상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음. 학교에 적응하고 친한 친구를 사귀게 된 계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A11의 이야기 맥락상 작은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의 편견 없는 포용력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 저는 유치원 때 와서 1학년 입학하면서 중1까지 왔어요. … 옛날 학교에서 2학년 때까지 외국인 친구들이랑 친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해 보니까 거기에 외국인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랑 친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외국인이랑 좀 다른 느낌이라서. 제가 말 거는 것도 뭔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작은 학교였는데, 거기 애들은 이미 다 친한 사이고, 저만 전학생이라 되게 낯설었고. 애들이 다행히 저를 잘 돌봐줬고 어쩌다 보니까 되게 친한 친구들도 사귀었고, 되게 잘 지냈어요. (A11)

□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학교 편입학

❍ 아이들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필수적인 서류 작업을 마치면 바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남. 흥미로운 점은 본국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들어오는 아이들의 입국 시기인데, 아이들은 본국에서 다니던 학교 즉,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베트남과 러시아권 학교들은 우리와 달리 9월 학기 시작이라 아이들은 본국에서 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지만, 한국에서는 학년 중간인 2학기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

◦ 처음에 왔을 때 여기는 여름방학이라서 두 달 뒤에 입학했어요. 베트남에서 초등학교 졸업[10]하고 왔고,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들어갔어요. (A10)

◦ 2022년 4월에 한국 와서 여름방학 15일 전인 6월에 입학했어요.[11] (A15)

◦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들어왔어요.[12]. 한국 와서 3일 지나고 나서 바로 학교에 갔어요. (A17)

10) 베트남 학제는 총 12년으로 초등교육 5년(만6세~10세), 중학교 4년(만11세~14세), 고등학교 3(만15세~17세)으로 구성됨. 초등학교 5년과 중학교 4년을 합한 총 9년이 의무교육 기간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입학시험을 치름. 한편, 베트남의 새 학기는 9월 초에 시작함

11) 태국은 2학기 제로 1학기는 5월 중순에 시작해 9월 말에 끝나고, 2학기는 11월 초에 시작해 2월 말에 끝남

12) 러시아 학제는 총 11년으로 초등교육 4년, 중학교 5년, 고등학교 2년으로 구성됨. 초등학교 4년과 중등 5년을 합한 9년이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함. 9년을 마친 후에는 고등학교 2년 과정을 더 다니거나, '콜리지'라고 부르는 전문학교(직업기술학교)로 진학할 수 있음. 대부분 학생은 초·중·고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쉬콜라'라는 한 학교에서 11년 교육을 받음. 고등학교 11학년을 마치면 대학 진학을 위한 통일국가시험(EGE)를 치름. 한편, 러시아권의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보통 만 6세 또는 7세이고, 새 학기는 9월 초에 시작함

□ 한국어를 잘 몰라 학교에 바로 편입학하지 않음

○ 처음부터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도 있음. 러시아에서 온 A16은 본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왔음. A16을 지원하는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에 A16과 부모는 고등학교 진학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함.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일하기 어렵다는 센터 관계자의 설득으로 편입학을 알아봤는데,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탓에 경남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 편입학을 배정하자 동생들과 공부하는 것이 싫다며 편입학을 보류함

◦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한국어가 잘 안돼서 중학교부터 다니라고 해서 집에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고등학교부터 가려고요. 어린애들이랑 공부하기 싫어요. 불편해요. … 지금은 엄마랑 센터에서 월, 화, 목, 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여기서 자료 가져가는 것들 집에서 숙제하고, 동네 걸으면서 운동해요. (A16)

○ 본 조사에 통역으로 참여한 K는 러시아권에서 온 이주민 가운데 아이가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다고 언급함. 즉, 취학통지서를 받고 입학해야 하는 아이들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저는 거제에서 한국어 전혀 모르는 우즈벡 사람들에게 한국어 기초 가르쳐주는데 20명이 넘어요. 그분들이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엄마들 보면 초등학생 나이 되는 아인데 학교를 안 보내고 있어요. 보내면 한국말도 모르고 뭐 이러면서 그냥 몇 년째. 제가 직접 발굴한 케이스인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거의 초등학교 한 2~3학년 된 아인데 학교를 안 다녀요. 가면 한국말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냥 집에서 키워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특히 F4, 와이프는 F1인 가족."

□ 한국 친구보다는 외국 친구들과 주로 또래 관계 형성

○ 상술한 A11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한국에서 친구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음. 개인의 기질 영향도 있으나, 주로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아이들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다른 지역이나 고향으로 이주하는 경우 친구 관계의 단절을 경험함

❍ A9은 학급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도 있지만,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 다가가기를 망설이고 있음. 한편, 학급 친구들은 A9이 한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A9 앞에서 A9의 험담을 했고, 이는 A9이 한국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처가 됨

❍ 한국에 10대 중반에 온 아이들은 외국인 친구들과 주로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본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신 기술 기반의 다양한 채널로 초국적 또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흥미로운 점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채팅 앱인데, 아이들은 카카오톡보다는 출신 국가에 따라 위챗, 텔레그램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학교 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친구는 많지 않아요. 한국 친구 2명 있어요. 원래 친구가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 못 만나고, 다른 친구는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어요. (A2)

◦ 한국 친구들도 학교에서 만나면 이야기하는데, 카카오톡 지금 비밀번호 잊어버려서 못 들어가요. (A6)

◦ 외국 친구들 한국 친구들 다 친한데, 그래도 주말에는 외국 친구들이랑 놀아요. (A7)

◦ 제가 한국말 잘 안 해서 학교에서 친구 별로 없어요. 얘기하기는 하는데 친구 아니에요. 친구는 속마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친해지고 싶은 친구도 있는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친구 없어요. …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한국말 모른다고 생각해서, 제 앞에서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요.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A9)

◦ 학교에는 친구 없어요. (A12)

◦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위챗으로 수시로 이야기해요. … 학교에서도 한국 친구들이랑 마음 터놓고 지내지만, 아직 언어가 안 돼서 속마음을 정확하게 표현 못 할 때가 많아요. (A13)

❍ 연구자는 아이들에게 기본 인적 정보를 조사할 때, 주로 어울리는 친구 5명을 함께 조사했는데, 주로 어울리는 친구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제한을 두지 말라고 설명함

❍ 조사 결과, 17명 중 A3, A8, A11, A15 4명만이 한국인을 1순위에 적었고, A2, A9, A16은 5명을 다 적지 못했음. A11은 5명 모두 한국인 친구 이름을 적었고, 보통 5명 중 1~2명의 한국인 친구 이름을 적었으나, A6, A7, A9, A18 4명은 5명 모두 혹은 적어낸 인원이 모두 외국 친구인 경우도 있음

□ 선생님과의 관계는 만족함

○ 아이들은 한국에서 만난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다고 말함. 선생님이 외국인 학생들을 방과 후에 남겨서 뒤처진 공부를 봐준다거나, 힘든 일은 없는지 자주 물어봐 주는 등 관심을 주시는 것이 좋다고 언급함

○ 아이들은 본국에서 경험한 학교 교사들과 한국의 선생님을 비교해 한국 선생님들이 훨씬 다정하고 잘 가르쳐 준다고 인식하고 있음. 중국, 태국, 러시아권 학교 교사는 엄격한 편이라고, 태국은 아직 체벌이 가능한 나라라 아이들은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생님 너무 착해요. 언제는 러시아 애들 남겨서 수학이나 아니면 사회 공부시켜 주세요. … 체육 선생님이 체육 수업하다가 저한테 역도 해 보지 않겠냐고 추천해 줬어요. (A8)
◦ 선생님이 엄청 잘 해주세요. (저한테) 자주 이야기하고, 물어보는데, 아직 말을 못 해서 어색해요. (A10)
◦ 중국에서보다 한국 학교 선생님이 더 친근하다고 느껴요. (A13)
◦ 한국 학교 우즈베키스탄보다 좋아요. 선생님도 더 좋고, 학교 시설도 더 좋아요. … 동아리에서 저 호른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라 추천해 주셨어요. (A14)
◦ 한국은 공립 학교인데 태국보다 훨씬 좋아요. 선생님도 많이 혼내지 않아서 좋아요. 또, 상담하는 거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먼저 물어봐 주고. 한국 학교 프로그램은 더 많이 학생 도와줘요. (A15)

□ 교과 한국어 부족, 국가 간 교육 방식의 차이로 교과 공부의 어려움

○ 아이들은 기초학력 과목에 해당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어려워함. 주요 원인은 교과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으로 수업 내용을 이해 못 하고, 수업 시간에 필기 속도를 못 따라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부모들은 영어와 수학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음. 먼저, 한국어로 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풀이하지 못함. 수학의 경우 풀이 방법도 본국에서는 답만 구하면 됐지만, 한국에서는 답을 도출하는 풀이 과정을 적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함

○ 사회 과목은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더욱 내용 이해가 어렵다고 답함. 아울러, 교과 한국어에는 추상적인 단어, 한자어 등이 많아 아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A11은 자신이 한국어 학급에서 한국어를 배우느라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과정에서 기초연산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그것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영향이 있다고 언급함

◦ 친구가 도와주지만, 제가 외국인이라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A15)
◦ 수학이 어려워요. 한국 수학이랑 카자흐스탄 수학이 다 달라요. 카자흐스탄 수학은 빨리빨리 하는데, 한국 수학은 푸는 방법을 다 써야 하니까. … 사회랑 쓰기도 어려워요. (A6)
◦ 국어, 수학, 사회가 제일 어려워요. 사회는 수업 시간에 무슨 내용인지 아예 못 알아듣거든요. (A7)
◦ 체육이 제일 좋고, 국어는 제일 싫고, 사회는 너무 어려워요. 사회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 공부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이제 관심이 없어요. (A8)
◦ 학교 공부는 다 어려워서 … 안 해요. 영어 공부가 어려워요. (A10)
◦ 한국어 때문에 수업을 이해 못해요. (A13)

◦ 아직 좀. (초등학교) 2학년에는 살짝 곱하기랑 나누기 기초 이거 배웠는데, 그거를 못 하면 중학교나 올라가는 게 좀 더 어렵잖아요. 저는 곱하기는 어느 정도는 수준이 따라갔고, 나누기는 그때 (한국어 학급 수업 때문에 교과 공부를 빠져서) 안 배워서, 좀 아직 약분이나 그런 거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배워야 할 거고. 그거 좀 실력을 올려야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과학은 되게 재밌고, 국어는 괜찮고. … 수학은 어렵고, 도덕은 싫어요. 도덕은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책임전가' 같은 거가 다 한자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 수학 시간에는 풀이를 다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잖아요. 외국이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A11)
◦ 저는 음악 제일 좋아하고, 제일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 문학이에요. 음악이나 체육은 언어 실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A17)

□ 모국어 교과 공부로 학습 결손을 보완하려 노력함

❍ 한국어 때문에 학습 결손이 발생하는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모국어로 기초학력 교과목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기도 하지만, 아이들 대부분은 본국의 과외 선생님과 줌(Zoom)으로 공부하거나, 유튜브로 모국어 수업을 듣는 등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음

◦ 일단 언어상 장벽 때문에 학원 가도 많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디 가는 게 좋은지 잘

몰라요. … 한국어로 공부하는 게 지금 안되니까,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저랑 (중국) 교과서로 공부하는 선생님 있어요. (A13)

◦ 아빠가 어차피 한국말 제대로 안 되니까 태국어로라도 수학 이런 거 좀 듣고 푸는 방법이라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유튜브에서 태국어로 하는 한국어, 과학, 수학 수업 찾아주셔서 그거 들으면서 공부해요. (A15)

◦ 지금 영어랑 수학이랑 한국어 학원 세 군데 다니고 있어요. 주로 러시아 아이들이랑 필리핀 베트남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에요. (A6)

□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미래에 대한 로드맵 부재

○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막연하게 그리고 있음. 부모의 교육열 여부를 떠나 자녀보다 한국어를 못하는 부모는 한국에서 아이들의 진학과 진로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 및 지원 체계가 절실한 상황임

○ 비교적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아이들을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함

- A10은 한국어 특히 말하기가 좀처럼 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베트남에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함. 돌아갈 생각을 하므로 대학을 어디에서 갈지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본인처럼 힘들지 않게 한국으로 올 아이들에게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음

- 스포츠는 뭐든지 좋아하는 A8은 학교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우연히 시작한 역도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음. 일단은 11월에 출전하는 역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 중학교부터 부모님께 지원받으며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목표임

○ 고등학생 아이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정보, 진로에 관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지지체계 등이 부족한 아이들을 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한국에 산 지 3년 이상 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 A15, A17은 이중언어가 가능한 장점을 살려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를 희망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음

- A15는 실제로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본인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음. 또,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차선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A17 역시 본인 성적으로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혼자서 진로 탐색을 해 왔음. 음악, 영상, 운동 등을 해 봤으나, 지속할 수 없었다고 말한 A17은 사업가가 되기 위해 성공한 사업가의 발자취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함

❍ 마지막 집단은 한국에 산 지 3년 미만인 고등학생 아이들로 막연하게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한국에 온 지 1년 남짓인 A16은 대학이 가고 싶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한 막연한 상태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모르겠다고 답함
-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14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했으나, 관련한 정보는 재학 중인 학교의 한국어 학급 선생님께 의존하고 있음. 현재 학교를 선택한 이유도 입학이 쉽다는 중학교 선생님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대학 진학을 원하나 별도로 공부는 안 하고 있다고 답함

◦ 베트남에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대학을 한국에서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처럼 힘들지 않게 한국에 올 베트남 아이들 가르쳐 주고 싶어요. (A10)
◦ 올림픽에서 역도로 금메달 따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가 중학교 되면 역도 하면 안된데요. 지금은 학교에서 돈을 다 대고 있는데 중학교는 역도부가 없어서요. 그런데 아빠가 이번 11월에 열리는 역도대회에서 잘하면 중학교에서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A8)

◦ 사업가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사업하고 계시니까. … 진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좋은 대학교를 못 가면, 좋은 회사도 못 가니까. … 제가 비자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렇다고 대학을 태국으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A15)
◦ 전 사업자 되고 싶어요. 저는 러시아어도 할 수 있고 한국어 할 수 있잖아요. … 지금 배우고 있어요. 사업가 된 사람들 인터뷰하잖아요. 어디선가 그걸 듣고, 보고, 쫓고 그걸 하고 있어요. 대학은 아니에요. 사업은 사람과 소통을 잘해야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대학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A17)

◦ 대학교까지 공부하고 싶은데, 직업은 그냥 돈 벌 수 있기만 하면 돼요. (A16)
◦ 지금 학교는 들어가기 쉽다고 학교에서 말해줘서 왔어요. … 저는 졸업하고 취직하고 싶은

데, 아빠 엄마가 대학 가라고 해서 대학 가려고요. 그런데 지금 다니는 학교에는 대학 진학반 같은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별도로 공부도 안 하고 있고요. …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그거 하려면 영어 잘해야 하고 프로그램 하는 거 배워야 한다는 거 말고는 잘 몰라요. 이거 관련해서는 한국어 담임 선생님이 알려줘요. (A14)

(5) 사회·경제적 활동

□ 식당, 예식장 등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

○ 15세 이상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함. A12와 A17은 '당근'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일하면서 업주에게 차별당한 경험은 없다고 말함. 다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 일하면서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함

- A17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구인 공고에 명시된 '외국인 안됨' 문구를 확인함
- A12는 주로 방과 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했는데, 손님 응대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주문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질문했을 때, A12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함

◦ 한국식당이나 베트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했었어요. …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 급여는 친구랑 똑같이 받았어요. … 손님이 가끔 제가 외국인이라서 저한테는 주문 안 한다고 했어요. (A12)

◦ 주말에 웨딩홀에서 홀서빙했어요. 최저 임금 받고 똑같은 조건에서 일했어요. …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는데, 일자리 없어요. 외국인이라 알바 안 받아요. 당근에 알바 구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면 약간 많은 곳에 클릭하면 '카페 알바 외국인 안 됩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A17)

□ 학교와 거리에서 차별 경험

○ 아이들은 학교와 거리에서 차별 경험이 있었다고 답함. A11은 학교에서 있었던 몇 가지 상황에 관해 설명하면서 차별까지 봐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수업 시간에 본인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반복적으로 묻는다거나, 출석을 부를 때 일으켜 세워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묻는 등의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고 말함

○ 길에서 모국어로 이야기하면서 지나갈 때 한국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A17과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도 몇 있었는데,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감수성 수준을 확인하고 외국인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다문화 감수성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미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말했거든요? 분명히 말했는데, 다시 저를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는 게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 차별까지는 아닌데, 출석을 부르는데 선생님들이 다 다르잖아요. 제 이름이 가끔 영어로 나오니까, 제 이름 보고 크게 이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하시면 저는) 손들어서 한 글자씩 말해야 하니까 되게 부끄러워요. (A11)
◦ 부모님이랑 다른 지역에 여행 갔었는데,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안 좋은 말 막 했어요. (A13)
◦ 주말 밤에 여자친구랑 산책했을 때, 약간 밤이었는데 주말에 사람들이 술 많이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주변이 시끄러워서) 여자친구가 크게 웃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저희한테 러시아 말 한다고 뭐라고 했어요. 너무 뭐라고 해야 하지? 화가 났어요. (A17)

(6) 정책 수요

□ 한국어 학습 기회 확대, 교과 공부 지원, 직업 정보제공

○ 아이들은 한국어를 더 많이, 제대로 배우기를 원함. 즉, 한국어 교육 시간이 늘기를 바라고, 고등학교에 한국어 학급이 없는 아이들은 학교 외 다른 센터나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함

○ 한국어 의사소통이 자연스러웠으나 학습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는 A7은 한국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 학습 기회를 바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교과 공부에 대한 지원, 직업 정보제공 등을 희망함. 특히, 체류자격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A15는 비자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토로함

◦ 한국어 더 배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A5)
◦ 한국 애들이랑 같이 한국어 배웠으면 좋겠어요. (A7)
◦ 가족센터에서 한국어 많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영어만 더 도와줬으면 좋겠

어요. (A11)
◦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에 한국어 학급이 없어요. 센터에서만 한국어 배우고 있는데, 시간을 더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 비자 문제 좀. 아빠는 영주권이고, 엄마는 아빠 따라 밑에 하고, 저는 자식인데 F1 왜 안 되는 거냐고 … 만약 아직 F1 안된다면, 뭐 아빠가 한국에서 키울 능력 있다는 서류 이런 거 추가하면 되잖아요. (A15)
◦ 센터에서 언어 공부를 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A16)
◦ 한국말을 처음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또,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A17)

□ 상호문화 이해와 자신감 제고 지원

○ 한국어를 잘하지만, 한국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방법을 모르는 A9과 그랬던 경험이 있는 A11은 자신들이 더 잘 적응하는데 자신감을 길러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A9의 상호문화 이해 지원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자신 있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서로 생각이 잘 이해가 되어야 해요. (A9)
◦ 지금도 하는 한국어랑 한국문화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온 아이들한테도 많은 활동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로 활동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이런 직업도 있다는 그런 거도 알려주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해 볼 만한 다양한 모임 활동 같은 것도 다양하게 해 보면 적응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 생각해 보면, 자신감이 있으면 다른 것도 시도해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A11)

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부모

(1) 이주 배경

□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이주

○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한국으로 이주함. 본국에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한국행을 택한 이들은 결혼(B3)과 노동(B1, B2, B4, B5, B6)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고,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더욱 가족 초청에 대해 확신함

❍ 자녀들의 입국 전 생활은 부모의 한국행 선택 방법에 따라 다름. 엄마가 결혼으로 또는 이혼 후 생계를 위해 일하러 한국에 온 경우, 자녀는 외조부모와 함께 지냈고 엄마와는 매일 영상 통화로 소통함

❍ 가족해체를 경험하지 않고, 생계를 위해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온 경우, 자녀는 본국에서 엄마 또는 아빠와 안정적으로 지내며 방학마다 한국에 방문해 한국과 정서적·심리적 거리감을 좁혀나가기도 함

◦ 우즈베키스탄은 일자리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들이 태어난 후에 한국 갔고, 저 혼자 10년 넘게 (수학)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 키웠습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영상통화도 하고 자주 연락해서 아이들과 거리가 멀지 않아요. (B1)

◦ 키르기스스탄에서 보석 세공사로 20년간 일했는데,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H-2 비자 받아서 2018년에 한국으로 왔어요. 가족은 2023년에 초청했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매년 한 달씩 한국에 여행 왔었어요. (B2)

◦ 중개 센터에서 남편 만나 2019년에 결혼(재혼)하고 한국에 들어왔고, 애들은 외할머니하고 좀 지냈어요. 애들이랑 떨어져 있는 동안 매일 전화로 챙겼죠. (B3)

◦ 코로나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돈 벌기 위해 처음에 딸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서류에 문제가 생겨서 애들은 남편이랑 키르기스스탄에 있고 저 혼자 왔어요. (B4)

◦ 2018년에 이혼하고 아이들 키워야 하니까 친정 부모님께 아이들 맡겨두고 돈 벌려고 나왔어요. 1년마다 한 번씩 가서 아이들 만났는데, 이번엔 딸이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B5)

◦ 결혼하자마자 남편이랑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돼서 러시아에서 아기를 먼저 낳고 남편이 한국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살아보더니 아기 키우는게 여기가 더 낫다고 무조건 와야 한다고 해서 왔어요. (B6)

☐ 한국으로의 이주를 자녀 스스로 선택할 기회와 한국어 공부 기회 제공

❍ 부모들은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비자가 준비되면, 자녀가 조금이라도 미리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에 보내거나, 한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센터, 개인 과외 등을 시켜 본국에서 최대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짐

❍ 한국어 준비 외에도, 자녀 스스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할 수 있게끔, 대화를 많이 하거나(B3), 매년 한국에 놀러 오도록 해 친근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진 가정(B2, B4)도 있음. 이런 가정은 자녀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언어가 부족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하고 적응한 것으로 나타남

◦ 아이들이 한국어 배울 수 있게 1년 정도 학원도 보내고 노력 많이 했어요. (B1)
◦ 4년 동안 계속 놀러 왔으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살고 싶다고 했어요. …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대사관에서 한국어 교육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아들이 한국에 오기 전 두 달 정도 기초 한국어 공부했어요. (B2)
◦ 한국 오기 전 베트남에서 온라인으로 한국어 공부시켰었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려고 대화도 많이 했어요. (B3)
◦ 방학마다 한국에 구경하러 나왔고, 2022년에 딸이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B4)

(2) 자녀 돌봄·교육

□ 자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

❍ 면접 참여자 가정은 모두 주중에는 주로 엄마가 자녀를 돌보고, 주말에는 가족이 시내나 교외로 여행을 다니면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 동포의 배우자(F-1),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F-3) 비자를 가진 이들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없어서 가정과 자녀 돌봄을 전담하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좀 큰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유학 비자로 변경해 일자리를 찾는 사례도 있음

❍ 집에서는 주로 출신국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있음. 부모는 자녀에게 모국어를 별도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모국어로 대화하고, 유튜브로 모국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모국의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서 생활함

❍ 한편, 국제결혼 가정은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음. 자녀가 한국어를 빨리 배우게 하려고 간단한 내용은 엄마와도 한국어로 이야기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깊어지면 모국어로 이야기하는데, 한국인 아버지가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엄마가 설명해 준다 해도 엄마의 한국어 실력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집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생활 양식으로 살고 있어요. 주말엔 아이들과 진해에 낚시하러 자주 가고요. (B1)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전반적으로 힘들었긴 했지만,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평일은 일 때문에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내지만, 주말에는 무조건 놀러 나갑니다. 일요일엔 아들이랑 2시간씩 농구 훈련하고, 가끔 야간 근무를 할 때는 학교 상담이나 행사에도 참석해요. (B2)
◦ 주중에는 학교 다녀와서 집에서 밥 먹고, 공부하고, 저하고 시간 보내고, 주말에는 아빠랑

다 같이 여행 다녀요. 한국에는 제주도 빼고 전부 다 가봤어요. … 집에서 저랑 아이는 베트남어로 이야기하고, 남편한테 한국어로 전달해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 하니 남편이 답답해해요. (B3)

◦ 평일에는 퇴근하고 와서 아이랑 밥해 먹고, 대화하고, 자기 전에 서명해야 할 거 있으면 하고 뭐 그렇게 보내요. 주말에는 딸은 가족센터 가거나 친구들이랑 상남동 나가서 놀고, 저는 일요일마다 마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창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가서 한국어 배워요. 친척들이 창원에 있어서 주말에 자주 놀러도 다녀요. (B4)

□ 외국인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로 입학·전학

❍ 면접 참여자들은 한국어가 부족해도 자녀가 학교에 빨리 입학하는 것이 한국 적응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자마자 학교를 알아보고 입학시킴

❍ 공공기관에서도 외국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소개해줘서 학교를 찾기도 쉬웠고, 소개받은 학교 역시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아 친구도 많고, 시스템도 갖춰있고, 선생님들도 케어를 잘 해줘서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고 다님

❍ 다만, 외국인 학생이 거의 없는 집 근처 학교에 입학시켰던 B3의 자녀는 교사로부터의 적절한 케어, 동급생으로부터의 환대 등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다가 결국 집에서는 비교적 멀지만, 외국인 학생이 많은 학교로 전학함

◦ 아이들 학교 찾는 거랑 입학하는 거는 너무 쉬웠어요. 주민센터에서 이 학교를 추천해줬는데, 다른 외국인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기 좋을 거라고 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학교에 러시아 선생님도 있고, 담임 선생님도 케어를 잘 해줘서 아이들이 빨리 적응해서 좋았습니다. (B1)

◦ 아이들이 2023년 1월에 들어와서 큰 애는 3월에 초등학교 바로 가고, 작은 애는 2월에 유치원 바로 보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빨리 적응하고, 말도 빨리 배우고, 친구도 빨리 만들었어요. (B2)

◦ 처음에 집 근처 학교 보냈는데, 외국 아이들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무도 우리 애한테 말을 안 걸고 없는 사람 취급해서 힘들었고, 전학했어요. (B3)

□ 한부모 외국인주민의 자녀 돌봄 어려움

❍ 한부모 외국인주민는 자녀 돌봄 문제를 가장 어려워함. 한국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된 공공서비스 정보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았음

- B4는 창원에 친척들이 있어, 돌봄 및 교육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받는

상황이지만,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토로함

- B5는 한국에 7년 정도 살았지만, 자녀를 데려온 지 한 달이 안 되는 상태로 도움이 절실하나 자녀와 관련된 지원 정보가 뭐가 있고, 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본인이 해당하는지 등을 전혀 몰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였음

◦ 아이가 아플 때 가장 어려워요. 언어도 안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일도 쉬어야 하고 걱정스러워요. (B4)
◦ 돌봄 문제랑 학원, 또 제가 한부모라 일을 하러 가고 나면 집에 애가 혼자 있으니까 … 제가 2시간마다 휴식하는데 그때마다 전화하고, 딸도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해요. (B5)

□ 가장 어려운 문제, 한국어 그리고 교과 공부

○ 자녀 교육에서 꼽은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단연 한국어였으나, 면접 참여자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한국어 고민 양상에 차이가 있음

○ 자녀가 한국어 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B1, B2, B3),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교과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바라지만, 한국어 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B5, B6), 한국어 수업을 2년 정도 집중적으로 받을 기회가 생기길 바라고 있음

◦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가 다른 아이들보다 한 1~2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B1)
◦ 제일 어려운 문제는 언어예요. 다른 공부보다도 언어만 걱정합니다. (B3)
◦ 한국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국어 수업을 좀 해야 한다고 하세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부끄러워서인지 이해를 못 해서인지 대답을 잘 안 한다고. … 제일 어려운 과목은 수학이에요. 한국 수학은 러시아에서 가르치는 방식과 아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 아이의 진학에 대해서도 아예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B4)
◦ 학교 입학 때문에 집 앞 학교에 갔는데, 한국어 교실이 없는 곳이라 … 한국말을 모르는데 학교 가서 차별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B5)
◦ 한국어죠.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일주일에 두 번 하는 한국어 교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많아서 저희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나머지 시간은 교실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애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를 못하고 … 친구들도 못 사귀고 … 선생님은 아이가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선생님께 케어를 못

받는 느낌이에요. (B6)

□ 학교 내외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및 교과 학습 기회에 적극적 참여

○ 학교에서 지원하는 방과 후 수업은 물론이고 가족센터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인생네컷'에 참여시키는 등 한국어를 배울 기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시킴. 이 외에는 줌(Zoom)으로 모국의 한국어 선생님과 모국어로 한국어 과외를 시키기도 함

○ 생활 한국어가 가능한 정도의 아이들은 학교 방과 후 수업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시민단체의 후원을 받아 한국어 외에도 수학, 영어 등 교과 공부를 하고 있음

◦ 학습 지원비(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원)를 받고 있어요. 그걸로 학원 세 군데(수학, 영어, 국어) 정도 보내고 있고, 숙제도 거기서 다 해요. 또, 아이들이 가족센터(인생네컷)에서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B1)
◦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데(방과 후 수업)는 다 다니고 있어요. (B2)
◦ 가족센터에서 한국어(인생네컷) 배우고 있고, 줌으로 베트남 선생님과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베트남 선생님이 베트남어로 설명해 주니까 애가 이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서요. (B3)
◦ 한국어랑 수학은 학교 방과 후 수업 보내고 있고, 영어는 인터넷 수업 들어요. (B4)

□ 자녀 보육·교육 어려움에 대한 대응 어려움, 경제력과 정보력 부족

○ 체류 신분상 외국인 주민은 주로 홀벌이 가정이 많아, 부모 대부분은 아이들의 부족한 한국어와 교과 공부 지원을 위한 사교육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 공공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커서 못 시키고 있어요. (B2)
◦ 아이가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말하는데, 남편만 일하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보내기가 어려워요. (B6)

○ 부모들은 한국어를 못하다 보니, 학교 소식, 진학 정보, 학원 정보 등 자녀를 키우면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성이 매우 낮음

- 중학교까지는 학교 소식을 알 수 있는 별도의 앱이 있고, 앱 내 번역 기능이 있어 학교가 제공하는 소식을 알 수 있지만, 앱 내 번역 기능의 정

확도가 낮아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움

- 자녀가 고등학생이거나 그 외의 학교 소식은 자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데, 자녀가 학교 전달 소식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알 수가 없음

❍ 이들은 주로 자녀나 직장 동료, 인터넷의 이주민 커뮤니티, 가족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 담당자 등에게 들어서 정보를 얻고 있음

- 센터 담당자에게 물어서 정보를 얻는 사례(B3, B4)는 양호한 편으로 나머지 면접 참여자는 센터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자녀에게 정보를 의지하는 경우는 부모-자녀 간 역할 역전이 발생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직장 동료 및 인터넷 이주민 커뮤니티에서 얻는 정보는 정확성이 낮을 가능성이 큼

◦ 학원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 여러 곳 신청했는데, 외국인이라 거절 당해서 좀 힘들었어요. 교육 정보는 가족센터에 많이 물어봐요. 학교 소식은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아이들이 중요한 거 있으면 알려줘요. (B1)

◦ 한국어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거나, 학교에서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해요. (B2)

◦ 정보 찾는건 어려워요. 남편도 일단은 아직 어리고 한국말을 못하니까 2~3년 뒤에 알아보자고 하고 …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주로 얻어요. (B3)

◦ 들은 거 있으면 아는데, 그 외에는 잘 몰라요. 필요한 건 마산 센터나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B4)

◦ 제가 돌봄 서비스 대상이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B5)

◦ 애가 숙제 받으면, 아이도 이해 안 되지만, 엄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번역기 보면 아이가 한 숙제랑 선생님이 주신 숙제랑 아예 다르고. 아이도 뭘 해야 할지 알림장에 적은 거는 이해가 안 되고 (B6)

(3) 자녀의 미래

□ 자녀의 꿈

❍ 면접 참여자의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비교적 구체적인 꿈을 꾸고 그것을 부모와 공유하고 있고, 청소년기 자녀들은 본인의 진로를 설계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첫째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선택한 고등학교를 보냈고, 대학교까지 옆에서 도와줄 생각입니다. 둘째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B1)
◦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해서, 한국어 어떻게든 빨리 배울 수 있게 집중하고 있어요. (B3)
◦ 과학 쪽에 관심이 많고, 과학자가 되고 싶대요. (B6)

□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체류 상태 관련 정보 부족

○ 면접 참여자들은 자녀의 진로 지원에 대한 마음이 크나, 자녀가 한국에서 그 꿈을 지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 안정적 체류자격 준비는 부족한 편임
- B1은 여건이 안 되는 사례로 남편이 영주권(F-5)을 취득할 자격은 되나, 남편의 한국어 역량이 영주권 취득 요건인 시험을 통과할 만큼이 안되어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곧 성인이 될 자녀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서 당장 걱정하지는 않고 있음
- 고려인 동포와 그의 배우자는 자녀를 언제쯤 동포 비자(F-4)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름

○ 한편, B3는 자녀가 한국에서 끝내 적응하지 못할 것을 대비한 차선책으로 자녀가 한국과 베트남 가운데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사는 데 법적 제한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음
- 자녀가 베트남 국적을 유지하는 한편, 한국에서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데, 친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녀는 한국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음

◦ 남편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시험을 쳐야 하는데, 남편은 일밖에 안 하니까 한국어 배울 시간이 따로 없어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B1)
◦ 저는 제가 국적 따서 아이한테 F-5 해 줄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든 베트남에서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몰라서 다 베트남 국적 버려서, 한국에 적응 못 해도 베트남도 못 가게 되고 했거든요. (B3)
◦ 대학생이 되려면 D-2를 받는지 F-4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B4)
◦ 잘 모르겠어요. 언제쯤 F-4로 바뀌는지. (B5)
◦ 아이들이 언제쯤 F-4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B6)

□ 부모의 원함은 자녀가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 부모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한국 아이들만큼 한국어를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여 여느 한국인과 다르지 않게 살아

가는 것을 희망함. 가족의 안정적 체류 환경은 이를 위한 선행 조건 중 하나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함

◦ 아이들이 한국말이 완벽하게 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거에요. 저희도 연금이 나올 때까지 일하면서 여기 있고 싶어요. 만약 엄마 아빠가 비자 연장이 안되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도 아이들이 여기서 좋은 대학 가는 모습 보고 싶어요. (B1)
◦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여기서 학교를 다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서 영주권(F-5) 취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B2)
◦ 2~3년 한국어를 공부해도 안되면, 애를 다시 베트남에 보내서 어린이집 선생님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 국적 취득 안하고 있어요. (B3)
◦ 한국말을 좀 빨리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외에서라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친구도 빨리 사귀고, 적응도 빨리 되고 할 수 있으니까. (B5)

(4) 정책 수요

□ 한국어 교육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강화

○ 한국어 교육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확대되길 희망함

- B6가 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없음. 2025년에 한 학급이 운영되기 시작했으나, B6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한국어 학급에 대한 절실함이 더욱 컸음. 한국어 방문지도, 학습비 지원 사업도 해당 지역에서는 고려인 동포인 B6의 자녀가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별 공공서비스 편차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B3, B4는 본인들이 한국어도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녀에게 한국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려주길 희망하고 있고, 자녀의 진로, 진학 관련 상담 역시 지원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음

◦ 이런 센터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해서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게 한국 선생님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B3)
◦ 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야 하는데, 나라에서 지원이라든지, 외국인 아이가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 센터에서 이렇게 아이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진로 선택하게 끔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B4)

◦ 아이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한국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이면 고등학교 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숙제라든지, 오늘 배운 과정 복습이라든지 봐주는 방문 수업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B6)

□ 외국인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 외국인 주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언어장벽의 문제도 있지만, 한국 사회 시스템을 몰라서이기도 함. B2는 한국어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정보 접근 방법을 모르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는 외국인 주민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하거나, 개인정보를 활용해 다국어 문자 서비스를 희망함

◦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새로운 법이나 프로그램이 생기면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B2)

3) 현장 전문가

(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특성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한국이라는 낯선 사회에 적응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함. 이들의 특성은 이들의 심리·정서적 적응, 언어 적응, 사회적 적응 등의 문화접변(acculturation) 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데, 입국 시 아이들의 나이, 입국 계기, 아이들의 가족 구조와 가족관계, 거주지역의 근린 환경, 지방정부 이민정책 기조 등에 따라 상태는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남

○ 본 장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부모에 이어 최소 10년 이상 외국인 주민의 경남 정착과 적응을 현장에서 지원한 전문가로 초점 집단으로 구성하고, 진행한 면접 결과를 분석함

○ 이들은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고려인 동포 등 성인 이민자를 지원하다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수요가 커짐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구체적인 지원 경험에 비추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음

가. 심리·정서적 특성

□ 부모의 이주 배경에 따른 자녀의 심리·정서적 상태 양극화

○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발달 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문화접변 과정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생활환경은 특히 중요한 요인임

○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아이들의 삶은 부모의 이주 경로에 따라 매우 다른 생활환경에 놓여있음. 전문가들은 부모의 한국 입국 수단이 '노동'인지, '결혼'인지에 따라 아이가 처하는 생활환경의 차이가 매우 큰데, 이는 아이의 심리·정서적 적응 수준 차이에 주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중론을 모음

- 부/모가 '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동포의 자녀는 대체로 부모를 비롯한 일가친척까지도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심리·정서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

◦ 중도입국 아이들과 이주배경의 친구들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주 배경 친구들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C5)

◦ 외국인 자녀, 동포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부모들과 가족 단위로 넘어와서, 삼촌, 이모, 고모 가족들이 같이 넘어오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가족이나 지인과 같은 어떤 지지(체계)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서적으로는 사실 어쨌든 안정이 돼 있어요. (C3)

◦ 가정에 따라서 개인차가 되게 큰데, 우리 동포들 자녀하고 동포가 아닌 자녀하고는 일단 다른 것 같아요. 동포들은 엄마 아빠 다 한국계라든지 그 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이 그대로 오거든요. 근데 중도입국자녀들은 엄마와 국적부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다문화가정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 두 사람이 다 또는 한 사람이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원래는 외국인인 거예요. (C6)

- 부/모가 '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경우 아이는 원가족 해체, 부모와의 이별, 양부/양모와의 가족 형성 등 일련의 사건 속에서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이주와 문화접변을 경험하고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

○ 전문가들은 재혼 다문화가정의 국외 출생 자녀, 국내 출생 자녀지만 순환이주를 경험한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애착, 신뢰 등이 없고 분노, 우울, 위축 등의 부정적인 심리·정서적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함

◦ 재혼 가정이나, 또 갔다가 중간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더 불안정하고. (C3)
◦ 재혼 가정에 오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분노가 많이 있어요. (C6)
◦ 지금 대부분 입양으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 국적이 있는 이주 여성인데 재혼했어요. 그럼, 엄마가 베트남 사람 아빠도 베트남 사람인데, 이 베트남 아빠가 한국 국적 취득하고 또 이혼하고 다른 베트남 여자랑 재혼하고 애를 데려와요. …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C4)
◦ 베트남 (출신) 자녀한테 그런 위축들이 되게 많고. 엄마와도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새 아빠를 만나서 한국에 왔는데, 언어는 안되고, 엄마도 돌봄이 없고. … 학교에 가면 학습 욕구는 있는데, 한국어가 너무 안되니까. 또 집에 가면 환경이 한국어를 쓰거나 엄마가 시간을 할애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면 또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거기서 오는 우울감, 위축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 본국에 가고 싶은 거죠. 한국에 살기 싫은 거죠. (C5)
◦ 부모라기보다는 이제 보호자. 왔는데 이제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부모들하고의 소원함. 관계성이 당연히 없겠죠. 7~8년 뭐 길게는 10년 떨어져 살다가 갑자기 탁 왔는데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응을 겪죠. 이런 가정 아이들이 가정폭력, 성 문제 뭐 이런 학대 등등 같은 문제를 가진 가능성도 꽤 있어요. (C2)

□ 부정적인 심리·정서적 상태로 인한 문제행동

○ 아동·청소년기는 아이가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감, 자아정체성, 독립심, 과업 수행 능력 등의 내적 자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이는 학업 성과와 행동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Eccles, 1999). 아이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심리·정서적 상태는 청소년기의 우울증, 학교 중퇴, 절도, 주류/약물 소비, 분노, 자살 등의 행동 문제에 영향을 주고, 성인기 삶의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침(Birmaher et al., 1996; Eccles, 1999)

○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물리적, 정서적 단절로 긍정적 내적 자원 형성이 지연되는 일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행동 발달과 학업 성과 등에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큼

- 실제로,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던 아이가 저지른 '절도'에 대한 아이 엄마의 반응은 매우 부적절했는데, 아이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거나 더 근본적으로 아이의 마음을 회복시킬 기회로 삼지도 못함

◦ 이 아이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왔는데, 엄마는 그걸 받아주지 않고, 다른 한국 사람과 사

실혼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이가 도벽이 심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자잘한 거 훔치다가 나중에 단위가 높아지고, 경찰에 계속 신고되고 경찰로 넘어가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애를 때렸던 것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어요. … 근데 애가 F 비자다 보니까 시설에서 안 받아줘서 단기 시설로 보내 비자 연장했는데, 엄마가 비자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C3)

나. 가족 특성

☐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독립 요구

❍ 일부 부모는 입국 초기의 자녀에게 앞으로 한국에서 살기 위해 익혀야 할 언어와 문화, 학력, 적절한 직업능력을 습득할 교육 기회를 주지 않고, 아이들이 바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바라기도 함

- 아이와 장기간 분리되어 있다가 청소년기 자녀를 데려온 이주여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가정에서 이와 같은 태도가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녀는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취약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함

◦ 부모님들이 공부시켜서 뭔가 애가 성장하고 하는 걸 바라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개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거는 이주 배경 아이들 부모 모두 아이가 빨리 자립하길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거죠. 빨리 학교 졸업하고, 제 밥벌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C6)

◦ 부모는 아이들이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쥐여주지 않으면서, 아이가 공부하든 안 하든 별로 상관없고, 자기가 자기 밥벌이하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무면허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고. (C3)

◦ 재혼 가정인데, 엄마는 학교를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근데 한국인 새아버지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취업이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든지 공부를 하라고 하고. 엄마는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빨리 일터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C6)

◦ 엄마와 관계가 거의 단절됐었는데, 이 엄마가 애를 고등학교 때 갑자기 데려와요. 일 시키려고. 근데 입양 과정에서 우리가 도와주면서 애 고등학교 꼭 보내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애를 학교 보내요. 그런데도 엄마가 애한테 학교 수업 마치면 저녁에 일하러 가라고 하니까 애가 또 저녁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해요. (C4)

☐ 부모의 학대와 착취

❍ 엄마가 딸을 비자 장사 도구로 여기거나, 딸이 계부에게 성폭행당하고 성매매로 내몰리는 상황에도 딸과 본인의 체류자격 때문에 딸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를 접한 전문가들은 일부 재혼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대와 착취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했는데, 특히 여자아이들은 성 문제와 관련해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 재혼 가정인데, 엄마가 그 나라에서 학력이나 먹고 살기 힘든 시골에서 와서 재혼한 경우 그 자녀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아빠는 고등학교에 가야 한다고 하는데, 엄마는 갈 필요 없데요. 공장 가자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아이가 적응을 못 해서 그만뒀는데, 이 엄마가 애를 본국에 있는, 말이 사촌이라고는 해요. 그 사촌 남성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비자 장사로. (C3)

◦ 의붓아빠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빠가 또 애한테 성매매를 시킨 거예요. 이게 경찰청까지 갔던 사건인데 이 엄마하고 아이는 비자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가 진실인지 모를 지경까지 갔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쪽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진짜 위험해요. (C4)

□ 동생 돌봄과 집안일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부모가 일하는 동안 한국 아이들과 달리 집에서 동생을 돌보거나, 집안일 등을 하므로 시간이 없어 주말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에게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들의 출신국인 러시아권의 문화적 영향이라고 전문가들은 인식함

❍ 아이들은 집안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 아이들의 생활을 문화적 차이로 여기고 오히려 적응을 어려워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오히려 주말에는 뭘 해야 해요. 동생도 봐야 하고, 뭘 해야 하는 게 있어요. (C3)

◦ 일단 동포 자녀들은 자국 살 때 영향도 있다 보니, 큰 애가 동생을 돌봐야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주말이라든지, 야간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동생을 봐야 하니까. (C6)

◦ 우리 지역 사례는, 아이들이 정규 수업을 마치면 방과 후가 있는데, 그 학교에 한 60명 정도 다녀요. 그런데 방과 후는 6명 정도만 해요. 왜냐면 이 아이들 대부분이 우리 센터에 다니고, 또 이 아이들이 알바를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고모, 이모, 삼촌 자녀나 자기 동생 보는 알바를 가기도 해요. (C1)

◦ 자기들 나라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아이들이 집안 생활 뭐 이런 거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3~14살에 우리나라 왔더니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해. 죽어라 공부만 하고, 집안일은 아예 신경 안 쓰고, 라면 하나도 안 끓여 먹고 … 이런 차이에 적응을 못 해요. (C2)

□ 부모나 어른에 대한 자녀의 한국어 통역역할, 부모-자녀 역할 역전

○ 이민자 부모들이 자녀에게 비공식 통역을 의존하는 것은 꽤 보편적인 현상이나, 부모의 통역 도우미(language brokers) 역할은 자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함

○ 자녀는 통역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부모가 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거나, 아이가 몰라도 되는 또는 모를 수 있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멸시를 경험하기도 함. 이민 가정이 문화접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지만, 자녀는 불필요한 경험을 함으로써 가정 내 부모-자녀 역할이 역전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자녀의 정신적·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음(Weisskirch, 2010)

◦ 부모가 한국말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통역역할을 하는데, 이걸로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C3)

◦ 나의 진로를 지원해 주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이 부족해서 본인의 역량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두드러지는 점 아닌가 싶어요. (C7)

□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규칙, 규범, 지식, 정보 부족

○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한국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규칙, 관습을 비롯한 비자, 대학 진학, 군대 입대 등 필수 정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현장에서 경험하는 단순한 사례로는 학교나 센터에 시간 맞춰 가야 한다는 생활지도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음
-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이 있을 뿐, 대학 유형, 입학 요건, 진학 희망 학과, 졸업 후 진로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나 이해가 부족함
- 이민자가 합법적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정주하려면 정확한 비자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나, 미성년 자녀의 비자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해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함.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아이들은 입대 대상이나 부모나 당사자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음

◦ 차량 지원을 가면, 전화가 안 돼요.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보호해 주고 돌봐줄 어른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잡으러 간다든지 깨우러 가고. 사업 운영하면서 담당자로서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이 있어요. (C7)
◦ 부모와 연결된 비자는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때까지 유효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해요. … 부모들이 이런데 너무 무지하고, 아이들도 막상 닥치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 정부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 비자에 관해서 일반 학교도 모르고, NGO도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알아야 하는 이 아이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C3)
◦ 취업 관련해서도 대학만 가면 다 될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전문대하고 4년제 대학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걸 너무 모르고 있어요. (C3)
◦ 자녀가 국적을 받게 되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엔 이 아이가 군대에 가야 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 나중에 애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사색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군대 안 갈 방법이 없느냐면서. 우리가 생각해도 이 친구 군대에 가도 못 알아듣는데 싶어서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했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 이 과정에서 (신체검사-입영 통지) 부모가 네가 군대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걸 인지 못 시키고, 아이도 인지가 안 돼서 이럴 줄 알았으면 국적 취득 안 했을 텐데, 이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C3)

다. 거주지역 특성

☐ 한국 적응의 롤모델이 없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

❍ 이민자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며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 집중 거주지는 이민자가 이민 초기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정서적 지지, 경제활동 기회까지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타자의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되고 분리되는 공간이기도 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회 적응의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함

❍ 외국인 집중 거주지는 주로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면 내국인이 떠나면서 게토화되는 경향이 있음. 한국이지만 한국인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분절된 동화(segmented assimilation)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요 원인은 아이들이 주변에 언어와 문화, 관습을 모방해서 배울 롤모델이 없다는 것임

❍ 이 아이들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딱히 없고, 한국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생각해 볼 기회가 없어, 한국어를 배우겠다거나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그중에는 출신국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은 아이들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도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는 또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는 경우가 생기기도 함

❍ 결론적으로 거주 환경 특성상 한국에서 더 나은 생활과 삶에 대한 롤모델 설정이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를 관두고 주변 어른들처럼 한국 사회와 분리되어 갈 가능성이 있음

◦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그냥 3년 다니면서 대부분은 졸업하면 엄마 아빠 다니는 곳에 취업하거나 해요. 그러니까 이제 꼭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C4)

◦ 양산에서 이 아이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은 방값이 싼 원룸 빌라촌이나 작은 공단지역이에요. (거기서) 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늘 보는 게 그냥 어른들 일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도 일을 해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공부가 다가 아니고, 일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어서, 거기 ○○중학교 나온 아이들은 (고등) 학교에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C3)

◦ 김해에는 고려인들이 집성촌이 있어요. 특이하게도 거기 사는 아이들은 언어를 굳이 한국어를 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없고 …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 아이들 한 40%가 고등학교 진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고등학교 다니더라도 중도에 관두는 경우가 있고. (C1)

◦ 고려인들은 한국어가 전혀 안 돼서 그렇지, 학력이 높아요. 막상 한국에 오니 할 게 없으니까 단기직, 일용직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은 거기에 대한 좌절감이 있는데, 자녀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해 본들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더라. 내가 열심히 해도 한국 아이들 못 따라가더라. (C1)

라. 언어 적응 특성

□ 한국어를 빠르게 배우나, 교과 공부를 할 수준은 아님

❍ 언어 학습 및 활용 능력은 나이와 반비례함. 나이가 어릴수록 언어 학습 능력이 빠른데,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한국에 온 아이는 3년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언어를 흡수하면서 생활에 적응한다고 인식함

❍ 특히, 학교에 한국어 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언어 교사가 배치된 환경에서 아이들이 한국어 및 학교생활 적응 속도가 더 빠르다고 설명함

❍ 그러나 그런데도 아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일상 대화가 가능한 정도이지 교과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함

◦ 입국한 지 3년 이내인 초등학교 다니는 딱 적응할 시기여서 그런지 재밌다 빠르다 이렇게 적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어를 아주 빠르게 배우고, 적응도 빨라요. 특히, 운동 같은 거 잘하는 친구들은 학교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적응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C4)

◦ 저희 지역에 이 학교는 한국어 학급이 있고, 러시아 선생님이 파견되어서 공부도 지원하니까, 이제 그런 고립감이나 어떤 불안감, 위축감이 덜한 것 같아요. (C5)

◦ 애들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돼요. 한국어로 하면 되는데, 일단 그 문자 해석이라든지, 책을 읽을 수는 있는데,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뭐 재미있겠어요. 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중에, 비교과 중에 뭔가 뛰어난 게 있다면, 그나마 어울리게 되는 거죠. (C6)

마. 학교생활 특성

□ 언어장벽으로 인한 중고등학교 적응 어려움

❍ 아이들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초등학교 재학생은 중고등학교 재학생보다 학업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함

❍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거나,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중고등학교에 바로 편입학한 경우, 학교 수업 및 공부 어려움, 학교 시스템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또래 관계 형성 어려움 등의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인식함

❍ 중고등학교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 등 비언어적 교과목 비중이 작아져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줄어든 반면에 학업 부담이 커지는데, 실제로 많은 아이가 공부하고 싶어도 언어장벽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 한국 아이들과 또래 관계 형성도 쉽지 않은데, 한국 아이들의 다문화 감수성 때문이라기보다, 현실적으로 언어장벽 때문에 관계를 일정 수준 이상 발전시켜 나가기 어렵다는 것임

- 한국 아이로서는 학교 시설 이용 안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알려줄 수 있지만, 교과 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도와주기 시작할 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적정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임

◦ 초등학교 A4 때는 너무 행복하고, 친구도 많고 빨리 적응하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딱 진학하면 순간 이제 학업에 대해 억눌림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 하나도 펼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C4)
◦ 안 그래도 갑갑한데 언어도 안되는 아이를, 전 과목을 앉아서 그 오후 늦은 시간까지 앉아 있게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C1)
◦ 나라 간에 학교 사회의 차이, 학교라는 문화? 뭐랄까 교과 체계, 학습 체계, 학업 체계, 진급 체계 등등 이런 시스템들이 일단 차이가 나요. 여기서 오는 아이들의 부적응 내지는 적응이 힘들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 실제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진짜 많습니다.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받쳐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C2)
◦ 언어가 안되니까 당연히 언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까지 이어지죠. 전부는 아니지만 70~80% 가까운 아이들이 이런 고충을 호소해 왔습니다. … 그러면 그 안에 도우미 교사가 있냐? 일종의 통·번역을 해준다거나 이런 인력들이 없는 거예요. 지원 체계가. 그러니 이 아이들이 결국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전락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C2)
◦ 처음에는 학교에 소수의 중도입국 아이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비다문화 아이들한테 중도입국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한데요. 처음엔 화장실 가는거, 매점 가는거 이런 거는 아이들이 다 알려줄 수 있는데, 이 한국 아이가 중도입국 아이 공부를 그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비다문화 아이가 노력해도 어느 순간 한계를 느끼니까 손들어버리는거지. 그러고는 비다문화 아이들끼리 중도입국 아이들끼리 이렇게 어울리게 된대. (C6)

□ 혼자 딛는 발걸음, 그러나 혼자는 그릴 수 없는 미래

❍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정하고 진로를 설계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함. 아이들은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이 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혹은 무엇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부모와 자기 생각을 나누는 아이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 꿈을 가진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아이도 있음. 이는 앞서 논의했듯 아이들이 부모의 통역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부모화

됨에 따라 생기는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부모도 모를 것으로 생각하거나, 부모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진학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조차 자신의 진로에 대한 청사진 없이 스스로 결정해 버리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함

◦ 아이들하고 진로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애들은 뭔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당장 내 앞에 현실적인 것 때문에 돈에 대한 뭐 이런 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C4)
◦ 한국 사회는 내가 뭔가 꿈을 가지고, 어떤 진로를 정해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곳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C2)
◦ 기초 조사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자신의 꿈 이런 거를 생각해 봤다고 해요. 근데 가정에서 이야기를 나눴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참, 이 진로 설정을 자기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기의 몫이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7)
◦ 중고등학생들이 좀 힘든 게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 학교 선택의 기준이 내 또래의 내 나라 애들이 있는 학교에 가고 싶다 에요. 애들이 “우리 러시아 친구가 없어서 학교 그만 A4래요” 그러거든요. 한 아이는 양산에서 일반고를 갈 수 있는 아이였는데, 친구 따라 부산에 있는 특성화고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지금은 “선생님 저 진짜 여기 양산에 있는 일반 학교 가서 대학교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죠. (C3)

(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실태

가. 제도적 시스템

□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 아이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지원은 지역 기관의 재량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음. 사업 지침상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위해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음

❍ 한편, 아동 돌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의 관행적 업무 처리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도 지역에 따라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이고, 이 사각지대는 지역 민간 단체에서 대응하고 있음. 민간 단체의 대응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창녕군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다보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못해요. 예전에 저희가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없을 때도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육 문의하시면 오시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도 지침에도 열려 있어서 받는 추세에요. 언어발달 같은 경우는 사실 문의가 더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차적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지원하더라도 대기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이분들한테까지 순서가 안 갈 때가 많죠. (C5)

◦ 우리 아이 중 한 명이 (지역) 아동센터 이용하는데, 외국인 배경 주민 자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 아이는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고민하다가 센터에서 그냥 애들 밥 먹으면 같이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에서는 외국인 주민이어도 되는 아이가 있고 안되는 아이가 있다고. (C4)

◦ 공동모금회에서 실험적으로 한번 진짜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 배경 아이들. 언제 떠날지도 모를 아이들이라 정부에서도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훨씬 소외돼 있고 훨씬 더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는 동안만큼이라도 최소한 복지 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다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아이들을 국한했어요. (C2)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부르는 다양한 용어, 지원 대상 집단 설정 어려움

❍ 정책용어로서 중도입국자녀는 다문화가족의 국외 출생 자녀를 의미하지만, 지원 현장에서는 아동·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아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중도입국자녀와 이주 배경 청소년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 정책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의 혼용은 정책 대상 범위에 대한 현장의 재량권 문제와 연결됨. 도 차원에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각 기관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현장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전문가들은 아이의 이주 배경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나, 이주 배경이라는 공통점에 초점을 두고 이주 배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나 지원하는 것이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라고 인식함

◦ 중도입국 자녀라는 말이 다문화 이주여성이나 자녀들에게 차별적인 말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주 배경이라는 용어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C3)

◦ 센터 지침에 나와 있는 중도입국자녀 정의와 지금 사업을 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과연 뭐가 다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직원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이 둘의 정의가 모호

하다는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중도입국 자녀 지원이라든지, 수업, 언어 발달 치료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용어에 대한 모호함이 있어서 이분이 대상자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어요. (C5)

◦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에서 이주배경 주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도 중도입국 자녀라는 용어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아닌,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입양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오는 아이들,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C4)

◦ 고려인 청소년이나 외국인 청소년들도 중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개념적 정의가 포괄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 최근 급증하는 고려인 자녀들은 국적이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C1)

◦ 저희도 사업을 기획할 때 중도입국자녀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 제일 먼저였어요. 그래서 외국인 가정, 중간에 입국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데 또 뭔가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누락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인데, 국내 출생을 했다가 이주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친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C7)

◦ 저희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만 9세부터 24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내 국적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C2)

❑ Bottom-up 방식의 문제 해결 접근

❍ 전문가들은 각 지역에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편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제안해 단기 사업을 만들거나,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음

- 일부 기관은 정부 공모사업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레인보우스쿨(클래스), 재외동포청의 고려인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교육지원청의 다문화 예비학교 등의 사업 운영자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공모사업의 기간이 1년 단위라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장기적 사업 기획·운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

- 다른 기관에서는 아산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민간 재단의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되며, 제시된 정책 영역 안에서 해당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지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저희는 오후에 방과 후로 레인보우스쿨, 재외동포청 사업, 교육지원청 사업, 지자체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은 기다려 주지 않아요. 아이들을 보면 뭐가 필요한지 보이거든요. … 그래서 제가 교육청이나 시에도 역제안합니다. 근데 이게 1년마다 뭐를 갱신해.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뭔가를 좀 해 보고 싶어도 언제 우리가 잘릴지 모르고. (C1)
◦ 아산에서 3년 펀딩 받아서 진행했고, 지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원 요청했고, 펀딩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C2)

□ 기관 유입경로: 선주민을 통한 정보 〉 통·번역 서비스 〉 교육청 및 학교

○ 아이들이 기관에 유입되는 경로는 기관에서 해당 서비스를 먼저 경험한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입소문'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교육청과 학교를 통한 홍보로 많이 유입되고 있음

○ 다문화가정의 국외 출생 자녀는 지원 기관이 부모와 입양 서류 지원으로 연결된 후, 자녀가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부 또는 모가 자녀와 관련된 정보와 지원을 문의함으로써 연결됨. 이 경우, 지역에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원 연계를 하지만, 없으면 부모의 요청으로 자녀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입양 서류 번역을 해주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주여성분들이 아이들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죠. 우리는 사실 청소년 아동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다문화가정 아이들 프로그램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모이니까. (C4)
◦ 선주민들을 통해서 들은 정보에 의해서 오는 게 가장 많은 것 같고, 아이들은 교육청 통해서 많이 와요. (C6)
◦ 센터에서 통·번역 서비스 지원하다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것 같고, 교육지원청에서 공문 내려서 각 학교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C5)

□ 예산과 인력의 한계

○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예산과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함. 국가나 경상남도 차원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시스템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프로그램 지원 위주의 개별 대응을 하다 보니, 이 프로그램의 안정성, 지속성, 확장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임

○ 지원 대상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이다

보니, 지원 인력의 소진 문제, 서비스 질의 저하, 프로그램 접근성 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선생님이 오전 8시 반부터 밤 8시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 하니까 선생님들이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 아이들이 작년에 한 7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개인이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 해주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막 생각나는데, 봉사자와 제 사비 그리고 모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 인력,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다 한계예요. (C1)
◦ 저희도 사실 중도입국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인건비 빼고 매년 점점 더 줄어들어요. (C3)
◦ 최근 소문 듣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지역에 아동·청소년 담당하는 복지 기관들 꽤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계층의 청소년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참여시켜 달라고 … 더 늘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C2)
◦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게 하는게 좀 힘들어요. (C3)
◦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차량 운행이 어렵죠.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가버리니까, 저학년인 경우에는 버스도 마땅하지 않고, 차가 없어서 우리 차를 움직이죠. (C4)
◦ 현실적으로 부모가 일한다고 데려다 줄 형편이 못되면, 연계가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올 수 없으니까. (C5)

나. 지원 프로그램

☐ 편입학 지원, 자원 연계, 통·번역 지원 등 행정지원

❍ 각 기관은 편입학 및 출입국·외국인 관서 업무 지원, 자원 연계, 통·번역 지원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

◦ 우리 센터에 ○○○ 선생님이 재작년부터인가? 1년에 거의 30~40명을 입학시키고 있어요. (C3)
◦ 창녕군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다 보니, 관련된 아이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연결해 드립니다. (C5)
◦ 제가 애를 데리고 검찰청에 가서 모든 걸 받아서 출입국청으로 갔어요. 거기 가니까 거기서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를 사정사정하니까 애한테 되게 혼을 내더라고요. “네가 다시 한번만 더 사고 치면 비자 안주겠다. 그리고 너희 부모가 와야 하는데, 이 기관에서 이렇게 오셔서 해주지 않느냐?” 하시면서 해 주셨어요. (C3)

◦ 우리 센터에 베트남 통번역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번역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입양 서류 번역해 주는 일 하고 있어요. … 진주교육대학교에서 하는 아이들 한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가르쳐주는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중도입국 아이들 연결해주고 있어요. (C4)

□ 한국어 학습지원

○ 면접 참여 기관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수준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나, 기관의 자원에 따라 한국어 교실의 운영 형태에 차이가 있음

○ C3는 예산 부족으로 한국어 교실의 시수를 줄이고, 한국어 교육 대상자를 점점 좁힐 수밖에 없어, 아직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함

- 수준별 한국어 교실은 지역 고등학교 교사의 자원봉사로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가 그만두면 한국어 교실 수도 영향을 받는 구조임
-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 학급의 인적 구성인데, 수준별 학급을 구성하다 보니 한 반에 7살 아이와 18살 아이가 함께 공부하는 상황이 벌어짐

◦ 18년부터 중도입국 아이들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3반, 영어 2반을 일주일에 몇 번 한번 할 때마다 4시간씩 운영했는데, 아이들은 느는데 예산은 줄어서 올해는 영어는 아예 없애고 한국어는 2시간씩 해요. 그것도 한 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재능기부로 해주시는 거예요. … 대상도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 레벨 테스트에서 결과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못 오게 해요. 레벨 테스트로 분반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C3)

◦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학력 인정이 되는 다문화 예비교육과정 창설했었고, 작년까지 교육청에서 받아서 운영했었어요. … 이제 오전 9시에 교육청 사업 다문화 예비교육과정 아이들을 2시까지 해서 보내요. 그럼 방과 후로 레인보우 스쿨 아이들이 한 20명 또 왔다 가요. (C1)

◦ 학교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단 기본적인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제 다 수준별로. 아주 촘촘하게 초, 중, 중, 고 뭐 이런 식으로 중급 안에서도 또 등급이 나눠지기도 하고. 또 고급반 안에서도 아이들이 좀 더 높은 등급의 비자를 받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토픽 준비반까지 개설할 정도로 한국어 교실을 등급별로, 수준별로 하고 있습니다. (C2)

○ C3 기관에서는 한국어 교실을 학기제로 운영하면서 부모 OT, 수료식을 진행함. 부모 OT에서는 한국어 교실의 운영 방식, 규칙 등을 다국어로 설명하며, 부모의 협조와 이해를 충분히 구함으로써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

파트너로 역할을 부여함

◦ 저희는 3월에 한국어 수업 개강할 때 항상 부모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OT를 하거든요. 아이들 떠들거나 말을 안 듣거나 이러면 세 번 경고할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부모 상담을 하겠다.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부모들도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고, 간식은 제공 안 하니까 집에서 꼭 식사를 챙겨달라 이야기해요. …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도 규칙을 지키기 시작하고 한해 한해 달라지더라고요. (C3)

❍ 경남 가족센터 외 3개 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이주 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및 진로 적응성 향상을 위한 '인생네컷'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13]. 해당 프로젝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마음 한 컷: 개별 심리·정서 지원
- 학교 한 컷: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 진로 한 컷: 나이별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 경남 한 컷: 이주 배경 자녀와 가족 대상 지원

□ 기초 교과 중심의 모국어 교과 학습지원

❍ 일부 기관은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해 모국어 교과 학습지원을 하고 있음. 아이들의 모국어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 교과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언어장벽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임. 3년 평균 출석률이 92%일 정도로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고, 대기자가 많은 사업으로 모국어 학습지원에 대한 절박함을 방증하고 있음

13) 사업의 정식 명칭은 '이주배경자녀의 공교육 진입 및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한 글로벌인재양성 프로젝트'로 3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올해 1년 차 사업을 진행 중임. 컨소시엄 참여 기관은 사업의 4개 영역 중 3개를 선택해 운영함. 이 중 공교육 진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한국어 학습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교 한 컷' 사업은 20회기(주 1회, 회당 2시간)로 설계되어 있음. 경남 가족센터는 참여자 총 20명을 아이들의 나이, 한국어 수준을 고려해 3반으로 분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어 수준은 토픽 Ⅰ 문제지로 평가했고, 성과 목표는 토픽 Ⅰ 1급 이상 자격증 취득임. 분반 시 한국어 수준을 고려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나이별 분반으로 같은 반 아이들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음. 한편, 한 반에는 주 강사, 한국인 보조 강사, 사업담당자 총 3명이 투입되어 표준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 강사는 경남 가족센터에서 양성한 이주여성 이중언어 강사를 대상으로 선발함. 사업담당자는 아이들을 관찰하며 관찰일지를 작성함(출처: 경남 가족센터의 '인생 네 컷' 사업계획서)

❍ C1은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에서 밤거리를 배회하는 고려인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야학을 열어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이들 밤에 돌아다니면 사고 친다고 뭘 해달라고 해서 야간에 야학을 열었어요. (C1)

◦ 이 아이들이 한국어가 안돼서 수업에 집중 못 하고 학교생활 적응 힘들다. 여기에 착안해서, 아이들에게 자기 나라말로 가르쳐주는 과외를 펀딩 받아서 6년째 모국어 교과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어, 영어, 과학, 수학 또 요즘 많이 하는 컴퓨터 수업.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그걸 아이들 나라말로 해주는 거죠. … 25명 정도가 수업받고 있고 본인이 희망한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들어오는 순간 좀 많은 혜택이 있죠. 그래서 성실히 열심히 해야 한다. 빠지지 않아야 한다.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자기의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출석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필요했다고 보고 있어요. … 연중 참석률이 평균 90% 이상이에요. 3년간 평균 출석률이 92% 정도이고요. 사실 출석률을 7~80% 넘기기 쉽지 않거든요. (C2)

❍ 기초 교과 중심의 모국어 학습지원은 교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한국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컴퓨터 등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으면서,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를 구사하는 이중언어 가능자라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만만치 않음

◦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유학생이면서 그 특정 과목에 좀 특화된, 특정 언어 국가 유학생이어야 되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렵죠. … 이 연결은 지역에 인제대학교, 가야대학교 이런 대학교의 유학 봉사자들이 있는 유학당이 있더라고요. 어학당처럼. 거기 담당 교수님하고 연결을 지어서 석박사 유학생이 가장 좋지만, 힘들다면 학부생들 중에 좀 똑똑한 친구들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연결해서 봉사단도 꾸리고 진행했어요. (C2)

□ 수다 모임, 또래 형성 지원 등 심리·정서적 적응지원

❍ 아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또래와 어울리는 것이 필요함.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일부 센터에서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수다 모임'을 열어주고 있는데, 모임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어울리거나, 한국 아이들을 초청해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풀어가는 시간을 가짐

◦ 그나마 센터를 나온 친구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센터에서 이제 집에 가야지 해도 안가고, 그냥 우리 지금 여기 있으면, 앉아서 얘기 좀 하고 가면 안 되냐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센터를 오고. 심지어 학교는 안 가더라도 센터는 오려고 하는. (C3)
◦ 한 학교에 6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방과 후를 6명 만 해요. 학교보다는 우리 센터로 오는 거죠. (C1)
◦ 매달 한번씩 하는 수다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너희들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떠들어. 이때 또 한국 학생을 한두 어명 초대해서. 한국 사람, 한국 학생들이 친구들이지. 너네들 또래 한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생각. 너희를 바라보는 생각은 이래. 라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오해가 쌓였던 것도 좀 이해하게 되고. (C2)

❍ 또래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서 '캠프',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데, 핵심은 한국 친구 한 명씩을 초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관계를 형성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음

◦ 나라별로 다른 친구들이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언어를 배우더라고요. 사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학교 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협동심도 배우고, 서로 배려해 주는 걸 배우면서 한국어도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C3)
◦ 내·외국인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너도쌤, 나도쌤, 모두쌤'이라는 프로그램 해봤어요. 방학 때 5일간 하는 프로그램인데 2년간 했었어요. 한국 아이들은 고려인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고, 고려인 아이들은 한국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예쁘고 착한 줄 몰랐다 이러고. … 일반 학교하고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C1)
◦ 고려인 자녀들 아주 밝은데, 한국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는 왠지 위축되고, 목소리가 작아진다. 덩치도 크고 애가 막 건장한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국 아이들하고 같이 청소년기에 어우러지면, 성인이 돼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게 되잖아요. (C1)
◦ 캠프를 가더라도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와서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갖게 해요. 우리는 같은 또래야. 라고 느낄 수 있게. (C2)
◦ 다문화, 비다문화가 어울리게 하는게 가장 교육의 시너지 효과가 좋아요. … 여름방학 글로벌 청소년 학교라든지 이런걸 도에서 정착 될 때까지 하나 딱 해서 2박 3일 동안 다문화, 비다문화 같이 캠프 같은 거를 동부권 한번, 서부권 한번 쫙 하고 나면 또 이 아이들이 거기서 잘 어울리면서 자기 학교로 돌아가는데. (C6)
◦ 또래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과는 중고등학교 때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초등학교부터 되어야 하는 거는 맞는 거죠. (C3)

□ 체험학습, 진로 설계, 직업 훈련, 사회 공헌 활동 등 사회·문화 적응지원

○ 일부 기관에서는 한국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사과 따기, 영화 관람, 미니 운동회 등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부모, 운영자 등 행위자의 입장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운영자는 아이들이 한국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기초 생활 교육의 실천 현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 이상의 의미가 있음. 언어장벽으로 적응이 힘든 학교를 잠시나마 벗어날 기회이고, 한국 아이들처럼 학기 중 체험 학습계를 내고 공식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기회임
- 보호자들은 학교를 쉬고 다른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함. 이는 보호자들이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 같은 차이는 자녀와 문화접변 속도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 대립, 부모-자녀 간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프로그램을 주중에 하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학교 가서 앉아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평일에 체험학습 쓰고 오면 빠지지 않아요. (C3)

◦ 저희가 예산이 없어도 꼭 하는 거는 1년에 한번 영화 관람이랑 5월마다 미니 운동회를 해요. 아이들 데리고 영화 관람 가서 햄버거도 먹고,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하거든요. … 외부에서 예산을 좀 받아오면, 사과 따기 체험을 하러 가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 아이들이랑 이동할 때 버스 안에서 사과를 따거나 영화를 볼 때 필요한 규칙, 질서 이런 걸 설명하면서 안 지키면 어떻게 될지 같이 생각해보자면 아이들이 싹 지켜요. (C3)

◦ 여행이나 체험학습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해요. 학교에서 1년 동안 체험학습을 15일 할 수 있는데, 이 애들 엄마 아빠는 일하시기 때문에 체험학습을 거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제가 아이들을 체험학습 데려가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 개념에는 학교에 안 가고 어떻게 노냐고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똑같이 그냥 친구들이 놀러 갔던 거 그냥 사소한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C4)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게는 진로 설계에 대한 지원이 특히 필요한데,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핵심은 한국 사회에 다양한 세상을 경험해 봄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에 있음

◦ 진로 설계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특강을 하시는 분들 6~7명 모셔서 질문 주고받기를 합니다. 한 사람당 두 개의 선택권을 주고, 가장 관심 있는 직업군에 들어가서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 그리고 직업체험은 직업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김해는 제조업이 많으니까, 제조업 현장에 가기도 하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경찰관들에게 특강도 듣고. … 핵심은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거. 몰라서 결정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은 이런 곳이야. 이렇게 다양한 일이 있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이럴 기회가 없거든요. 입시 설명회, 진로 설명회에 부모님이 관심도 없으시고, 여력도 안 되고, 가 봤자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갈 생각이 없으세요. (C2)

❍ 이주 배경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임에도 아르바이트를 꽤 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바리스타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했고,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권에 대한 교육 제공함

◦ 15세 이상부터는 어차피 알바를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카페에서 알바 하고 싶다고 해서 커피 교육을 시켜주고,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열 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또 노동권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했습니다. (C2)

❍ 사회참여는 이민자 지원의 궁극적 목표로, 이민자의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이민자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포용력이 모두 필요함

❍ 이주 배경 청소년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바리스타 자격증을 활용해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의 인식 전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임

◦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구상하다가 …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아주 큰 혜택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회 공헌을 해야 한다고 말해줬죠. … 프로그램에서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을 딴 아이들을 중심으로 사회 공헌이나 환원 활동을 이어 나가면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C2)

(3)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수요

□ 체계적 지원을 위한 추진 기반, 조례 제정 필요

○ 전문가들은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책 수요에 개별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예산, 인력 등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증가 속도가 지원 기관에서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함

○ 경상남도에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사업보다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실태조사, 연구, 세미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실무 협의체 구성, 예산, 인력, 전담 상담교사 배치 등 지원 체계가 명문화된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 아이들한테는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다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실은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경남에 없으니까 그걸 만들라는 요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6)

◦ 중도입국 청소년 전담 상담교사 배치, 중도입국자녀 실태조사 등등을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해요. 또,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가족센터, NGO 등등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중도입국자녀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 이 아이들에 관한 기초자료 확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연령, 국적별 현황, 언어 수준, 학교 적응, 체류자격, 진로 등등 데이터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C3)

◦ 저희 같은 경우 애들 개별적 특성에 맞춘 지원을 하고 싶은데 기초자료가 없어요. 이주배경 자녀, 외국인 자녀와는 이번 사업으로 처음 관계를 맺은 거다 보니 가족들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개별적 접근을 통해 뭔가 지원을 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C7)

◦ 토론회 같은 거, 세미나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이 아이들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중도입국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동포들 자녀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이걸 다시 연구해서 조금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C6)

□ 경남형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용어 정리

○ 이주 배경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이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내용으로 경남형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용어 정리가 필요함

◦ 중도입국자녀를 다문화가정이라고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이가 다 중도입국자녀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C3)
◦ 명확하게 큰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온 모든 아이를 함께 아우르는 어떤 단어가 분명히 나와야 할 것 같고. (C5)

☐ 보편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공공서비스 대상자로 포용을 위한 조사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이주 배경으로 인한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법에 따라 보편적인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대상이기도 함.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으므로 연구를 통한 정리가 필요함

◦ 우리가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 지원 재단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거기는 또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수업 온 학생들한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화의 집, 청소년 중장기 쉼터 이런 쪽에서 보니까 수요가 작긴 한데, 곳곳에 또 우리가 모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 계부한테 맨날 가정폭력 당하고 엄마는 방임하고 비자 연장 안해주고 그러면 쉼터에 가서 있어야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쉼터가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박사님이 연구를 더 해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C6)
◦ 얼마전에 일본으로 국제 교류 연수 다녀왔어요. 거기 나리타시 다문화가 70%인데, 모자 가정 센터에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분들이 거기 살고자 하면 살게 하고, 가고자 하면 보낸다. 이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어쩌면 그런 부분은 우리도 좀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C3)
◦ 다문화 청소년들은 일단 국적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주배경 아이들은 못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C4)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적응을 매우 힘들어함.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은 학교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데, 이들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 현재 교육청이 운영하는 다문화 예비학교가 있지만, 경남 18개 시군 중

진주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낮음. 또한, 예비학교에서 한국어 교육만을 시키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예비학교의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경상남도에서 학교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처음에는 예비학교 형태로 좀 하고. 그걸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쨌든 학교에 진입했을 때, 애들하고 계속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좀 중반부에 (입학) 하는 게. 가능한 초반부에 다문화, 비다문화가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서. 학교에 정착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해요. (C6)

◦ 적응교육 해야해요. 그게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정착형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골든타임이 사실 6개월이나 1년 안에 아이들이 가장 호기심 많을 때, 뭘 배우고 싶어 할 때 뭔가를 줘야 해. 그래서 다문화 예비학교를 역제안해서 시작했었어요. … 근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C1)

◦ 교육청에서 외국인 자녀 지원하는 예산도 적고, 기간도 짧고, 담당 교사도 계속 바뀌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 시범사업은 센터가 하든 NGO가 공모로 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 실제로 처음에 와서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바로 진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입하기 전에든지 뭐든지 센터가 하나 있긴 있어야 해요. (C4)

□ 경남형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센터 설치 및 운영

❍ 경남형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센터가 필요하다는 중론이 모임. 아이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지역 거점별로 최소한 한 곳 이상은 필요하고, 그 공간에서 학교 적응을 위한 한국어 공부, 예비 교육 과정, 방과 후 과정, 상담, 또래 관계 형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등을 편성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센터를 꼭 창원에 만들라는게 아니라, 저는 동부권 수업도 김해, 양산, 창원 이런식으로 뭘 해서 한다면 가족센터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은 NGO에서 하든지 해서 이 아이들이 와서 바로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평일이든 주중이든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여기 와서 마음껏 이 친구들이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 방과 후에 와서 해도 되고요, 예비 교육이든 또는 뭔가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이 시범사업을 할 때 연구 과제를 같이 해서 부족한 거 정비하고 해서 사업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C3)
◦ 안산시나 시흥시 화성시처럼 글로벌 청소년 센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C1)
◦ 청소년기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정체성 관련 부분과 또래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 또래들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 또래들끼리 수다를 떨거나 막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들이나 이렇게 해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이야기 … 내가 지금 힘들 때 찾아가야 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특정한 곳이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어디로 가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누구하고 이야기하지?" 할 때 그 기관이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C4)

□ 이주 배경 특수성으로 인한 맞춤형 지원

○ 전문가들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중에서 동포와 재혼 가정 아이들 사이에 가정 환경에 따른 심리·정서적 차이가 큼을 지적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고려인 사업도 경남형으로 시범사업을 네 군데(김해, 양산, 창원, 진주)가 힘들면 한두 군데라도 한번. 아니면 우리 가족센터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C3)
◦ 재혼 가정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더 불안정하고. 그런 상담이나 지원들도 좀 달라야 하고. 그래서 분리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C3)
◦ 이 중도입국자녀들과 관련해서는 동포들 자녀하고 조금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C6)

4) 한국어 학급 교사 및 이중언어 강사

(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특성

가. 심리적·정서적 특성

□ 언어장벽으로 인한 문화접변 스트레스로 고립, 좌절, 불안감 등 경험

○ 아이들 가까이서 활동하는 이중언어 강사는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두 가지 양상으로 표출된다고 요약함

- 조용한 아이들은 서툰 한국어 때문에 위축되어 말을 잘 안 하고, 소통이 안 되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끄러운 아이들은 과격한 언행을 하는 경향이 있음. D6는 이런 특성을 러시아권 아이들에게서 주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가정에서 욕을 먼저 배우고, 의미를 잘 모르면서 재미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또래 가운데 있고, 선생님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사회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함

◦ 제가 정규 수업에 많이 들어가는데, 보면 중도입국 학생들 특성이 두 가지예요. 아주 조용하거나 아주 시끄러워요. 관심받으려고 하거나, 말을 못 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 친구 없이. 한국 문화나 언어에 적응을 못 해서 힘든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D4)

◦ 아주 조용하거나, 너무 시끄럽고, ADHD도 많아요. 그리고 저를 막 맞추고, 반말 쓰는 학생들도 있고. 또, 러시아권 학생들은 욕을 많이 써요. 러시아 욕도 하고 한국 욕도 하는데 일단 한국에 오자마자 욕부터 배워요. 뜻은 몰라도 발음이 재밌게 들려서 한다는 애도 있고, 근데 주로 엄마 아빠가 집에서 욕을 많이 하니까 따라 한다는 애들이 많아요. … 조용한 애들은 말할 때 틀릴까 봐 아예 말을 잘 안 하는 애들이에요. (D6)

◦ 제가 볼 땐 적응을 잘 못 하는 아이들은 결석이 잦아요. 학교 가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학교 안 오는 경우가 있죠. (D1)

◦ 본인이 원해서 온 게 아니고 부모 따라오다 보니 “내가 한국어를 배워야지.”, “열심히 배워서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언어가 안되니 학교생활 하는데도 힘들고. 그러니 나머지 아이들은 적응을 못 하고 “돌아갈 거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D2)

◦ 애들이 말을 못 하니까 친구도 못 사귀고 소통 안 돼서 짜증 나고 하니까 친구를 때리고 소리 지르고, 베트남 가고 싶다고 울고 그러죠. (D5)

□ 언어장벽, 학습 결손으로 인한 자아존중감 하락

○ 본국에서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습 결손 때문에 자아존중감 하락을 경험하기도 함

◦ 자기는 베트남에서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공부하는 거 완전히 포기해요. 처음에는 울기만 했어요. 제가 격려 많이 해주고 도와줘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이들이 심리 문제가 심해요. (D5)

◦ 자기 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던 아이 부모님은 아이가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와요. 제가 부모님께 지금은 한국어 배우는 것에 만족하시고, 성적을 논하지 마시라고, 아이한테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면 언제든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찾아서 그때부터 도전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러다가 아이가 첫 번째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거의 없잖아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죠. 아이도 점점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약간 우울증같이 그래요. 적응 못 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기 다반사고. 자꾸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네가 대학교 가면 돌아가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마음을 정착 못 하는 거예요. (D2)

□ 적절한 돌봄 부재로 인한 향수병

○ 집에서 부모에게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하거나, 본인보다 더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경우 향수병을 겪기도 함

◦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D6)
◦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요. 베트남에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챙겨주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스스로 다 챙겨야 하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이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스스로 밥 먹고, 학교 가고, 방과 후엔 집에 와서 동생 어린이집 하원도 해주고, 둘이 같이 밥 먹고 놀고 해요. 그럼 밤에 엄마가 와요. 그래서 좀 불안정한 것도 있어요. (D5)

□ 불안정한 가정 환경으로 인한 문제행동

○ 일부 아이들은 우울감, 무기력증, 등교 거부, 자해, 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는데, 교사와 강사는 부모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함

- 새아빠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부모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재혼 가정 아이, 초국적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친부모라 하더라도 가학적, 폭력적 성향이 강한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아이, 그리고 원 가족이 함께 지내지만, 한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간 갈등과 다툼이 심한 가정의 아이들에게서 다양한 양상의 문제행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 작년에도 ○○○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재혼했고, 아빠랑 안 맞아서 …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나가고, 학교에 안 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정말 고맙게 부산에서 아침 8시부터

그 친구 찾으러 와서 그 친구 데리고 등교시키고 적응할 수 있다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래도 적응을 못 했어요. 새아빠가 힘들게 했데요. 그래서 가버렸어. (D6)

◦ 베트남 학생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도 여러 번 자해했어요. 이 아이도 한국어 잘 알아듣는 아인데, 선생님께서 막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부모도 계속 바쁘고, 새아빠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똑똑한 아이였는데, 계속 표정이 어두운 … (D6)

◦ 교포분 중에 아이랑 남편은 중국에 두고 자기만 한국에 H2로 온 분이 있는데, 최근에 딸을 데리고 왔어요. 남편이 폭력적이어서 술을 먹고 애를 때리고 …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가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해서 한국에 와서도 적응을 못 하고 계속 자해를 해요. …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한테 한 번만 더 자해하면 전학 가거나 퇴학 조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 나중에 학교 복지 선생님이 정신과 연계해줘서 상담받고 있어요. (D3)

◦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인 고려인 아이가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카자흐스탄에 있었을 때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6년 동안 부모님이랑 다 같이 모여 본 적이 없다고. 부모님인 계속 싸운다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더 좋은 미래 주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줬는데, 아이가 그런 사람 안 되고 싶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그 아이는 씻지도 않았어요. 샤워 좀 하라고 했는데 씻을 힘이 없다고. 학교에 오고 싶지도 않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그래요. (D6)

□ 부정적인 환경 요인이 중첩된 이주 배경 청소년의 극단적인 행동

○ 취약한 상황과 환경이 지속·중첩되어 더는 견딜 수 없는 아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 D2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과 학교 어느 한 곳에서도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몰리고 있음

○ D6는 아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외국인 차별적 분위기, 교사의 외국인 혐오 발언과 성추행 등이 아이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등 극도의 어려움에 노출되도록 한다고 설명함. 본인이 문제를 인지하고 바로잡고자 노력해도 아이들이 취약한 위치에 놓인 외국인이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일을 경험했다고 토로함

◦ ○○○○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하고, 활발했어요. 자기 마음속 이야기도 잘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자살했어요.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하셨데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이 나이가 조금 많은 남자분이셨는데. 선생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 아이는 고려인이었어요. 살던 나라에서도 외국인 취급을 당했고, 여기 와서도 차별을 당한 거예요. 그 선생님

이 아이들한테 1년 동안 “너네는 한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살고 있어. 한국어 학급, 한국인들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해야 해.” 말하고 저한테 통역하라고 했어요. 제가 아이들 상처 받지 않게 둘러서 통역했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그 아이들 표정이 어두워지죠. 이 선생님은 말로 아이들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고, 때리고 그러셨어요.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 아이가 안 배우고 싶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 부모님도 세금 냅니다.” 하면서 한국어 학급을 안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한국어 학급 안 오냐고 부모님께 전화하라고 하면서 부모한테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가만 안 두겠다.”라는 자기 말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제 앞에서 예쁘고 잘생긴 애들 장난치는 척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 그 학생은 이런 게 너무 쌓여서 자살한 거예요. (D6)

◦ 다른 학교에서도 여학생이 자살했어요. 그 친구도 ○○초등학교에서 차별을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거 “안녕하세요.” 인사를 이 무릎까지 이렇게 안 했다고, 다시 2시간 동안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를 우리 학생 5명한테 시켰어요.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한다고 머리를 이렇게 숙여 숙여 하면서 (손으로) 누르고 때리고 그런 식으로 했대요. … 얼마 전에도 이 학교 6학년 남자 선생님인데, 엄청 근육질에 힘센 선생님이래요. 근데 외국인 학생들 머리를 (양손으로 한 명씩 잡아서) 박치기를 한 대요. 여학생들은 (가슴) 부분이 민감하잖아요. 자꾸 만지자고 한 대요. 수업 마치고 핸드폰 나눠줬을 때, “○○○는 남아라.” 하는데 아이가 핸드폰 빨리 가지고 집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 있어라.” 하면서 벽으로 이렇게 (밀치고). 아이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어요. 사실 이 학생이 한부모 가정 아인데 엄마가 없다는 걸 알고부터 그러기 시작했어요. … 이 아이는 지금 자살 충동에 시달려요.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아이가 가지고 다니는 면도칼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거 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 카톡 (프사) 보면 자기가 그린 그림에 “해라 자살. 너 한다고 했잖아”,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러시아어로 써놨어요. (D6)

나. 아이들의 문화접변 영향 요인

☐ 부모의 관심에 따른 아이들의 한국어 및 학교 적응 차이

❍ 면접에 참여한 교사는 아이들의 한국어 능력과 학교 적응 성과는 부모의 관심과 지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함

- 부모가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한국어 학습 및 적응 속도가 빠른 경향이 있는데, 아시아 국가 출신 가정은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한 편이라 더욱 잘 적응하는 편이라고 설명함
- 재혼 가정의 중도 입국 아이들은 부모(한국인 새아빠+엄마) 간 교육관 차이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음. 부모 간 교육관 차이는 가정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결국 아이가 방치되는 결과를 낳기도 함

◦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은 한국어도 빨리 늘고 적응이 빨라요. 그런데 가정에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본인 의지도 없어요. 2년을 해도 정말 이렇게까지 모를까 싶을 정도로 한국어를 못 하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D1)

◦ 처음에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4년을 지켜본 지금은 그냥 한국 애들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얼마나 주변에서 관심을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할 기회를 주면 아이들도 똑같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부모도 관심이 없고, 학교도 사실 일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관심이 없고, 힘들어하세요. … 센터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니까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도 또, 센터도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더라고요. (D2)

◦ 재혼 가정의 중도입국 자녀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베트남 사람인 경우, 애가 이 아버지와 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엄마랑 뭔가를 하는데, 아버지가 재혼했기 때문에 뭔가 아이 교육에 관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과 생각이 다른 거야. 거기서 오는 갈등도 있고. 아예 방치되는 일도 있고. (D2)

❍ 부모가 아이 교육과 훈육에 관심이 없는 예도 있음. 일부 러시아권 가정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아이가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부모가 통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상담에서 오히려 자기들은 아이에게 생활지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해 학교에서도 아이들 지도에 어려움이 있음

- 수업을 알아듣지 못하는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자고 밤에 활동하는 경향이 있음. 남학생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친구들과 연락해 밤새 게임을 하고, 여학생들은 인근 지역의 러시아 거리로 나가 밤새워 돌아다니는데, 이런 아이들은 학교 규칙을 지키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고, 행동에 문제가 있으며,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함

◦ 제가 볼 땐, 중도입국 학생들 유형이 몇 가지 있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쪽은 가치가 저희랑 좀 비슷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와요. 부모님과 함께. 아이도 부모님도 뭔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좋은 학교 가고 싶고 좋은 데 취직하고 싶고 이런 열망이 강해요. 그런데 주로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쪽 애들은 문화적 차이인가 싶은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거의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규칙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기들은 아무런 터치도 안 받다가 한국에 와서 계속 이건 안돼, 학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 아이가 학교에 안 와서 부모님께 연락해도 부모님도 연락이 안 닿아요. 통역 대동해서 부모 상담하면서 출석, 생활지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이에게 그런 걸 터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 그 애들은 수업 마치고 나

가서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서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해요. (D2)

◦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학교 와서 매일 자거든요. 그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낮이 바뀌는 거죠. 밤새 게임을 해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들일 시간을 정해서 게임에서 만나요. … 주로 중앙아시아, 러시아 쪽 아이들이 그러죠. … 여학생들은 성인처럼 화장하고 밤새 돌아다녀요. 부산 초량에 러시아 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러시아 애들이 밤에 모인데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성인 남성하고 막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 이렇게 성인 남성 만나면 안 돼. 사진 찍으면 안 돼." 이러면 "왜요?" 이러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저희하고 가치가 너무 다르니까. 아이가 학교 밖에서 하는 행동을 저희가 규제할 수 없잖아요. 부모한테 말씀드려도 별로 상관 안 하시고. (D2)

□ 초등학교 신입생 사이의 한국어, 학교생활 관련 기초 지식수준 차이

○ 신입생의 50%가 외국인 학생이 입학한 한 초등학교의 한국어 학급 담당 교사인 D1은 이 아이들의 양상이 다양하다고 지적함

-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 말은 하는데 글은 모르는 아이 어느 쪽도 학습이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임. 학교생활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 또는 단체생활 규범에 대한 인식이 없어 기초적인 생활지도부터 해야 하는 상황인 아이들도 있음

◦ 올해 1학년 신입생이 38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 19명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올해 처음 신입생의 50%가 외국인인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놀랐어요. … 양상이 너무 다양해요. 한국어는 유창한데 한글을 모르는 아이, 한글도 모르고 한국어도 안 되는 아이. 또, 한국 부모님 같으면, 학교 보내기 전에 공부도 좀 시키고, 유치원에서도 약간 학습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이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학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생활 지도도 어렵고 … (D1)

□ 교사의 관심과 태도에 따른 아이들의 학교 적응 양상 차이

○ 학교와 담당 교사의 태도는 아이들의 학교 적응, 학습 열망, 진로 설계 등에 매우 큰 영향을 줌

-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 다년간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한 D6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한국어 학습 속도, 학습 열망, 대학 진학 준비 등에 차이가 크다고 말함

- 선생님이 외국인을 차별적 태도로 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아이들은 한국

어나 교과 공부 성과가 낮고, 심리적으로도 우울감, 무기력증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함

◦ 학교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열정적인 선생님들 계시면, 학생들이 꿈이 있어요. 한국어도 빨리 배워요. 대학교도 가고 싶고. 엄격한 선생님, 차별적 인식이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싶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D6)

(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실태

□ 수시 편입학의 한계와 문제점, 내용적 측면의 학습권 보장 미진

○ 우리나라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 의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있음. 학령기에 이주해 온 아이들은 학교의 학사일정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편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수시 입학'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함

○ 아이들 대부분은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상태로 입국하자마자 학교에 편입학하는데, 학교에 한국어 학급이 없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어 학급이 있어도 학급 내 한국어 수준별 그룹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학교의 부담이 크다고 설명함

○ 이 아이들은 한국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진급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수업 일수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함. 중고등학생의 경우 한국어 및 교과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만 하면 자동으로 진급하고 있어 기초학력 결손, 학교 부적응 문제가 심각함

- 한국 학생들은 진급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수업 일수가 있으나, 이 아이들은 본인의 편입학 시점으로부터 수업 일수의 3분의 2를 채우면 진급하는 시스템을 적용받고 있음

◦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이 수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시로 들어오는데, 한글을 하나도 모르고 들어와요. 현재 한국어 학급이 그룹별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한글을 하나도 모르면, 그 어떤 그룹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만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쪼개 한두 달을 따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일어나요. … 시간을 쪼개다 쪼개다 못

쪼개면, 그 아이는 다른 아이가 한국어 학급을 나갈 때까지 한국어를 배울 수가 없는 상태도 있어요. 하나도 모르는데 반에 그냥 앉아 있어야 하는 거죠. (D1)

◦ 교육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거는 애들이 일단 중도입국을 하면, 학교에 바로 와요. 수시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게, 이 아이들은 들어온 시점부터 수업 일수를 3분의 2를 채우면 애가 9월에 들어오든 12월에 들어오든 진급하는 거예요. 한국어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럼 저희가 여기서부터 기역니은부터 가르쳐요. 나머지 시간은 일반 학급에 앉아 있거든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 그러다 보면 애들이 처음에 의지가 있더라도 점점 엎어지기 시작하고 계속 자는 거예요. (D2)

□ 언어 교육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이중언어 학습의 더블 리미티드 문제

○ 한국어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음. 말이 트이는 순간 소통이 되니, 생활, 학습, 교우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적응할 기회를 얻지만, 말이 되지 않으면 끝내 학습 부진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함

◦ 모든 게 언어의 문제에요. 말이 되는 순간부터 친구 말 알아들으니까 반응하고, 학습도 하고, 아이가 성장할 기회를 얻는데, 말이 안 되면 생활, 학습, 교우 관계 모든 면에서 좀 어려워요. 잠재적 부진아이고, 점점 자라면서 부진아가 될 확률이 높아지죠. (D1)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들이 이중언어 학습자라는 점은 간과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이중언어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고, 모국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자칫 한국어도 모국어도 미숙한 더블 리미티드(double limited) 상태에 빠질 위험에 놓여 있음

◦ 학생들한테 한국어 한 문장을 주고, 이거는 베트남 말로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베트남 말 아주 잘해요. 말하기, 듣기는 아주 잘해서 설명할 때도 뭐 문법 설명할 때도 베트남 말로 설명해 주면 빨리 이해하는데, 그럼 이 문장을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하냐 물어보면 번역 투로 말해요. 베트남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죠.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베트남 말도 점점 잊어버리고, 생각할 때도 베트남어하고 한국어 하고 섞어서 해서 자기도 혼돈하고 있어요. 베트남 어휘가 부족하면 한국어 배우기도 힘들어요. (D5)

◦ 어른들은 언어를 배우면 자기 모국어 위에 새로운 언어가 쌓이는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그 상태로 모국어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국어 문법을 몰라요. 단어, 시제 이런 거, 다 알려줘야 해요. (D6)

□ 외국인 학생 급증으로 한국어 학급 교육 서비스 질 저하 문제

○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담당 교사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2년은 부족하다고 지적함. 한국어 학급에서 의사소통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를 다루도록 교재가 개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의사소통 한국어를 주어진 2년 안에 다루는 것도 빠듯한 실정임

○ 2년 후 한국어 학급을 나가게 된 아이들의 한국어가 교과 공부를 할 수준이 안된다는 것임. D1은 다문화 정책학교에 선정되어, 한국어 학급 2년 과정을 마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한국어를 이어서 가르쳤을 때 효과가 크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어 학급 지원 기간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함

◦ 한국어 학급에서는 최대 2년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공부한다고 한국어가 다 늘지 않아요. 2년을 해도 수업은 못 알아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국어 학급 수업은 의사소통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가 따로 있어요. 보통 학교에서는 학습 한국어까지 나가지도 못해요. 의사소통 한국어는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해 보니까 천천히 꼼꼼하게 가르치면 1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 올해 우리 학교가 이주 배경 학생 학력 신장과 관련된 연구 학교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저하고 의사소통 한국어 4권을 다 뗀 아이들을 불러서 학습 한국어를 지도했는데, 시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분류, 조사, 작성, 자료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국어 사전식 의미는 모르지만, 언제 이걸 사용한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사용하더라고요. (D1)

◦ 한국어 수업을 하루 2시간씩 한다고 해서 언어가 급격하게 느는 게 아니잖아요. (D2)

○ 외국인 학생 밀집 학교로서의 어려움과 한계에 대한 문제도 언급함. 한국어 학급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아이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학급 수용인원을 초과하고 있어, 교사의 업무 과중,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외국인 아이들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한국 아이들과는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가 더 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함

◦ 문제가 한국어 학급이 있으면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세력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애들하고 통 안 섞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놀면 되니까 한국 애들이랑 놀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 언어권끼리 노니 한국어가 더 안 느는 거예요. (D1)

◦ 저희는 한 학급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한 23명쯤 되거든요? 스무 명쯤 되면 두 학급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증설을 안 해줘요. 예산 문제겠죠? … 아이들이 레벨 차이가 워낙 심해서 수업은 현재 일곱 그룹 만들어서 제가 세 그룹하고 한국어 강사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두 그룹씩 수업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주 14시간까지만 지도할 수 있게 못 박아놨어요. … 두 학급이면 숨통이 좀 트이겠죠. 선생님이 두 분이라 협업할 수 있으니까요. (D1)

□ 진학 지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급학교 진학률과 학교생활

❍ 진학 지도는 아이들의 상급학교 진학률과 진학 한 학교에서의 학교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제대로 된 진학 지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은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음

❍ D2는 아이들이 진학 지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봄

❍ 먼저는 부모가 자녀의 진학에 관심도 정보도 없기 때문임.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자녀도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즉, 돈을 벌어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자녀는 부모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임

- 이들은 무엇을 해서 한국에 체류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구체적 계획 없이 배달이나 아르바이트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함

◦ 여기는 중학교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진로를 정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왜 없냐고 물어보면, 일단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둘째는 부모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D2)

◦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쪽 부모님의 목적은 돈을 벌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안 시키겠다는 부모님도 많았어요.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하면, “학교 안 보내고 공장 보내서 돈 벌게 할 거다. 돈 벌어서 자기 나라 갈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와서 쭉 생활한 애들은 또 달라요. 중3 시기가 돼서 진로/진학 상담해 보면, “너 다시 돌아갈 거야?” 하면, “아니요”, “왜?”, “한국 살기 편해서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 거야?” 하면, “아니요. 부모님인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원래 있던 나라로 간대요.”, “그럼 너는?”, “너는 혼자 여기서 살 거예요.” 이래요. “그럼 뭐 하고 살 거야?” 물어보면,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할거예요.”, “무슨 아르바이트?” 물어보면, “배달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막 이래요. (D2)

❍ 다음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함. 아이들이 진학, 진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교사가 아이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학교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아는 내용을 아이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중언어가 가능해야 하는데, 교육 현장에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교사가 거의 없음

- D2는 자신이 번역기를 활용해 아이들과 소통하며 전해 준 진학 정보만으로도 아이들의 진학률과 진학 한 학교에서의 중퇴율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며 전문적인 진학·진로 상담교사의 필요성을 시사함

❍ 경남에는 이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 즉, 한국어 학급이 운영되고,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기숙사를 운영 중인 학교가 매우 부족함. 지역 내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없음. 아이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하려면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임

-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진학 정보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비인가 학교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아이들은 결국 중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일단 언어가 가장 큰 문제에요. 정말 전문적으로 지도해 줄 (이중언어가 가능한) 분들도 안 계시고, 진짜 제가 오만 통역, 번역기 다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 밀착 상담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정식 학교에 안 가고, 학력 인정 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데 가서 나중에 다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일단, 다니기가 힘들고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데는 한국어 학급이 없어요. 근데 제가 조그마한 그런 어떤 정보를 주고, 상담해준 것만으로도 아예 하지 않았을 때랑 아이들 진학률이 달라졌어요. (D2)

◦ 제가 선생님이라도 경남에 한국어 학급이 있고 아이들 갈만한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도 한국어 학급 선생님끼리 연수가 있어서 알 수 있지만, 일반 선생님들은 막막하겠죠. 애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D2)

◦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언어가 안되니까 성적이 거의 바닥이에요. 이 아이들이 기술도 배우고 한국어 학급도 있는 학교로 가려면 지역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선택지가 없어요. 제가 창녕에 있는 사립학교지만, 한국어 학급이 있고 기숙사도 있고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에 아이들을 많이 보냈어요. 여기서 보내고 싶었는데, 여기는 한국어 학급이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건데 일반 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 보니 … 그런데 최근에 ○○고가 미달이 나서 아이들이 거기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반 인문계에 이 아이들이 가서 무슨 수업을 하겠어요. 다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고 선생님들도 굳이 이런 한국어 학급 만들어서 일을 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D2)

□ 이중언어 강사, 교사와 학생의 조력자

○ 이주 배경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은 대체 불가로 교사와 학생 양측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인력임

- 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는 담임교사와 협력 수업을 하고, 학교 폭력 사건 발생 시 통역과 중재 역할을 하며, 가정통신문 번역 등의 업무를 함.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학교 업무 특성상 즉시성이 중요해 가족센터의 통·번역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기는 어려움
- 학생에게 이중언어 강사는 매우 의미가 큰데, D4, D6의 경험에 따르면 부모에게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이중언어 강사를 보호자로까지 인식하기도 함. 이중언어 강사는 아이들에게 보호자와 같은 존재인데, 심리적 안식처이자,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기초 한국어를 모국어로 설명해 주는 사람, 수행평가와 정기시험 대비 공부를 봐주는 사람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중언어 강사는 담임교사랑 협력 수업을 하십니다. 아이 옆에 앉으셔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 번역해 주고, 여기 뭐 써야 한다고 하고. 두 번째가 학교 여러 가지 사정 또 학교 폭력도 일어나고 하면 통역해 주세요. 이번에 외국인 학생들끼리 학교 폭력이 하나 일어났거든요. 이중언어 강사 선생님 안 계셨으면 저희는 못 했을 거예요. 세 번째가 여러 가정통신문이 많이 나가는데, 학교 외국인 학생이 55명 이상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가정통신문 번역을 해주세요. (D1)

◦ 한국어 학급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은 상관없는데,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온 아이들은 처음에 좀 힘들어요. 그 애들한테는 한국어를 베트남 말로 설명하면서 가르쳐줘요. 한국어 학급 선생님이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아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D5)

◦ 이중언어 선생님이 돌보는 학생 수는 학교마다 달라요. 중도입국 학생이 없는 학교면 1:1도 있는데, 저는 레벨이 다 다른 5명을 한 번에 챙기고 있어요. 베트남어도 가르치고, 기말고사 되면 역사, 수학, 과학 아이들이 가져오는 거는 다 봐주고 설명해 주고 공부 도와줘요. (D5)

◦ 수행평가할 때도, 문학 수업 내용을 이해 못 해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아무리 잘해요. 문학 수업에 한자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한자가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교육하고 설명해 주고 하죠. (D6)

◦ 학교에서는 예산 들면서 한국어 수업만 해 달라 하는데, 학생은 한국어 못하니까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해요. 저희는 한국어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통역도 해주고, 심리상담도 해주고 (D4)

◦ 자기도 모르게 “엄마”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저도 받아주죠. (D6)

❍ 이중언어 강사는 학교와 학생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최근 관련 예산이 줄고 있어 서비스 공백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됨

◦ 이번에 예산이 또 줄어서 시간이 80시간으로 줄었어요. 교육청에서 시간 외 3만 원 해서 240만 원밖에 안 주세요. 근데 우리 학교는 3월부터 12월까지 선생님이 다 계셔야 해요. … 가족센터에 통번역 요청 한번 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해라. 그다음에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학교 폭력은 아침에 가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D1)

◦ 서비스가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100시간을 줬는데 올해는 80시간으로 줄었어요. 100시간이면 딱 한 학기 수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애는 한 학기 그냥 방치되거든요. 애는 1학기에만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바뀌면 담임이랑 연계도 잘 안되고. (D3)

□ 교사 개인의 인맥에 의존적인 지역 자원 연계

❍ 교사들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스로 정보를 찾거나 기회를 만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D1이 지역 가족센터와 '인생네컷' 수업을 협력하게 된 계기도 가족센터에서 한국어 학급 담당 교사에게 대상 모집 문의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됨
- D2는 이주 배경 아이들 진학 정보 관련 매뉴얼이나 가이드 없이, 학교 홍보를 위해 방문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알게 되거나, 본인이 찾아서 아이들에게 진학 지도를 하는 상황이라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학교와 학급 교사는 아이들을 지도하기 힘든 상황일 수 있다고 설명함

◦ 가족센터에서 저한테 문의했어요. 3~4학년을 대상으로 '인생 네 컷' 프로그램을 하는데 학생을 좀 모집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러시아 선생님하고 내용을 번역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해 줬는데 너무너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 이제 그럼 우리 학교에서 가족센터까지 가는 거리가 좀 먼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실을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D1)

◦ 저 같은 경우 한국어 학급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 연수에 참여하면서 알음알음으로 정보를 알게 되지만, 일반학급 담임 선생님이나 한국어 학급이 없는 학교 선생님들은 모르죠. (D2)

(3)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수요

□ 이주 배경으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아이를 정책 대상으로

○ 최근 이주 배경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즉, 중간에 들어온 학생을 모두 중도 입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음

○ 용어가 무엇이 되었든 이주 배경으로 인해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 사회에서 살기 위한 자원을 구축해야 하는 모든 아이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중도입국자녀라고 하면 아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저는 이 일을 해서 개념이 명확한데, 일반 선생님들은 중도란 말에, 중간에 들어오면 다 중도 입국인 거예요. (D1)

◦ 처음에는 어디까지가 중도입국으로 봐야하고 이 아이들을 지원해야 하지? 순수 외국인 가정 아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않으면 이 사회가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모두 포용해서 뭔가 제대로 이 사회에 서로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D2)

◦ 국적 보지 말고, 무조건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여기 들어온 학생들. 여기 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적응해야 하고, 학교 수업도 힘들고 하는 학생들 모두를 중도입국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D4)

◦ 좁게 정의하는 것보다 넓게 정의해야 해요. 다른 나라에서 성장하다가 온 아이들은 모두 중도입국 자녀라고 생각해요. (D5)

□ 프리스쿨 운영

○ 면접에 참여한 교·강사는 아이들이 아무 준비 없이 학교에 '수시로' 입학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프리스쿨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함.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예비학교와는 다른 것으로 학교 입학 전에 일정 기간 기초 한국어와 학교생활에 관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학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임

◦ 제가 볼 땐 모든 것이 언어의 문제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로 툭 바로 좀 던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 제가 여력이 안 되면 한국어를 못 가르치고 교실로 보내야 하는데, 한국어가 좀 돼서 학교에 들어온다면 학교도 학생도 훨씬 적응하기 좋지 않을까요? … 제가 이번에

가르쳐 보니 아이들이 의사소통 한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학습 한국어까지 공부를 좀 하고, 교실로 복귀한다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D1)

◦ 중도입국 학생이 왔을 때 무조건 학교에 바로 집어넣지 말고요. 시마다 그런 예비학교들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종일 한국어와 한국 문화생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수료한 다음에 일반 학교에 배치가 되어야 해요. (D2)

◦ 시마다 학교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멀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도 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한국어 수업도 하고, 이 학생이 일반 학교에 갈 수 있겠다 싶은 수준이 되면 보내고. … 그리고 이거는 학교로 가기 전에 무조건 의무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애들을 무조건 보호해 줄 수가 있잖아요. (D4)

□ 한국어 학급 증설 및 한국어 학급 전담 교사 채용

○ 아이들의 한국어 습득 기간을 고려했을 때 한국어 학급 체류 기간은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어 학급 수 증설, 전담 교사 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전담 교사는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사 발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 아이들의 학습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년 순환 근무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함

◦ 아이들이 한국어를 조금 더 능숙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학급 체류 기간을 늘려 줬으면 좋겠어요. 2년으로는 정말 안 돼요. 예산과 관련된 것이지만, 학급 수도 좀 더 늘어야 하고, 선생님도 더 뽑아야 해요. 저 혼자 해서 사실 되게 힘든 게 많아요. 모든 결정을 제가 해야 하니까요. 두세 학급 있으면 선생님이 세 분이라는 이야기니까 서로 모여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게 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D1)

◦ 한국어 학급은 교육청에서 정원 외 교사로 관리하는데,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뽑으라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 의도와 다르게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더 좋은 조건 일자리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한국어 학급 전담 교사로 정규 교사 발령을 내주셔야 해요. 사실 한국어 학급이 모든 학교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분들은 5년 순환 근무하는 것도 풀어주시고, 한국어 학급만 전담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으로 하면, 업무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관계기관들하고 협조도 잘 되겠죠. (D2)

◦ 아이들은 한국어 학급에 최대 2년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기간제니까 계약이 1년마다라서 내년엔 다른 선생님이 오세요. 다른 선생님이 오시면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시 한글부터 시작하니까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요. (D6)

◦ 80시간밖에 안 돼서 … 레벨이 다른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교재 3개까지 해서 동시에 하고 있어요. 한 명 숙제하라고 하고, 옆에 아이한테 설명해 주고, 다른 아이는 읽기 시키고

돌려서 하고 있는데, 레벨 초급, 중급, 고급 따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D5)

□ 상근 이중언어 강사 배치

○ 이주 배경 아이들이 재학하는 학교에서는 이중언어 강사를 필수 인력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들의 역할 범위도 교사와의 협력 수업부터 다양한 문제 발생 시 통역과 중재, 상담을 비롯해 아이들의 한국어 및 교과 학습지원까지 매우 폭이 넓음

○ 한국인 선생님에게 못 하는 말, 하지 않는 말도 이중언어 선생님께는 털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한국어 및 학교생활 적응, 진학·진로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 강사가 지금보다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 학교를 도와주려면 이중언어 강사 선생님을 좀 더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산 문제이지만, 학교의 외국인 학생 수에 비례해서 이중언어 강사를 두세 분까지 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일반 선생님들이 숨통이 터지세요. …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인력풀을 구성해 놓은 것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 창원분이라 창녕까지 안 오세요. 교육청이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좋은 분들을 채용해서 학교에 바로 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담임교사와 협력 수업도 되고, 방과 후에 한국어 수업,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반, 모국어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지요. (D1)

◦ 진로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설정을 해 줄 수 있어야 해요. 학교마다 위센터나 상담 선생님, 진로 선생님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니까, 번역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애들이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말을 안 쓰니까 … 애들이 일반 학급 가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담임 선생님들도 잘 모르세요. 저는 그래도 한국어도 가르치고, 아이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니까, 제가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르게 이야기해요. (D2)

◦ 부모님들한테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해요. (D6)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 설치 및 운영

○ 학교 외에 아이들이 편하게 가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현재 아이들이 학교 외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가족센터인데 이주여성의 초기 적응지원을 위한 기관이다 보니 아이들이 이모뻘 되는 성인과 함께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아울러, 아이들은 이동의 제약이 있어 집에서 멀면 갈 수 없어, 아이들이 집주하는 인근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한국어, 교과 학습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성장 지원과 동시에 한국 적응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끝까지 이렇게 이끌어주고, 성장하고, 이 지역에 남고, 이 지역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나서 갈 데가 없잖아요. 계속 집에서 혼자 머물고 외롭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학교 수업도 못 따라가고. 학교 교과목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센터 같은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과목 따라잡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D6)

◦ 한국어 공부하려면 가족센터 가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선생님 거기 가면 이모들과 같이 공부해서 재미없어요.” 이래요. 가족센터에는 결혼이민자 많이 오잖아요. 경남가족센터에서 토요일마다 아이들 프로그램하는데, 그럼 용원이나 멀리서 사는 아이들은 또 못 와요. (D5)

□ 상담 및 상담 서비스의 홍보

○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이 많음. 이주 배경으로 인한 문화접변 스트레스도 견디기 힘들지만, 가정 문제, 학교 문제 등이 중첩된 아이들은 더욱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이는 문제행동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심리상담이 필요함

○ 가족 상담의 필요성도 제기됨. 결국, 아이의 불안함은 부모의 영향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함. D5는 상담 서비스의 홍보 필요성을 말했는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주 배경 아이들을 비롯한 가족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정보 부족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임

◦ 아이 심리 관심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동자 가족 애들 데리고 왔는데,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학교에서 폭력 받으면 어떡하지? 애들 그런 표정 있긴 한데, 말 안 해줘서 어디 가서 풀어줄 수 있냐. 자기는 다문화가정 아니라서, 가족센터 사용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학교에 위클래스가 있지만 그거는 애가 언어가 안 돼서 문제예요. 상담 선생님도 이중언어 선생님께 연락하거든요. (D5)

◦ 애가 고등학생인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애가 항상 자책해요. 엄마가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 본인은 극복하고 싶고 심리상담을 받고 싶은데 언어가 안되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D4)

◦ 심리상담, 가족 상담 필요해요. (D3)

□ 전문적인 진학·진로 상담

○ 아이들 대부분은 한국으로 편입학 과정에서 한국어가 부족해 학년을 낮추는 경우가 많음. 학년이 낮아지고, 한국어가 안되고, 학업이 안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좌절하고 자아존중감 하락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부적응 상황이 발생함

○ 아이들에게 한국 적응의 동기를 부여하고, 한국에서의 삶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관련 정보를 잘 알고, 그것을 이중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아이들이 한국어를 모르니까 학년을 낮추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길을 좀 잡아주면 좋겠어요. 베트남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여기서 그냥 미래를 포기한다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격려해주고, 미래 잡아주고 직업 체험이나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D5)

◦ 자기 장래 희망을 미래에 어떻게 노동, 직업을 가질 수 있게 (가르쳐주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D6)

□ 한국 친구와 함께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아이들은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귀는 걸 어려워함. 외국인 학생 밀집 학교에 재학하는 아이들은 더욱 그러한데,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지만, 한국 아이들과의 접촉이 많지 않아 사귀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하나의 원인임

○ 한국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함. 아이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함. 이는 한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아이들 역시 외국인 주민과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음

◦ 아이들이 부모 따라와서, 원래 (본국에) 가족이 있기는 한데 부모 다 바빠서 학교 시간 밖에 그 외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같이 체험하고,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D5)

◦ 문화 체험 같은 거. 체육활동, 운동회, 음악, 합창부, 캠프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과 애들이 서로 또 융합하면 편견도 어릴 때부터 깨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같이 어울려 놀고 프로그램하면서 아이들이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렇게 좋

다고 하면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를 알면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D3)

□ 일반 교사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실효성 강화

○ 교사는 아이들에게 매우 큰 영향 요인임. 교사의 관심과 애정, 지도가 아이의 성장, 발달, 진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D4는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교·강사에게는 이들의 인식이 실제로 변화될 방법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요즘 제가 갔던 초등학교는 대부분 다 다문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안 좋은 선생님도 많잖아요. 특히, “나 다문화 학생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강사 선생님 중에도 “나 안 가고 싶다. 다문화니까.”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도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같이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도 의무적으로 매년 받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D4)

3. 소결

○ 본 장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부모, 현장 전문가, 지원 교사와의 면접 내용을 종합하여,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실태 중심으로 재구성함

○ 아이들은 ‘이주’를 경험하면서 성장·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공급되던 안정적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함. 이 충격적인 변화에 대한 아이들의 적응 성과는 다양한데 기질이나 나이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가족, 학교, 사회가 아이에게 얼마나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남

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주 배경

□ 아동·청소년의 이주 배경과 가족구조

○ 면접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이주 배경은 부모의 한국 체류 목적과 자격에 따라 결혼이주자의 자녀(집단 Ⅿ)와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집단 Ⅿ)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집단 M은 모두 재혼 가정 자녀로 엄마가 먼저 한국으로 가고 2~7년 후 초등학교 고학년~중학생 나이에 한국에 입국함. 재혼 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 외국인 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집단 M은 부모와 별거 기간이 최소 2~7년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외조부모와 함께 살다가 한국에 와서 언어가 통하지 않은 새아빠, 이부동생 등과 새로운 가족을 이뤄 함께 살게 됨

○ 집단 W는 중국, 고려인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로 이들은 아빠 또는 부모 모두가 떨어져 엄마 또는 (외)조부모와 살며 2~15년 정도 초국적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다가 부모가 가족 초청 자격을 얻은 후 한국에 입국해 가족이 모두 함께 살게 됨

○ 집단 W 중에는 여전히 초국적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집단도 있음. 일부 러시아권 출신 아이들은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 가족이 인근 국가로 직장을 찾아 흩어져 지내는데, 주로 고려인 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한 엄마와 자녀, 즉 모자 한부모 가정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초국적 가족관계 경험과 한국 정주 의사

○ 부모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국제이주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초국적 가족관계를 경험하는데, 이 관계는 꾸준한 연락과 주기적 만남으로 유지하고 있음

○ 평소에 수시로 전화, 영상통화, 문자, SNS 등을 함으로써 부모는 자녀를 챙김.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족은 연에 한두 번씩 가족들이 한국에 오거나, 한국에 있는 부모가 본국을 방문해 가족 간 밀도 있는 시간을 가짐. 이런 시간은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선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

○ 가족이 한국에서 재결합해 함께 사는 가족은 아이들이 한국에 정주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금도 초국적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은 한국에서의 정착보다는 진학, 취업 등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함

□ 곧 성인이 될 아이들의 체류 자격에 관한 문제

○ 부모와 체류 자격이 연동되는 미성년기 아이들은 체류 자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나, 마냥 마음을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님. 현장 전문가들은 이

주 배경 청소년과 부모에게 곧 성인이 될 테니 지금부터 체류 자격 변경 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나 한국의 비자 제도와 관련해 잘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함

- 실제 면접 참여자 중 한 명은 현재 F-1 상태로 있는 자녀를 언제 F-4로 변경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고, 남편이 E-7 비자로 가족을 초청한 면접 참여자는 남편이 2~3년 안에 영주권을 따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2년 뒤 성인이 될 아들의 체류 자격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음

○ 집단 M은 자녀의 체류 자격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으로 상술한 집단 W와 양상이 다름

- 많은 경우 처음부터 한국 국적 취득을 계획하기 때문에 전 배우자와 친자 소송을 하고, 한국인 남편이 아이를 입양하는 형태로 아이를 데려옴
- 최근에는 성급하게 베트남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이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못 살게 되는 사례가 축적되고 있어, 아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부모도 있음. 즉, 자신이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자녀가 베트남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임

○ 한편, 집단 M에서는 자녀의 체류 자격이 취약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경우 체류 연장을 안 해준다거나, 체류 연장을 무기로 성폭행하고 성매매로 내모는 사례도 발생함

□ 한국에 거주하는 친족 여부

○ 집단 M과 W는 이민자로서의 공통점도 있으나, 체류 목적의 차이에 따른 차이점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 살고 있는 친족 여부임

○ 집단 M은 한국에서 교류하는 친족이 별로 없는 경향이 있음. 새아빠 쪽 친족과의 교류는 거의 없고 결혼 이주로 한국에 이민 온 이모가 있는 경우 이모 가족과 교류하는 정도임

○ 집단 W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직계, 방계가족이 모두 인근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들은 인근 지역에서 모여 살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함께 사업을 하고 있어 친족 간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교류가 잦음. 특히, 아이들은 사촌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안팎에서의 생활과 적응을 서로 돕고 돌보고 있음

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문화접변 특성

○ 아이들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과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를 안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향이 있음. 많은 아이가 입국 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일 년에 가깝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오기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더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음

○ 한국과의 짧은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아이들은 지난한 문화접변 과정을 경험하는데, 이 기간 아이들의 특징은 심리적 불안정과 한국어 학습 어려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심리·정서적 불안정성과 문제행동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 교사, 강사들은 아이들이 심리·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들의 수업 시간 태도는 아주 조용하거나 아주 시끄럽거나 두 종류로 나타남

○ 자신의 생활환경-가족, 학교, 사회-에서 부정적 영향 요인에 중첩적으로 노출되고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분노, 우울감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한편 자해, 자살 충동, 자살, 절도, 게임중독, 성매매, 학교 중퇴 등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심리·정서적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

○ (가족 환경) 가정사가 복잡하거나,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없거나, 부모가 아이에게 경제적 독립을 요구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 아이들은 극심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넘어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기도 함

○ (학교 환경) 한국에 오자마자 최대 3개월 정도의 편입학 준비 과정을 거쳐 학교에 다니는데,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이때 주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 슬픔, 답답함, 좌절감, 위축감 등임

-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 생기는 관계의 문제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해지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그 시기에 받은 수치심, 모욕감, 억울함, 분노 등은 없어지지 않음
-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고 학습이 가능한 것이 아님.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좌절감, 위축감, 낮은 자존감 문제, 우울감 등을 경험하는데, 학습 열망이 큰 아이일수록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사회 환경) 아이들은 '사회적 차별'을 인식하는데, 길거리나 식당 등 모르는 사람에게서 당하는 일은 불쾌함을 느끼나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은 아님. 그러나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사회적 차별을 당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 수치심, 억울함, 분노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 학습 어려움

○ 한국어 학습 양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게서 다르게 나타남. 가장 큰 이유는 언어 학습 성과는 나이와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이 외에도 현장 전문가와 지원 교사는 비교적 학습 부담이 덜 한 초등학생이 한국어를 더 빨리 재미있게 배우는 경향이 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지 학습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함

○ 중고등학생은 한국어 학습과 동시에 교과 학습 부담을 이중으로 받고 있어 더욱 힘들다고 설명함. 한국어 학습 기간에 발생하는 학습 결손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한국어에 숙달하게 되면 학습은 따라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해 부모와 갈등을 빚는 학생도 있음

○ 면접에 참여한 아이들은 한국어 학습 과정을 포함해 5년 정도 지났을 때, 한국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끼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공부는 어렵고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싶다고 말함

□ 한국어 학습 어려움의 주요 원인

○ (한국어 학습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은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급',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데,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음. 학교에 입학하기 전과 학교 재학 여부를 떠나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체계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곳이 없음

○ (수시 편입학의 한계) 전혀 한국어를 못해도 학교의 학사 일정과 상관없이 '수시로' 편입학이 가능하고, 편입학 시점으로부터 출석 일수의 2/3를 채우면 진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음. 현행 체제에서는 학교가 아

이들의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도 아이들이 한국어 학습에 열심을 낼 동기도 부족함. 내용적 측면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함

○ (학교 언어 교육체계의 한계) '한국어 학급'은 최대 2년간 이용할 수 있음. 학급에서 사용하는 표준 교재는 의사소통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 2종이 있는데, 주어진 2년 안에는 의사소통 한국어를 떼는 것도 빠듯한 것이 현실임. 최근, 외국인 학생 급증으로 한국어 학급의 최대 수용인원이 초과하면서 새로운 학생이 한국어 학급에 편성 안되거나, 기존 학생이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해 한국어 학급 교육 서비스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 한국어 학습 어려움에 대한 개별적 대응

○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곳은 주로 학교지만, 2025년 기준 경남지역에 운영 중인 한국어 학급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40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많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경남지역은 학교 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시설,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부모는 지역에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으면 조금 멀더라도 아이를 그곳에 보내고, 한국어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접하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외에는 가족센터나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어 학습지원에 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아이들의 수준별, 나이별 분반에 어려움이 있음

○ 사교육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음. 한국어가 조금이라도 되는 아이들은 인근에서 학원에 다니고, 전혀 안 되는 아이들은 줌(zoom)으로 본국에 있는 한국어 선생님에게 모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음

□ 한국 정주 의사 차이

○ 정주 의사는 문화접변 성과를 엿볼 수 있는 대리 지표로 유용함. 위에서도 초국적 가족관계 경험과 한국 정주 의사와의 관계를 잠깐 언급하였듯이 가족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경우 아이들 역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다른 맥락에서 한국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향수병을 앓는 동시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한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형으로 애착 관계가 형성된 외할머니 곁에 살면서 앞으로 한국으로 올 아이들이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 함
- 극심한 문화접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유형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본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부모가 아이에게 조건을 걸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보내 주겠다는 식의 거래적 대응을 하므로 더욱 마음을 못 잡는 경우가 있음

□ 국적에 관한 정체성

○ 아이들은 국적에 관해 자신이 출생한 국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있음. 국적과 관련한 정체성에 관해 고민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음

○ 고려인 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민족 정체성에 관해 질문했을 때, 자신이 고려인인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아이도 있음. 자기의 뿌리에 관해 잘 모르는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출신국 정체성과 같게 인식함

3) 가족생활

□ 가족구조

○ 집단 M에 속한 아이들은 재혼 가정으로 새아빠, 엄마, 동복동생, 이부동생과 사는 아이들이 많음. 외국인 간 재혼 가정일 경우 새아빠/새엄마와 새아빠/새엄마의 자녀와 가족을 이뤄 사는 아이들도 있음. 한편, 새아빠와 엄마가 별거하는 재혼 가정은 아이가 새아빠와 둘이 사는 경우도 있음

○ 집단 W에 속한 아이들은 한국에서 한부모 가족의 형태로 사는 아이들도 있음. 그러나 많은 경우 부모와 함께 살며, 인근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숙모, 이모, 이모부, 사촌 등 친족이 살아 가까이 지내고 있음

□ 가족 내 주 사용 언어

○ 조사에 참여한 면접자 모두는 집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 이민자가 집 안에서 모국어를 사용하고, 모국어 콘텐츠를 소비하며, 모국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지내는 것은 일견 당연한 현상임

○ 재혼 가정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집에서 2~3개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부 또는 모 외의 가족과 깊은 대화가 어려운 상황임

- 새아빠와는 한국어, 엄마와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고, 새아빠가 한국 사람도 자국 사람도 아닐 경우, 새아빠와는 영어, 엄마와는 모국어 집 밖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음

○ 입국 후 3년 정도가 언어 학습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Chiswick et al., 2006), 비교적 최근 한국에 입국한 아이들이 한국어보다 모국어 사용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이중언어 학습 과정에서 한국어도 늘지 않고 모국어도 완벽하지 않은 더블 리미티드 (double limited)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부모의 직업에 따른 시간 활용 방법

○ 외벌이 가정의 경우, 엄마가 집에서 자녀 돌봄을 전담하고 있고, 아이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외식, 쇼핑, 운동, 산책 등을 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등 가족 간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 일하는 시간이 길어 어른의 돌봄 없이 아이들끼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돌보거나, 조금 더 큰 아이가 동생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가 자영업을 하는 가정도 맞벌이 가정과 유사한 상황임

- 부모가 출근 전 깨워만 주고 가거나, 혼자 알람으로 일어나 아침 식사를 거르고 학교에 감. 부모가 퇴근까지 늦는 경우 저녁 식사는 집 근처 식당에서 혼자 사 먹거나, 엄마가 배달 시켜주는 음식이나 라면으로 해결함

- 하교 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시간은 학원에 가는 아이들도 있으나, 집에서 혼자 핸드폰으로 자국어 콘텐츠를 보거나 놀이터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말도 큰 차이가 없음

- 초등학생이 어린이집 다니는 (친척) 동생 하원을 챙기고,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동생들을 돌보는 한편, 간단한 집안일을 맡아서 하기도 함

□ 아이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공간

○ 아이들 대부분은 어른의 돌봄 없이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길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살고 있는 동네를 벗어나는 일이 잘 없음

○ 아이들이 주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들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아이들이 노출된 환경 속에서는 한국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문화를 접하고 모방하며 배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음

○ 실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외국인 친구들끼리 몰려다니거나, 주변 어른들이 일하는 공장에 취직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즉, 경험이 부족한 이 아이들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롤모델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출신 문화권에 따른 부모 역할 차이

○ 동아시아권 출신 부모들은 교육열이 뜨거운 편이고, 아이들도 규칙에 순응적임. 부모는 아이가 본국에서 공부를 잘한 경우, 한국에서도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고,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압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

○ 러시아권 출신 부모들은 비교적 방임형이라고 할 수 있고, 아이들도 학교의 규칙 준수를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러시아권과 한국의 고등학교 제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녀를 고등학교에 꼭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크지 않아 학생 지도에 학교와 교사의 부담이 큼

□ 부모-자녀 역할 역전

○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이 객관적으로 어떠하든, 부모보다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부모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됨.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해서도 부모는 교사와 직접 소통이 어렵고, 학교에서 발송하는 다양한 정보,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도 자녀의 통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접근력이 떨어지는 부모가 가장 어려운 점은 아

이가 갑자기 아플 때인데, 일단 한국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힘들어함

○ 아이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통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녀는 부모가 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부모화(parentification) 현상을 경험하거나, 몰라도 되는 사회적 멸시와 모욕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정서적 압박을 받게 됨

3) 학교생활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표면적인 시설에 대한 만족으로 아이들은 한국 공립 학교의 시설과 급식 수준이 본국보다 훨씬 좋다고 설명함

○ 그러나 그렇다고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녹록한 것은 아님. 학제, 수업 방식, 학습 방식 등 학교 문화가 국가마다 다르나, 이 다른 문화에 적응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

○ 아이들 대부분은 교사와의 관계도 대체로 만족함. 한국 학교 선생님이 본국에서의 선생님보다 다정하고, 친절하며, 설명도 잘해준다는 이유임. 아이들이 재학하는 학교는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외국인 학생을 위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학교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태도 역시 일반 학교 교사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교사의 관심은 아이에게는 곧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음. 실제 한 아이는 체육 교사의 권유로 역도를 시작하고 선수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고, 한국어 학급 교사의 진학 지도는 아이들의 진학률 변화에 큰 영향을 줌

○ 학교에서 아이들은 담임교사보다는 한국어 학급 교사와 한국어 학급 교사보다는 이중언어 강사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남. 즉,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서 아이들의 속마음과 필요를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중언어 강사, 한국어 학급 교사, 담임교사 순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재학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친구와의 관계

○ 아이들은 주로 본국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와 영상통화, 메시지 등을 수시로 주고받고,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는 등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한국어 학급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과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한국인 아이와 친해지기도 함. 그러나 한국인 아이로서는 외국인 친구에게 학교의 편의시설을 안내해 주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공부를 도와줄 수 없어 부담을 느끼고 결국엔 적정선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인 친구들과 사귀는 게 어려운 이유는 결국 한국어 때문임

- 처음에는 한국어를 몰라서, 한국 친구들에게 말을 틀리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 말을 걸지 못함
- 한국어가 어느 정도 들리기 시작하면, 한국 아이들이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말하지 못해 상처를 받게 되고 다가갈 자신감을 잃음
- 한국어로 듣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도 외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한국 친구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가까워지기가 어렵다고 설명함. 한국 아이들 앞에서 괜히 위축되고 먼저 말을 걸면 한국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선입견을 품게 되기 때문임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수업 만족도

○ 아이들은 수업을 거의 따라가지 못함. 가장 큰 이유는 한국어인데, 한국에서 지낸 지 7~8년이 지나 한국어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도 수업 시간 필기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벅차다고 말함

○ 아이들은 특히 기초학력 과목에 해당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어려워하고, 언어 능력이 크게 필요 없는 음악, 미술, 체육 시간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교사들은 강조함. 한국어는 한자어 기반의 단어가 많아 의미가 추상적이라 아이들이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한국어로 배우는 영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고, 한국의 서술형 수학 교육,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배우는 사회 역시 녹록지 않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 열망

○ 면접에 참여한 아이들 대부분은 매일 오전 2시간씩은 한국어 학급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로, 3교시부터 본 교실에서 듣는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음. 한국어 학급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한국어 학급을 이용하는 동안 발생한 학습 결손을 보충하지 못해 수업을 따라가는 것에 역부족을 느낌

○ 그렇다고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이 아님.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국어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열심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는 아이들의 규모를 보면 아이들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함

○ 한국어가 미숙해 교과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기초 교과를 모국어로 가르쳐주는 학원에 다니거나, 유튜브에서 모국어로 된 수업을 찾아 듣거나, 줌(Zoom)으로 본국의 과외 교사와 유사 진도에 관한 공부를 하는 등 나름의 방법으로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있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고등학교 진학

○ 아이들은 한국어 역량, 성적, 그리고 학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학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 중학교에서 아이들의 진학 상담을 하는 한국어 학급 교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믿을만한 교사의 진학 상담 없이 이 세 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학을 결정한 경우,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높음
- 아이들의 진학 상담 및 진학 지원은 학교 내 시스템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학급 교사의 열정, 정보력, 역량 등에 달려 있으므로, 한국어 학급 담당 교사가 바뀌면 아이들에 대한 진학·진로 상담 지원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 아이들을 지원하는 가족센터와 같은 유관 기관에서도 진학·진로를 상담하지만, 학교 교사만큼 정보가 풍부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이주 배경 청소년은 관외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가진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임

- 아이들은 일반고등학교에 갈 성적이 되지 않기도 하거니와 고등학교에 가서도 한국어 학급에서 한국어를 더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관내는 물론 경남지역 전역에 한국어 학급이 설치된 일반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임. 즉, 관내 일반고등학교는 이주 배경 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전혀 없어 아이들이 적응하기 어려움
- 특성화고등학교도 김해와 창녕 이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관외로 갈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교사는 한국어 학급도 운영하고, 아이가 배우고 싶은 전공이 있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학교가 운영하는 기숙사에 이주 배경 청소년의 입소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의 진학 선택폭은 매우 좁은 실정임

□ 학교 밖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되는 이유

○ 상술한 바와 같이 학교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거점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학교 밖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아이가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되어 취학 연령임에도 부모가 애초에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경우
- 편입학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학력심의위원회가 학년을 자신의 나이보다 낮춰 결정하면 편입학 자체를 보류하는 경우가 있음. 주로 러시아권 출신 아이들이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과 러시아 학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임. 따라서 러시아권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왔다면, 본인이 고등학교 진학 대상자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중고등학교에 다녀도 한국어가 늘지 않고, 수업을 이해할 수 없어 학교에 다니는 재미와 의미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

4) 사회·경제적 활동

□ 사회적 활동 경험 부족

○ 아이들은 학교를 제외하고 주로 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과일 따기, 영화 보기, 작은 운동회, 캠프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내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일부 있었고, 지역 공공도서관, 청소년 지원 시설 등을 이용해 본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청소년증을 아는 아이도 없었음

□ 경제적 활동 경험

○ 일부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는데, 방과 후에 시간이 많아 아르바이트했다는 아이도 있고, 부모가 돈을 벌기를 원해서 일을 찾는 아이들도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이들의 이와 같은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반을 운영해 아이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함. 이 프로그램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한 아이는 '당근'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함

○ 한국어가 잘 안되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는 일은 배달인데, 현장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직업과 직장을 갖기 위해 한창 준비되어야 할 시기에 아무런 자원 없이 배달, 공장 노동자 등으로 일을 시작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

5) 정책 수요

□ 한국어 학습 기회 확대

○ 아이들은 한국어 학습 기회가 확대되기를 원함. 한국어 학습 시간 확대, 수준별 한국어 학습지원, 한국어 학급이 없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위해 학교 외 다른 곳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

○ 현장 전문가와 지원 교사 역시 현재 한국어 교육체계의 한계와 문제를 언

급하면서 한국어 교육 지원 공공서비스의 다각화와 아이들의 실질적 학습권 보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직업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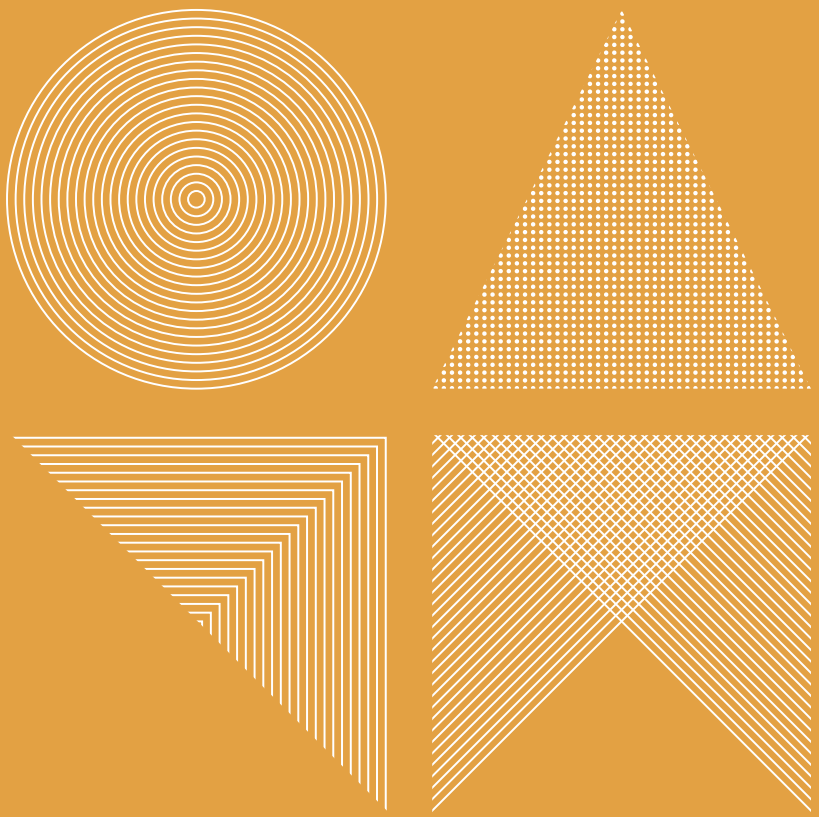
○ 한국에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직업에 관해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희망함

○ 특히, 부모들은 자신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접근할 수 없는 진학, 진로 정보를 제공해 주길 희망하고 있었고, 가능하다면 필수 정보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모에게도 다국어 문자 서비스를 해주길 희망함

□ 상호문화 이해와 자신감 제고 지원

○ 아이들은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함. 한국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다름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해야 한국 사회와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아울러, 한국 사회도 자신들이 누구이고 한국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고 이해해 주기를 희망함



V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일본 사례

V.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일본 사례

1. 사례연구 개요

1) 목적

- ❍ 최근 경상남도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이들의 국적, 언어, 이주 시기, 이주 원인, 문화적 배경이 다양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
-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성인과는 달리 가족관계, 공교육, 학교생활, 교우 관계, 가능성을 탐색하고 꽃피울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기회 등 다영역에 걸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
-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령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요구되며 한국어 수업, 교과수업 외에도 특히 정서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 본 장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증가와 다양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와 오사카시(大阪市), 하마마츠시(浜松市),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인 아이치현(愛知県) 총 3개의 지자체를 사례로 분석함
- ❍ 일본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경상남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사례 선정 이유

□ 사회의 다문화화와 다문화정책의 유사성

- ❍ 일본은 1980년대부터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이고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공간인 지지체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추진해온 경험이 있음(이지영, 2017: 179~200). 또한, 1990년대부터 연수생제도를 도입해 남미 국가들의 일본 이주민의 후손들, 즉 닛케진(日系人)을 이주노동자로 수용했으며, 2000년대 기능실습생제도를 운영하면서 중국, 필리

핀, 베트남 등 아시아로부터 대량의 이주노동자를 유입, 다문화공생정책을 시작함(이지영, 2012: 269~271).

○ 이러한 일본의 이주민 정책은 한국의 정책참조의 대상이 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의 수용과 연수생제도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양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그에 대응하는 다문화정책이 초기 국가주의, 혈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유사성을 가져옴

□ 공교육 현장에서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급증과 다양화

○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이주노동자의 필요가 더욱 증대되고 단기 순환 이주에서 정주 및 영주로 이주노동자의 이주 패턴이 바뀌면서 공교육 현장에서 그들의 자녀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급증함

○ 또한, 결혼이민이 본격화된 지 20년간 결혼이민자는 신규입국 결혼이민자 감소,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귀화자 증가, 결혼이민자의 적응 수준 분화, 학령기 자녀 증가, 한부모 가족 발생, 재혼 가족 출현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이혜림, 2022)

□ 교육의 권리라는 인권 차원에서의 접근의 필요성

○ 공교육 현장에서 이주 시기,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부족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는 미취학, 모국어와 한국어·모국어와 일본어의 이중 제한, 학교밖청소년, 중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제는 국가주의, 혈통주의에서 벗어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개개인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권리라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최근 10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 NPO가 상호 연계하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음. 정부는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공교육에서의 일본어 지원과 교과 학습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개정하고, 지자체는 교육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학교에서의 적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용하는 한편 NPO는 일본어와 교과 학습지원 외에 모어 학습지원, 정서적 지원, 문화 활동과 진로 및 취업 지원 등 다영역에 걸친 세심한 지원으로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음

○ 이러한 일본의 사례 분석은 유사한 다문화사회의 경로를 걸어온 한국과 특히 최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경상남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3) 사례 분석 틀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현황

○ 일본에서는 공교육 현장에서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해 공립 초중고교의 각 재학생 수와 일본어 학습지원이 필요한 아동·학생 수를 조사 공표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음

○ 일본 사례 분석에 있어서 우선 일본 전체, 오사카시, 하마마츠시, 아이치현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공립 초중고교의 재학생 수와 일본어 학습지원이 필요한 아동·학생 수를 파악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오사카시와 하마마츠시, 아이치현의 경우는 각각의 다문화공생정책 관련 부서 및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문부과학성-광역자치단체·교육위원회-기초자치단체·교육위원회-공립학교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

○ 분석의 중심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생활 공간인 지자체임. 각 지자체에서 행정, 기업,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NPO, 지역의 민간단체, 자원봉사자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어떻게 연계해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함

4) 분석 방법

□ 문헌 연구

○ 일본 문부과학성과 오사카시, 하마마츠시, 아이치현 각 교육위원회의 이주 배경 아동·학생 관련 1차 자료 분석

○ 오사카시, 하마마츠시, 아이치현의 다문화공생정책 관련 1차 자료 분석

□ 현지 조사

○ 본 연구는 오사카시, 하마마츠시, 아이치현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문헌 연구를 보완하고 자료 수집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시행함

○ 현지 심층 면접조사의 구체적 일정과 대상은 다음과 같음

〈표 Ⅴ-1〉 심층 면접 일정 및 대상

면접 일시	면접 대상	면접 장소
2025.08.19. 10:30~12:00	오사카시 이쿠노구 NPO법인 이쿠노파크 송오 사무국장	이쿠노파크 사무국
2025.08.19. 16:00~17:00	하마마츠시 교육위원회 학교교육지원과 외국인지원그룹 에마 나리아키(江間成昭) , 오이시 미야(大石みや) 주간	하마마츠시청 7층 회의실
2025.08.20. 10:00~12:00	하마마츠시 NPO법인 외국인아동교육지원협회 데라사와 마사코(寺澤昌子) 대표, 사와네 요코(澤根容子) 모어지도자, 사토 이츠오(佐藤一央) 일본어지도자	하마마츠시립 스나오카(砂丘) 초등학교 1층 사무국
2025.08.20. 16:00~18:00	아이치야간중학을이야기하는모임 사사야마 에츠코(笹山悦子) 대표, 다카하시 류스케(高橋龍介) 회원, 유카 회원	야간중학 처음한걸음 사무국
2025.08.21. 14:00~15:30	아이치현 다문화공생추진실 하야시 유타카(林大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 교과지도·인권교육 가토 마키에(加藤牧枝) 주사	아이치현 서청사 7층 다문화공생추진실

○ 현지조사에서는 〈표 V-1〉과 같이 하마마츠시, 아이치현의 교육위원회 담당자와 다문화공생정책 담당자, 그리고 행정과 긴밀하게 연계하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일본어 학습지원에서 상담, 생활 지원, 정서적 지원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각 지역의 NPO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함

2. 일본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사례 분석

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의

□ 외국인 아동·학생

○ 일본에서는 다문화자녀나 중도입국자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 일본 정부는 일본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의 아동·학생 및 일본 국적이어도 부모의 한쪽이 외국 국적인 아동·학생을 외국인 아동·학생으로 정의함

□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

○ 한편 문부과학성은 공립학교에서 일본어를 못하거나 일본어가 충분하지 않아 학교생활과 교과 학습이 어려운 아동·학생을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으로 정의함

○ 그러나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은 외국인 아동·청소년 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 일본인 귀국 자녀 등을 포함해 그야말로 일본어를 못하거나 일본어가 충분하지 않아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이주 배경 아동·학생을 가리킴

□ 외국에 뿌리를 둔 아동·학생

○ NPO, 시민 사회에서는 외국인 아동·학생이라는 용어는 혈통주의가 강하다고 해서 '외국에 뿌리를 둔 아동·학생(外国にルーツをもつ子ども)', 또는 '외국과 이어진 아동·학생(外国につながる子ども)'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옴

□ 다문화·다언어 아동·학생

○ 문부과학성은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이 급증하고 다양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에서 2025년 4월부터 '다문화·다언어 아동·학생(多文化·多言語の子どもの)'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2) 일본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현황

□ 공립학교 재적 현황

○ 문부과학성은 〈표 Ⅴ-2〉와 같이 공립 초중고교, 그리고 특수학교, 2016년부터 제도화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합교인 9년제 의무교육학교, 그리고 1999년에 도입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교인 6년제 중등교육학교별로 재적하는 이주 배경 아동·학생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일본 공립학교의 재적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15년 76,282명에서 2024년 138,714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6만 2천 명 증가함

〈표 Ⅴ-2〉 일본 공립학교의 재적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수

(단위 : 명)

구분	2015	2018	2021	2024
합계	76,282	93,133	114,853	138,714
초등학교	45,267	59,094	74,683	90,367
중학교	21,437	23,051	28,101	33,353
고등학교	8,725	9,614	9,926	11,759
특수학교	722	897	1,278	1,816
의무교육학교	0	326	683	1,236
중등교육학교	131	151	182	183

출처) 文部科学省(2025a), p.1에서 작성

□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의 실태

○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은 〈표 Ⅴ-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37,095명에서 2023년 69,123명으로 늘어남.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 가운데 일본 국적은 같은 기간 1.4배 증가한 것에 비해 외국적 아동·학생의 경우는 2배가 증가함

〈표 V-3〉 일본 공립 학교의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2014	2016	2018	2021	2023
합계	37,095	43,947	51,126	58,307	69,123
일본 국적	7,897	9,612	10,371	10,688	11,405
외국 국적	29,198	34,335	40,755	47,619	57,718

출처) 文部科学省(2025a), p.2에서 작성

○ 공립 초중학교의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 국적의 아동·학생은 51,510명으로, 언어별로 살펴보면 포르투갈어 11,054명, 중국어 10,652명, 필리핀어 7,630명, 베트남어 3,504명, 스페인어 3,353명, 영어 2,494명, 일본어 2,494명, 한국·북한어 417명, 기타 9,452명으로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공립 초중학교의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일본 국적의 아동·학생은 10,589명으로 모어별로는 일본어 3,319명, 필리핀어 1,995명, 중국어 1,755명, 영어 1,578명, 포르투갈어 505명, 스페인어 339명, 베트남어 213명, 한국·조선어 169명, 기타 716명임

○ 기타에는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네팔어, 벵골어, 몽골어, 러시아어, 아랍어, 우크라이나어 등등이 포함되어 최근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다양화가 증대되고 있음

□ 진로와 취업 실태

○ 공립학교에서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급증, 다양화함에 따라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도 증가하고 학령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과제가 대두함

○ 2023년도 문부과학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령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150,695명으로 이 가운데 8,601명이 미취학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중학생의 진학률은 99%인 것에 비해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진학률은 90.3%이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각각 75%와 46.6%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등학생의 중퇴율은 1.1%인 것에 반해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는 8.5%로 높음. 또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3.1%지만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고교생은 38.6%로 매우 높음

○ 진학도 취직도 하지 않은 학생은 6.5%인데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는 11.8%임

○ 이같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미취학률 증가와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중고교생의 낮은 진학률, 높은 중도 퇴학과 비정규직 비율,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배움의 인권과 빈곤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3)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1) 특별교육과정의 도입과 개정

□ 특별교육과정 도입 배경

○ 일본에서 외국인은 자녀의 취학 의무에서 제외됨. 제도적으로 외국인 자녀의 의무교육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국제이주의 증대에 따라 공교육 현장에서 일본인 귀국 자녀와 외국인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일본어 지도 요구가 커짐

○ 2012년 5월 기준,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귀국 자녀·학생 수는 6,171명으로 2003년에 비해 2.13배 증가, 외국인 자녀·학생 수는 27,013명으로 1.41배 증가함

○ 2014년 1월,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편성, 실시하기 위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고 공포됨

□ 특별교육과정의 내용

○ 특별교육과정은 〈표 Ⅴ-4〉와 같이 공립학교의 교육에서 일본어 지도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함

〈표 Ⅴ-4〉 특별교육과정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교육과정상의 위치	초중학교, 중등교육학교의 전기 과정 또는 특수학교의 초등부 또는 중학부에서 편성 가능
일본어 지도자	교원면허를 가진 교원 및 지도보조자
일본어 수업시수	연간 10단위 ~280단위
지도형태 및 장소	아동·학생의 재적 학교에서 특별반 편성 지도가 원칙
지도계획 및 학습평가	지도계획 및 실적은 학교 설치자에 제출

출처) 小島祥美(2015), p.63.
주) 1단위의 시간은 초등학교 45분, 중·고등학교는 50분이 기준이지만 실제 운용은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별교육과정의 개정

○ 2021년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외국인 아동·학생 등의 교육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공립 고등학교의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2010년 2,224명에서 2021년 4,808명으로 10년간 2.7배 증가했으나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 중 특별한 지도를 받는 학생의 비율은 6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높은 고등학교 중퇴율, 졸업 후의 낮은 진학률, 높은 비정규직 취직률의 문제가 인식됨

○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 배경 청소년은 장래에 걸쳐 일본에 거주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향후 일본을 형성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함

○ 2022년 3월, 문부과학성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등학교에서 특별교육과정을 편성, 일본어 지도가 가능하게 함

○ 2024년 4월부터 공립 고등학교에서 〈표 Ⅴ-5〉와 같이 개정된 내용의 특별교육과정 운용 개시

〈표 Ⅴ-5〉 공립 고등학교 특별교육과정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교육과정상의 위치	◦ 일본어 지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추가 또는 그 일부로 대체할 수 있음 ◦ 특별교육과정에 의한 일본어 지도를 필수 이수 교과·과목, 종합 탐구 시간, 특별활동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취득 단위 수는 21단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졸업 이수 단위(74단위 이상)에 포함할 수 있음
일본어 지도자	◦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일본어 지도의 전문 지식이 있는 외부 인재
일본어 수업시수	◦ 연간 10단위~280단위
지도형태 및 장소	◦ 재적 학교 및 타교에서 지도
지도계획 및 학습평가	◦ 일본어 능력에 따라 지도 목표·지도 내용을 명기한 '개별 지도계획'을 작성 ◦ 일본어 능력 등을 다면적 관점에서 파악해서 학습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단위를 인정

출처) 文部科学省(2022), p.14에서 작성

(2) 의무교육기회확보법 제정

❍ 1966년에 학제에서 야간 중학교가 폐지되었으나 미취학, 학교 밖 청소년, 의무교육 과정 중퇴 등으로 학령기가 지나버려 의무교육 미수료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문제가 조명됨

❍ 전국 야간 중학교 연구회는 2003년에 일본 변호사연합회에 '의무교육 미수료는 인권침해'라고 인권 구제신청서를 제출함. 이에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2006년에 '학령기에 수학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함

❍ 2014년에 초당파의 '야간중학 등 의무교육 확충 의원연맹'이 발족, 2016년에 「의무교육기회확보법(의무교육 단계의 보통교육에 상당하는 교육 기회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동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야간 중학교 취학 기회 제공을 의무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위해 공립 야간 중학교 설치 운동이 확산, 2024년 현재 18개 도도부현, 13개 정령(政令) 지정도시[14]에 총 53개교의 공립 야간 중학교가 설립됨(高橋龍介, 2025)

○ 야간 중학교도 일반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중학교임. 주 5일간 수업이 있고, 교원면허를 소지한 교원이 가르침. 공립의 경우 수업료는 무료이며 모든 과정을 수료하면 중학교 졸업으로 학력이 인정됨

○ 최근 미취학, 중도 퇴학, 학교밖청소년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의 학습 기회 확보 차원에서 그 역할이 중시되고 있음(政府広報オンライン 홈페이지)

(3) 일본어 지도 교원의 정수화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증가를 배경으로 2017년에 「공립 의무교육 제학교의 학급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26년을 목표로 이주 배경 아동·학생 18명당 교원 1명을 정수화함

○ 지금까지 예산 조치에 따라 변동하기 쉬웠던 일본어 지도 교원의 배치가 법률에 의해 정수화됨으로써 일본어 지도의 내실화를 꾀함(文部科学省 홈페이지)

(4) 귀국 및 외국인 아동·학생 등에 대한 지원 사업

○ 2025년도 보조금은 11억 5,400만 엔으로 총사업비의 1/3을 지원함

○ 지원 사업은 △일본어 지도보조자 및 모어 지도자의 파견,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학교(pre-school) 개최, △부모-자녀 일본어 교실 개최, △온라인이나 다언어 번역시스템을 활용한 일본어 지도, △고등학생에 대한 일본어 지도와 △진로지도 등임

14) 정령지정도시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제252조)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로 규정된 시이다. 정령지정도시는 15개 사무를 정령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다. 15개 사무는 아동복지, 민생위원, 신체장애인복지, 생활보호, 여행 중의 환자 및 사망인 취급, 모자가정 및 과부복지, 모자보건, 장애인 자립지원, 식품위생, 묘지・매장 규제, 유흥업소・여관 및 공중욕탕의 영업 규제, 결핵예방,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옥외광고물 규제 등이다.

〈표 Ⅴ-6〉 공립학교의 일본어 지도보조자(일본어 지도를 지원하는 외부 인재)

(단위 : 명)

연도	총수	고용 형태				
		상근	회계연도 임용직원	자원 봉사자	타기관으로부터 파견	기타
2023	5,902	324	1,818	1,949	868	943
2025	7,837	394	2,413	2,697	1,264	1,069

출처) 文部科学省(2025a), p.25.

〈표 Ⅴ-7〉 공립학교의 모어 지도자(모어 지도를 하는 외부 인재)와 지도 언어

(단위 : 명)

연도	총수	고용 형태				
		상근	회계연도 임용직원	자원봉사자	타기관으로부터 파견	기타
2023	5,484	14	1,862	1,910	675	1,139
2025	6,266	45	1,746	2,123	703	1,533

연도	언어별 모어 지도자							
	영어	한국/조선어	스페인어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포루투갈어	기타
2023	1,524	220	517	1,672	578	372	800	1,238

출처) 文部科学省(2025a), p.25.

4)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1) 문부과학성

○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참고 자료 개발과 작성

□ 'JSL(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커리큘럼'

○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아동·학생들의 일상 회화는 할 수 있어도 학습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함

○ 2001년도부터 커리큘럼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 초등학교편이 2003년 7월에, 중학교편이 2007년 3월에 공표됨

○ 이 커리큘럼은 '주제형'과 '교과 지향형'으로 구성됨. 전자는 교과목을 불문하고 체험·탐구·발표를 통해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힘을 육성하고자 함. 후자는 각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국어·사회·수학·이과·영어 등에서 학습활동에 참가하는 힘을 기르고자 함. 이 두 가지 커리큘럼은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음(文部科学省 홈페이지)

□ '외국인 아동·학생 수용을 위한 안내서'

○ 2011년에 외국인 아동·학생을 받아들일 때 일본어 지도 담당 교사, 학급 담임, 학교 관리직, 교육위원회 담당자, 각 관계자가 대응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작성

○ 2018년에 외국인 아동·학생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

○ 2022년 고등학교용 '고등학교 외국인 학생 수용을 위한 안내서' 작성

□ '특별교육과정 편성·실시'

○ 2014년에 의무교육과정에 도입된 특별교육과정의 내용 설명을 위해 작성

○ 2022년 고등학교 특별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고등학교의 일본어 지도·학습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 '외국인 아동·학생을 위한 JSL 대화형 평가 DLA
(Dialogic Language Assessment for 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 도쿄외국어대학에 위탁해 2010년~2012년까지 일본어 지도의 기준이 되는 일본어 능력 측정 방법을 개발, 2014년에 공표함

○ 2025년에 일본어 능력 측정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인지적인 발달의 밑받침이 되는 언어의 힘을 평가하고, 개개인에게 대응한 학습·지도 계획을 세우는 한편 아동·학생의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존중하고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외국인 아동·학생을 위한 JSL 대화형 평가 DLA'로 개정(文部科学省, 2014; 2025b)

□ '외국인 아동·학생 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양성·연수 모델 프로그램'

○ 2019년에 개발이 완성됨. 주요 내용은

- 외국인 아동·학생 교육의 과제

- 외국인 아동·학생 교육의 배경·현상·시책
- 학교 수용체제
- 문화적응
- 모어·모문화·정체성
- 일본어지도 계획 및 실시
- 재적학급 학습지원
- 사회참여와 커리어교육
- 보호자 및 지역과의 네트워크
- 현장에서의 실천
- 성장하는 교사 등

(2) 도도부현

❍ 교육위원회[15]를 중심으로 문부과학성과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를 연계하며 시정촌을 지원

❍ 문부과학성의 가이드라인, 안내서, 매뉴얼, 지침 등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도부현의 추진 방침을 책정

❍ 도도부현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제를 정비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재 확보와 육성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이 어려운 시정촌의 경우, 인재 파견, 보조금 지원,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을 시행

(3) 시정촌

❍ 교육위원회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지역 기업, 국제교류협회, 지역 단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NPO,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연계하고 자원과 역량을 공유하며 다채로운 지원책을 시행

15)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설치되는 합의제의 집행기관으로 생애학습, 교육, 문화, 스포츠 등 폭넓은 시책을 전개하고 있음. 지자체 수장으로부터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교육행정의 중요 사항과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장(教育長)이 구체적인 사무를 집행함. 월 1~2회의 정례회 외에 임시회, 비공식 협의회를 개최함. 교육장 및 교육위원은 지자체의 수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데 임기는 교육장은 3년, 교육위원은 4년으로 재임이 가능함

- ○ 시교육위원회는 일본어 지도, 학습지원, 모어 지도 사업을 위탁운영
- ○ 일본어 지도 거점 학교 설치, 운영
- ○ 초등학교 입학 전 이주 배경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학교를 위탁운영
- ○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이주 배경 중학생을 위한 초기 지원 학교 설치, 운영
- ○ 공립학교에 일본어 지도사, 모어 지도자 파견
- ○ 지역 기업 직원들의 사회활동의 장으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NPO를 연계
- ○ 시교육위원회, 국제교류협회, NPO, 학교, 지역 단체 등 지역 주체로 구성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의체 조직
-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자긍심을 가지고 가능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롤모델 발굴 및 홍보

3. 일본 지자체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사례 분석

1) 오사카시

(1) 오사카시의 특징

□ 식민 지배 역사에 기원한 재일코리안 집주 도시

- ○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하에 지리적 접근성과 산업도시의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 강제 동원 등의 이유로 조선인들이 오사카에 대규모로 이주, 집주함. 특히 오사카부(大阪府)의 부청 소재지인 오사카시에 재일코리안의 집주 지역이 형성되었는데 오사카시의 24개 행정구 가운데 이쿠노구(生野区)는 거주 이주민의 90% 이상이 재일 코리안이었음
- ○ 2024년 12월 현재 오사카시의 인구는 279만 명이며 이주민은 160개 국·지역 출신 18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6.8%를 기록, 오사카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20개 정령 지정도시 가운데 이주민이 가장 많음

□ 공립학교 ‘민족학급’ 최다 개설 도시

○ 재일코리안 집주 도시에서는 공교육 현장에서 우리말과 역사, 문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높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립 초중교에 민족학급이 개설됨. 1950년에 33개 공립학교에서 민족학급을 시작한 오사카시는 2010년에는 100개가 넘는 공립 초중교에서 민족학급을 운영했고, 50명의 민족 강사가 우리말과 역사, 문화를 교육함

○ 현재는 재일코리안이 감소하고 중국, 필리핀 아동·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민족학급은 국제클럽(国際クラブ)으로 변경됨

○ 일찍부터 다문화 도시였던 오사카시의 민족학급 운영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의 토대를 이룸

□ 다문화공생과 인권, 다양성 존중

○ 오사카시는 다문화공생정책의 틀 내에서 인권과 다양성 존중을 명시하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강화해옴

○ 2016년에는 타 도시에 앞서 혐오 표현에 대한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0년에는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가 매력인 다문화공생도시를 지향하며 ‘오사카시 다문화공생 지침’[16]을 제정함

(2) 오사카시의 사례 분석

가. 오사카시 이주 배경 아동·학생의 현황

○ 오사카시립 초중교의 외국인 아동·학생은 2024년 현재 5,350명으로 전년대비 946명 증가함. COVID-19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음

○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3,228명, 한국·북한이 892명, 베트남 362명, 네팔 265명, 필리핀 240명임. 민족학급을 운영할 만큼 역사적으로 다수였던 재일코리안은 감소하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다양화하고 있음

16) 오사카시가 다문화공생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음

나. 오사카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정책

○ 오사카시의 일본어 지도를 위한 특별교육과정의 실시율은 2018년 78.9%였으나 2년 만인 2020년에는 96.1%에 달함

□ 지원 시설

○ 오사카시는 2020년에 외국에서 편입·전입학하는 아동·학생을 지원하고 공생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4곳의 공생지원거점을 설치함. 2021년부터는 모어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상담, 진학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경력지원코디네이터와 미래공생교육통괄코디네이터의 배치를 시작, 2023년에 4곳 전부에 각각 1명씩 배치 완료함

○ 2020년에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의 교육거점학교(教育センター校) 12개를 신설, 2024년에 17개까지 증설함

□ 언어 지원

○ 오사카시에 편입·전입학하는 아동·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재적하게 될 학교의 관리직, 교직원, 지도주사(指導主事), 교육거점학교 교원, 통역이 동석하는 초기 면담을 하게 됨

○ 면담을 마치면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의 아동·학생은 공생지원거점에서 하루 5단위, 연속 10일간 합계 50단위의 기초 일본어 학습과 일본의 학교생활, 학교 시스템과 문화에 적응하는 예비학급(pre-class)에 참여함

○ 예비학급이 종료 후 일본어 지도는 입학한 학교가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면 학교별 특별교육과정에서 일본어 지도를 받게 됨.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는 오사카시교육위원회에서 일본어 지도자를 파견, 초등학교 1학년~3학년생을 대상으로 주 2회, 총 25단위까지 일본어 학습을 지원함.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생은 주 1, 2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본어지도교육거점학교에 다니면서 담당 교원으로부터 일본어 지도를 받음

○ 편·입학 당시 기초 일본어가 가능한 아동·학생은 예비학급, 일본어 지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 교과 학습의 이해를 위해 JSL 커리큘럼 일본어와 모어 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생이 대상이며 주 2회 최대 연간 64회(128단위)까

지 교과 수업 중에 또는 특별반에서 실시됨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Ⅴ-1] 오사카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의 학습지원 과정

□ 교과 학습지원

❍ 한편 오사카시는 미취학과 중퇴 등으로 학습의 기회를 상실한 이주 배경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부터 덴마(天満)중학교, 히가시이쿠노(東生野)중학교, 신와(心和중)중학교에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야간학급을 개설함

다. 오사카시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다양화, 정주화, 그리고 시교육위원회와 행정, 학교 시스템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사카시는 NPO와 지역 단체, 기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음(大阪市홈페이지; 大阪市 2020)

□ 다문화공생의 지역 거점, 오사카 이쿠노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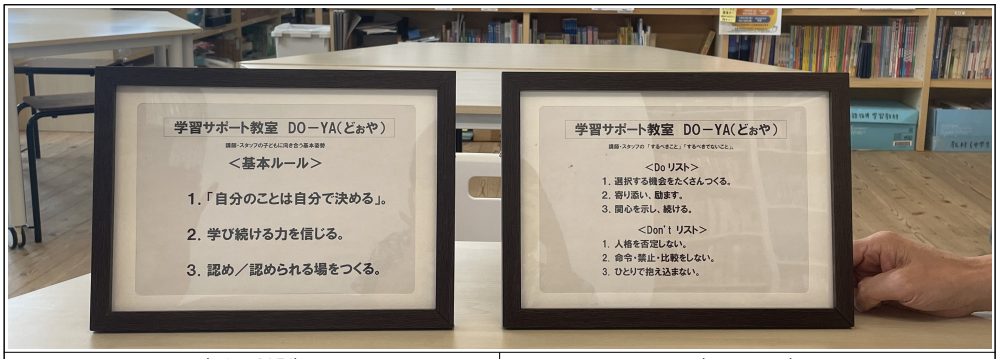
○ 오사카시 이쿠노구는 주민 12만 6천 명 중 외국인 주민은 2만 9천 명으로 전체 주민의 23%를 넘음. 일본의 1,700여 개 시정촌 가운데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전국 1위임. 30년 전에는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이 재일코리안이었으나 현재는 60% 정도로 감소했으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출신 외국인 주민이 많아져 다문화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쿠노의 공립 초중학교에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이 급증함. 오사카시에는 일본어교육 거점학교가 17곳 개설되어 있고 선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급증하는 이주 배경 아동·학생의 국적과 일본어 능력이 다양해서 대응과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주 배경 아동·학생 지원이 축소되거나 질적인 부분이 담보되지 못하는 과제가 대두함

○ 2021년에 오사카시는 이쿠노 소재 오사카시립 미유키모리(御幸森)초등학교가 폐교되자 폐교 활용사업을 민간 공모로 추진함. 이쿠노에서는 오랫동안 시민섹터가 지역 활동을 해왔는데 폐교가 기업이나 사립학교에 낙찰되면 시민섹터 활동의 중심지가 없어지게 된다는 문제 인식을 하고 지역 NPO인 이쿠노플랫이 시민섹터, 교육섹터, 기업섹터와 연계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글로벌타운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60개 후보 가운데 이쿠노플랫이 선정되어 2022년에 다문화공생의 거점 이쿠노파크를 설립함

○ 이쿠노파크는 이주 배경 아동·학생에 대한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의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야(どうや)를 시작함. 도야에는 2024년 현재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168명이 다니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생이 절반 정도를 차지함.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재일코리안, 베트남, 네팔, 필리핀 순으로 많음

○ 도야는 동조의 압력이 강한 학교의 가치관이 아닌 이주 배경 아동·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며 〈표 Ⅴ-8〉과 같이 일본어 학습과 교과 학습을 지원하며 다양한 체험활동도 함께 하고 있음



〈기본원칙〉	〈Do-List〉
1. 자신의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 2. 배움을 지속하는 힘을 믿는다. 3. 인정하고/인정받는 장을 만든다.	1. 선택의 기회를 많이 만든다. 2. 다가가고 격려한다. 3. 관심을 보이고 계속 관심을 갖는다. 〈Don't-List〉 1. 인격을 부정하지 않는다. 2. 명령, 금지, 비교 하지 않는다. 3. 혼자서 다 끌어안지 않는다.

출처) 연구자 촬영/번역

[그림 Ⅴ-2] 이쿠노파크 도야의 가치

〈표 Ⅴ-8〉 이쿠노파크 도야의 활동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지원 요일	화, 목, 토	화, 목, 토
지원 시간	오후 2시 30분 ~ 5시 20분	오후 5시 30분 ~ 7시 00분 오후 7시 20분 ~ 8시 50분
수업료	월 1,000엔	중학생: 월 10,000엔 고등학생: 월 5,000엔
체험학습	매월 1회	매월 1회

출처) 이쿠노파크 사무국장 인터뷰 내용에서 작성

□ 지역 주체들의 연계

○ 도야의 일본어 학습지원에는 오사카대학과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세미나 수업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또한 오사카대학 인간과학부의 '복지와 인간학'이라는 수업에서는 주 1회 다문화공생 수업을 이쿠노파크에서 진행함. 그리고 간세이가쿠인대학(関西学院大学)은 인턴십을 이쿠노파크에서 실시함

○ 지역사회에서 이쿠노구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쿠노구 사회복지교육과는 다문화공생마을만들기와 육아 관련 NPO들과 포괄 연계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쿠노파크와의 협정체결 이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문의에 대해 이쿠노파크를 연계해주고 있음

○ 이쿠노파크의 기업섹터 파트너인 Retown은 카페, 주점, 음식점 등 40개 점포를 운영하며 식문화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음. 기업은 영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타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risk-taker의 역할도 해야 한다며 이쿠노파크의 기본이념에 찬동,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음

○ 이쿠노파크는 오사카시, 이쿠노구청, 기업, 대학, 지역 NPO 등 약 100개 단체와 연계하여 다문화공생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음

2) 하마마츠시

(1) 하마마츠시의 특징

□ 닛케진 집주도시

○ 하마마츠시는 시즈오카현(静岡県)에 위치한 산업도시로서 현청 소재지인 시즈오카시를 제치고 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성장함.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 악기 제조업체 야마하 등의 생산 거점인 하마마츠시는 1980년대 말 엔고 활황기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함. 일본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정주자라는 체류 자격을 신설하며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임

○ 정주자 자격은 혈통주의를 기반으로 닛케진에게 부여됨. 닛케진은 일본 이외의 국가로 이주하여 당해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자나 그 후손

을 뜻하는데, 주로 1893년 과테말라로의 이주를 필두로 1897년 멕시코, 브라질 등 남미로 집단 이주한 이주민의 후손으로 일본으로 환류한 일본계 남미 이주민을 지칭함

- ❍ 정주자 자격으로 대거 이입된 닛케진은 산업도시 하마마츠에 집주하며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했고, 국적은 90% 이상이 브라질이었음
- ❍ 2025년 4월 말 현재 하마마츠시의 인구는 약 78만 명, 그 가운데 이주민은 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함

□ 지역 NPO가 주도해온 이주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 ❍ 역사적 이유로 재일코리안이 다문화의 원류가 된 오사카와는 달리, 하마마츠는 경제적 이유로 닛케진이 다문화의 원류가 됨. 행정에서 다문화공생정책을 시작하기 이전에 생활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닛케진과 그 자녀들이 증가하면서 지역 NPO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닛케진 아동·학생들의 일본어 학습지원, 상담, 학교생활 지원을 시작했고, 그러한 경험의 축적이 오늘날 하마마츠시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의 기반이 됨
- ❍ 하마마츠시는 30년의 역사를 쌓아온 지역 NPO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일본어 학습지원, △모어 지원, △교과 학습지원, △진학 지원, △문화 활동을 통한 자긍심 함양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음

(2) 하마마츠시 사례 분석

가. 하마마츠시 이주 배경 아동·학생의 현황과 실태

- ❍ 2025년 4월 현재 하마마츠시의 공립 초중교 아동·학생 수는 1,945명으로 국적별로는 브라질이 806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342명, 베트남 258명, 페루 179명, 중국 161명, 인도네시아 53명 등임. 과거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최근 10년 동안 이주 배경 아동·학생의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언어도 28개에 달함
- ❍ 닛케진의 정주와 영주가 증가하면서 하마마츠시에서는 일본에서 출생한 아동·학생이 전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66.5%를 차지,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학생의 33.5%를 크게 초월하고 있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상어도

일본어가 주류가 됨. 이주 배경 아동·학생의 모어, 모문화에 대한 학습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함

○ 고등학교 진학률은 2024년 83.2%로 향후 커리어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浜松市教育委員会 2025)

나. 하마마츠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 일본어 지도 체제 정비

○ 하마마츠시는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에 대해 3년 기준으로 개개인의 일본어 능력에 맞춘 지도 프로그램을 작성

○ 취학 후 14일 동안은 초기 적응 지도 기간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일본어를 지도함. 이후 1년간은 일본어 기초지도 기간으로 학교생활과 교과 학습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힘을 육성함. 마지막 1년은 일본어와 교과의 통합학습 기간으로 일본어 지도 외에 교과 과제나 숙제 등 학습 보조를 지원함

학습기간	➲ 14일	➲ 1년	➲ 2년	➲ 3년
학습단계	초기 전기단계	초기 후기단계	교과로 이어지는 학습 단계	
지도 목표	◦ 일본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 규칙 이해 ◦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태도 함양	◦ 일본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 심화 ◦ 일본어로 학교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일본어 능력 함양	◦ 교과에서 과제를 진행하고 탐구하며 정리하는 등 다양한 학습활동에 일본어로 참가할 수 있음	

출처) 浜松市教育委員会, 2025: 25에서 연구자 작성

[그림 Ⅴ-3] 하마마츠시의 일본어 지도 프로그램

○ 일본어 기초지도 기간의 일본어 학습과 모어 학습은 NPO와 연계해서 위탁 시행함. 하마마츠시 중남부지역은 하마마츠외국인아동교육지원협회, 서

북부지역은 일본어교육볼란티어협회, 동부·하마키타(浜北)·덴류(天竜)지역은 하마마츠일본어일본문화연구회에 위탁함

○ 2022년에 초기 일본어 지도거점학교를 1곳 설치, 2024년에 1곳 증설함. 거점 학교 지도 교원은 2025년 현재 26명임

□ 학교에 언어 지원자 배치·파견

○ 이주 배경 아동·학생이 많은 학교 14곳에 포르투갈어, 필리핀어로 대응하는 취학지원자 11명이 배치되어 모어 지원, 교내 통번역, 보호자 대응을 담당함

○ 2024년부터는 재적 이주 배경 아동·학생이 소수여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초중교에 순회지도 교원을 파견, 2025년 현재 7명이 37개교를 순회 지도하고 있음. 교과 지도원 5명이 9개교에 파견되어 교과 학습을 지원함

○ 학교 요청이 있으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로 대응하는 외국인 아동·학생교육상담원을 파견하고 있음

□ 학령기 맞춤 지원

○ 2026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1월~3월까지 토요일에 총 8회에 걸쳐 △예비학교 개최

○ 매년 6월에 토요일마다 하마마츠시립 초중교 아동·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로 탐색회를 실시, 진학과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통역이 대응함

○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입시 준비나 교과수업 지원을 하는 △방과 후 스탭업 클래스를 월, 수 오후 5시 30분~6시 45분까지 운영함

○ 하마마츠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회인, 대학생 등 이주민 롤모델을 학교에 파견함

□ 교원 및 일본어지원자, 교과지도자의 자질 향상 연수

○ 외국인아동·학생지도리더 연수회(연 6회)

○ 일본어와 교과 통합 학습 연수(연 3회)

○ DLA연수회(연 2회)

○ 외국인아동·학생교과지도자연수회(연 5회)
○ 모어지원자연수회(연 5회)
○ 초기일본어지도거점학교연수회(연 2회)

다. 하마마츠시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 하마마츠시 NPO법인 외국인아동교육협회(TOMO2)

○ 하마마츠시 중남부지역 이주 배경 아동·학생의 일본어와 모어 학습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TOMO2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닛케진의 해고와 귀국이 발생하면서 경제난과 이동의 위기가 아동에게 더 크게 미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NPO 법인으로 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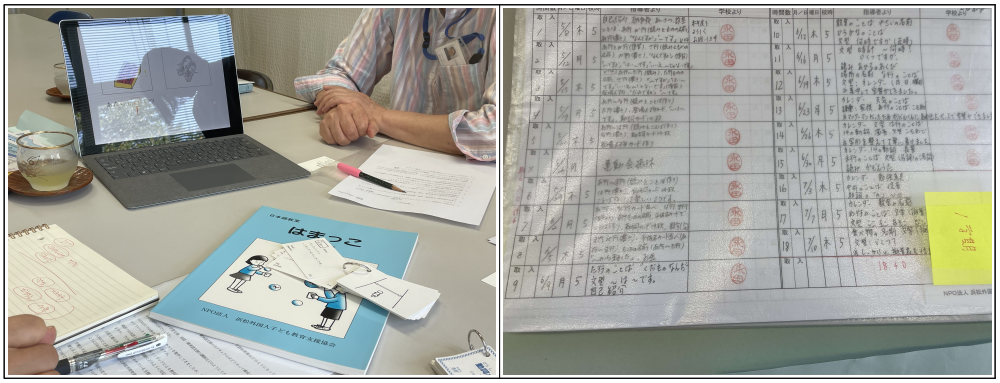
○ TOMO2가 담당하는 하마마츠시의 중남부지역은 브라질 국적의 아동·학생이 70%, 필리핀과 인도가 30% 정도 됨. 현재 123명이 33주에 걸쳐 80시간의 일본어 학습지원과 추가로 교과 학습지원을 받고 있음. 일본어 텍스트는 하마마츠시교육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선택 또는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TOMO2는 이주 배경 아동·학생을 지원했던 지역 NPO 30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계승, 총 30과로 구성된 자체 텍스트를 개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우수 텍스트로 문부과학성이 소개하기도 함. 학교 교사와 연계해서 개인별 학습 목표를 세우고 지도기록 시트를 매일 수업 후 작성, 이 시트를 바탕으로 매 학기 1회 전체 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함

○ 모어 학습의 경우는 연간 31회, 1회당 1시간 30분 수업함. 140명이 포르투갈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3명의 모어 지도자가 3개 반을 담당함. 스페인어와 베트남어는 연간 27회, 1회당 2시간 수업을 진행함. 스페인어는 29명, 베트남어는 3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각각 2명의 모어 지도자가 각 1개 반을 지도함

○ 위탁사업 외에 TOMO2는 자체적으로 초중학생의 교과 학습지원을 하고 있고, 학습 고민이나 취학 고민 상담에도 대응하고 있음

○ 무엇보다 4년 전부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문화 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매년 30명 정도 참가하고 있으며 이주 배경 아동·학생이 시를 짓고

지역 고등학교의 서예부 학생들이 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회를 개최하고 시집도 발간함. 이러한 활동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자긍심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정서적 지원과 모어, 모문화 학습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임



출처) 연구자 촬영

[그림 Ⅴ-4] TOMO2의 자체 개발 교재와 지도기록 시트

□ 중간조직 하마마츠국제교류협회(HICE)

○ 하마마츠시교육위원회의 외국인아동·학생 일본어학습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NPO에 위탁함

○ 학기별로 시교육위원회, 위탁운영 NPO와 정례 회의를 개최, 진행 상황과 내용, 과제 등을 공유함

○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다문화공생과 이주 배경 아동 지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를 적극 진행함

○ 지역소방단, 유치원, 기업과 NPO를 연계해 화재 예방주간이나 동화책 읽어주기, 각종 문화 활동을 공동 주최, 후원함

3) 아이치현

(1) 아이치현의 특징

□ 이주노동자가 많은 산업도시

○ 아이치현은 일본의 근대화 시기를 거치며 섬유산업이 융성했고, 1930년대

부터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발달, 현재 일본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 도요타의 생산 거점으로 닛케브라질인이 다수 노동 이주해 옴

○ 일본 전국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현재 〈제4차 다문화공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생활환경과 제도적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어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많음

○ 주부(中部)국제공항이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이주민 증가의 한 원인임

○ 2024년 12월 말 기준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이주민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위는 〈표 Ⅴ-9〉과 같음. 아이치현의 이주민 수는 331,733명으로 전체 3위를 차지함. 아이치현 총인구는 7,461,111명으로 이주민 비율은 4.45%임

〈표 Ⅴ-9〉 도도부현별 이주민 수 상위 5위

(단위 : 명, %)

순위	도도부현	이주민 수	전국 비율
1	도쿄도	738,946	19.6
2	오사카부	333,564	8.8
3	아이치현	331,733	8.8
4	가나가와현	292,450	7.6
5	사이타마현	262,382	6.9

출처) 愛知県(2025a) 愛知県の外国人住民の状況, p.2

□ 닛케진에서 아시아 역내 이주민으로 다양화

○ 2023년까지 아이치현의 이주민 국적 1위는 브라질이었으나 2024년에는 베트남이 64,377명으로 가장 많음. 그다음이 브라질 60,980명, 필리핀 46,944명, 중국 46,707명, 한국·북한 27,586명, 네팔 18,445명, 인도네시아 16,196명, 페루 7,941명, 미얀마 6,951명, 스리랑카 4,711명, 태국 4,496명, 기타 26,399명임. 기타에서는 네팔의 증가가 현저하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등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이에 따라 체류자격별 이주민 비율도 변화함. 1위였던 정주자는 축소하고 영주자가 증가함. 영주자는 102,881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주자는 42,470명으로 13%, 구 식민지출신자에게 부여되는 특별영주

자 자격은 21,525명 7%, 일본인의 배우자는 13,666명 4%, 기능실습생은 40,621명으로 12%, 동반가족은 22,713명으로 7%를 나타냄

□ 타 지자체에 비해 이주민의 높은 정주율

○ 아이치현은 거주 이주민의 60%가 영주, 정주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영주, 정주율이 높음

○ 증가하고 있는 정주 이주민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성과 포용을 가치로 〈제4차 아이치현다문화공생플랜(2023년~2027년)〉을 추진하고 있음(愛知県, 2025b)

(2) 아이치현 사례 분석

가. 아이치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실태

○ 아이치현의 이주민 수는 37개 도도부현 가운데 3위였으나 이주 배경 아동·학생 수는 2023년 현재 18,38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 수는 〈그림 Ⅴ-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984명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돌출해서 많음(文部科学省, 2025a: 3)

○ 미취학 아동·학생 수는 2023년 현재 930명임

나. 아이치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 광역자치단체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연계하고 정책을 매개하는 역할을 함

○ 아이치현 내에는 이주 배경 아동·학생 재적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 등 차이가 존재함. 아이치현은 이주 배경 아동·학생 수가 적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이주 배경 아동·학생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보조금 지원과 모어 상담원 파견 등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모어 상담원 파견

○ 아이치현내 53개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가 모어 상담원을 채용하고 있음.

약 20개 학교가 예산상 채용이 어려운데 아이치현이 포르투갈어 4명, 스페인어 3명, 필리핀어 4명 총 11명의 모어 상담원을 채용, 학교를 순회하며 대응하게 함

○ 모어 상담원은 번역, 통역, 일본어 지도의 보조, 생활 지원, 교과 학습 보조를 담당하며 아동·학생, 보호자와 담임교사에도 대응함

□ 일본어 학습지원 기금 조성 및 운용

○ 2008년에 지역 경제계와 기업의 협력으로 '일본어 학습지원기금'을 조성함

○ NPO가 운영하는 이주 배경 아동·학생을 위한 일본어 교실에 대해 조성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2026년 제3차 조성사업 기간의 조성금은 1억 엔임. 2024년에는 54개 일본어 교실 및 외국인 학교 4곳에 지급함

□ 지역 기업 직원의 사회활동과 이주 배경 아동·학생 지원 매칭

○ 이주 배경 아동·학생을 지원하기를 원하는 지역 기업의 사원들과 이주 배경 아동·학생을 지원하는 현장을 매칭함, 2024년에는 아이치현의 매칭으로 8개 기업 46명의 직원이 6개 일본어지도교실에서 일본어 지도사로 활동함. 주로 해외 파견근무의 경험 있는 직원들로 해외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많은 아이치현의 지역적 특징을 살린 사회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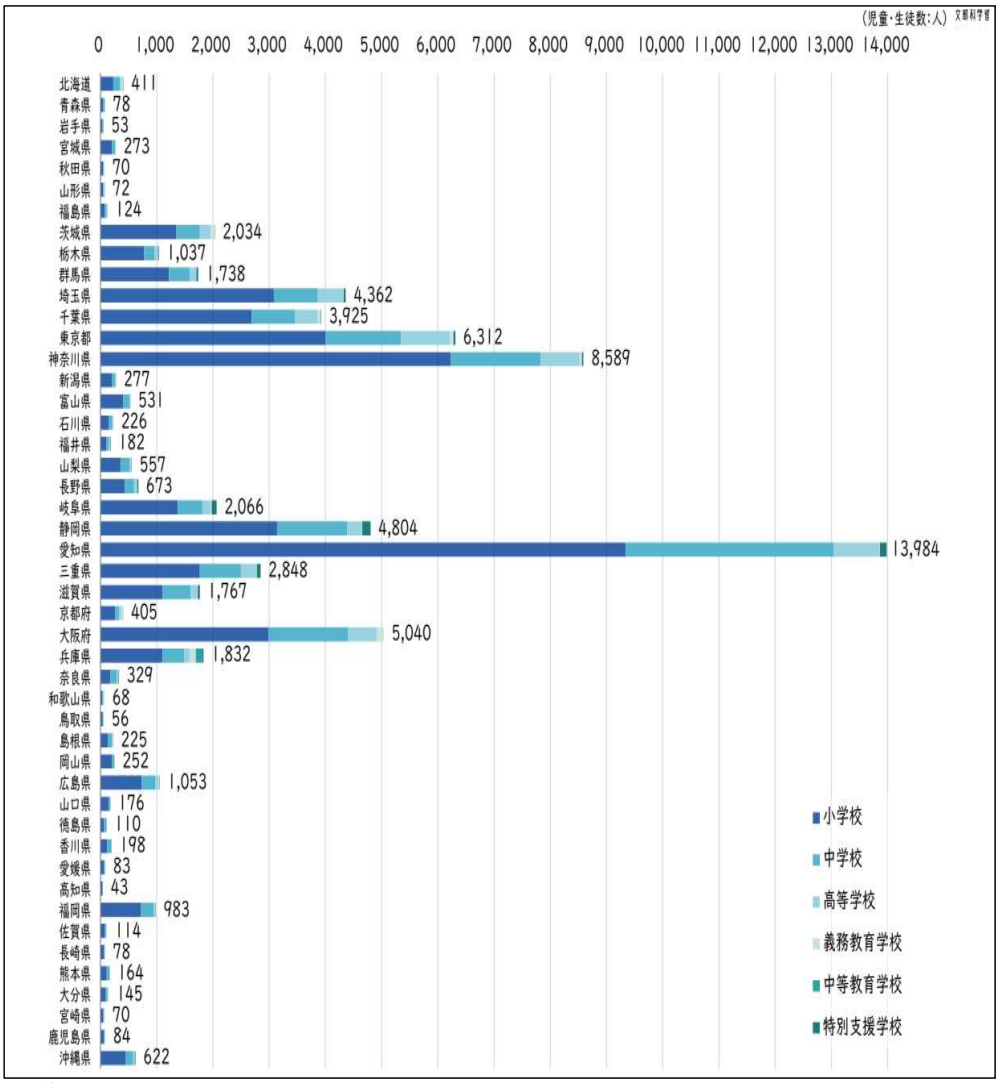
□ 예비학교 지원

○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시교육위원회, NPO, 아이치현다문화공생실이 함께 예비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 일본어지도사 연수 안내서 작성

○ 이주 배경 아동·학생은 편입학 시기, 학년, 언어 등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는 표준 매뉴얼이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한 학교 일본어 지도자를 위해 구체적인 21개의 사례를 열거, 알기 쉽게 연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있음

○ 특히 이주 배경 아동·학생 수가 1명~3명 정도인 소수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아이치현이 교육 현장 교사들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작성함



출처) 文部科学省 , 2025a:3

주)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학교, 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 수임

2. 47개 도도부현은 홋카이도(北海道),아오모리현(青森県), 이와테현(岩手県), 미야기현(宮城県), 아키타현(秋田県), 야마가타현(山形県), 후쿠시마현(福島県), 이바라키현(茨城県), 도치기현(栃木県), 군마현(群馬県), 사이타마현(埼玉県), 치바현(千葉県),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현(神奈川県), 니가타현(新潟県), 도야마현(富山県), 이시카와현(石川県), 후쿠이현(福井県), 야마나시현(山梨県), 나가노현(長野県), 기후현(岐阜県), 시즈오카현(静岡県), 아이치현(愛知県), 미에현(三重県), 시가현(滋賀県),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 효고현(兵庫県), 나라현(奈良県), 와카야마현(和歌山県), 돗토리현(鳥取県), 시마네현(島根県), 오카야마현(岡山県), 히로시마현(広島県), 야마구치현(山口県), 도쿠시마현(徳島県), 가가와현(香川県), 에히메현(愛媛県), 고치현(高知県), 후쿠오카현(福岡県), 사가현(佐賀県), 나가사키현(長崎県), 구마모토현(熊本県), 오이타현(大分県), 미야자키현(宮崎県),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오키나와현(沖縄県)임

[그림 Ⅴ-5] 도도부현별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 수

□ 야간중학교 개설

○ 2016년 「의무교육기회확보법」이 제정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야간중학교[17] 설립 움직임은 활발하지 못했음. 야간중학교 설립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COVID-19 팬데믹 하에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가 부상, COVID-19 엔데믹 이후 급속히 증가한 이주민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다양화에 따른 대응이 요구되면서 공립 야간중학교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함

○ 아이치현은 2025년 4월에 도요하시(豊橋)공과고등학교에 야간중학교를 개설하였고, 이어 2026년 4월에 이치노미야(一宮), 고마키(小牧), 도요타니시(豊田西) 고등학교 3곳에 각각 야간중학교를 개설할 예정임

○ 도요하시 야간중학교의 초년도 입학생은 22명으로 90%가 이주민임. 연령대도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 다양하며, 오후 5시~9시까지 40분 수업 4교시로 운영됨. 중학교 1학년 코스, 2학년 코스, 3학년 코스로 나뉘며, 일본어 코스는 초심자~초급 코스, 초급~중급 코스 2개의 코스가 있음

○ 야간중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중학교 공부가 하고 싶어서'와 '진학·취업을 위해서'가 가장 많음

다. 아이치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 아이치야간중학을 이야기하는 모임

○ 「의무교육기회확보법」 제정 이후에도 전국에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이주 배경 아동·학생이 가장 많은 아이치현에 공립 야간중학교가 개설되지 않자 '아이치야간중학을 이야기하는 모임'이 발족, 공립 야간중학교 설립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해 진학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민간의 자주 야간중학 '처음 한걸음(はじめの一歩) 교실'을 시작함

○ 2020년 시작 당시 이용자는 5명이었으나 2024년 현재 280명이 이용하고 있음.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그 보호자, 영유아와 보호자도 이용하고 있음

17) 본국이나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만 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립일 경우 수업료는 무료임. 과정을 마치면 주간 중학교와 동등한 졸업 자격을 얻음

○ 교실은 2곳으로 아이치현 나고야시(名古屋市) 오조네(大曾根)역 근처에 증설된 교실은 고교입시와 일본어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중고등학생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음 히가시마치(東町)교류센터의 교실은 주로 초등학생과 영유아, 그 보호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과 가족들의 다양한 필요와 수요에 대해 지역 NPO와 함께 대응하는 종합생활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음

○ '처음 한걸음 교실'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일본어 지도, 교과 학습 지도, 생활 및 진로 상담을 지원하고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장점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여는 등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居場所)'가 되고 있음

○ 오조네역을 중심으로 네팔인이 집주하고 있어 '처음 한걸음 교실'을 이용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국적은 네팔이 많고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다양함

○ 아이치야간중학을 생각하는 모임은 NPO 법인이 아닌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나고야시나 아이치현으로부터 조성금을 받지 않으며, 이용자 부담도 없음. 주요 재원은 회원들의 연 5,000엔의 회비이며 지역 기업과 은행의 기부와 조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립 야간중학교와 자주 야간중학, 지역사회와의 연계

○ 공립 야간중학교는 정규학교로서 배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함. 그러나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특성이나 요구가 존중되는 배움의 방식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자주 야간중학이 이를 보완하고 상호 협력하며 지역사회가 그 협력의 기반이 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아이치현립 도요하시 야간중학교 개설 당시에도 야간중학교는 일본어 학교가 아니므로 일본어 공부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자는 입학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개설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음. 배움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임

○ 초중교의 학교 공간은 공유재임. 초중교는 현재 저출산으로 빈 교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NPO나 자주 야간중학은 임대료의 벽에 부딪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시교육위원회와 학교가 미취학자, 학교 밖 청소년, 은둔 청소년, 중퇴자,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등의 다양한 배움과 가능성

을 발견하고 키워나가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연계해서 개선을 요구함

4. 소결

○ 지금까지 한국과 사회의 다문화화와 다문화정책의 유사성, 공교육 현장에서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급증과 다양화라는 공통점을 나타내며, 교육의 권리라는 인권 차원에서 최근 10년 동안 국가주의, 혈통주의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자체, NPO가 상호 연계하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원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음

○ 주요 분석 대상은 일제강점기 역사적 배경으로 재일코리안 집거지가 형성되었던 오사카시, 1980년대 말부터 노동이주로 닛케브라질인 집거지가 형성되었던 하마마츠시, 도요타의 생산 거점으로 지자체 가운데 이주민 수 3위,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 수 최다의 아이치현임

○ 구체적으로는 〈표 V-10〉과 같이 일본 정부, 아이치현, 오사카시, 하마마츠시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현황,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거버넌스를 분석함. 이상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일본에서는 제도적으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NPO가 상호 연계와 보완을 통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둘째, 정부는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공교육에서의 일본어 지원과 교과 학습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수립·개정하고, 지자체는 교육위원회와 함께 학교에서의 적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용하는 한편 NPO는 일본어와 교과 학습지원 외에 모어 학습 지원과 정서적 지원, 문화활동과 진로 및 취업 지원 등 다영역에 걸친 세심한 지원으로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메우며 각 주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무엇보다 시스템을 정비해서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중요성이 시사됨. 이때 하마마츠시의 3년에 걸친 일본어 지원 체제와 오사카시의 연령별 언어 지원 체제는 바람직한 사례로서 두 사례를 조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Ⅴ-10〉 일본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례 종합 비교

구분	중앙정부	아이치현	오사카시	하마마츠시
실태 및 현황	◦ 공립학교 재적 이주배경 아동·학생 수 138,714명('24년) ◦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 수 69,123명('23년)	◦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이주민 수 3위 ◦ 이주 배경 아동·학생 수 1위, 18,380명('23년) ◦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 수 1위 13,984명('23년)	◦ 공립 초중교 이주 배경 아동·학생 수 5,350명('24년) ◦ 재일코리안 감소, 이주 배경 아동·학생의 다양화	◦ 공립 초중교 이주 배경 아동·학생 수 1,945명('25년) ◦ 닛케브라질인 감소, 이주 배경 아동·학생의 다양화
지원 정책	◦ 특별교육과정 ◦ 의무교육기회확보법 ◦ 일본어 지도 교원의 정수화 ◦ 귀국 및 외국인 아동·학생 지원 사업비 11억 5,400만엔('25년)	◦ 광역자치단체로서 정부와 기초단체 연계하고 정책을 매개함 ◦ 현내 이주 배경 아동·학생 재적수의 학교별 편차에 대응, 학생 수가 소수거나 예산 부족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 - 모어 상담원 채용(11명) 및 파견(20개교) - 예비학교 지원 ◦ 지역 경제계, 기업과 함께 일본어 학습 지원금 조성 ◦ 지역 기업 직원의 사회(봉사)활동과 이주 배경 아동·학생 지원을 매칭 ◦ 일본어 지도자 연수 안내서 작성 ◦ 야간 중학교 개설	◦ 지원 시설 - 공생지원거점(4곳) - 경력지원코디네이터, 미래공생 교육 통괄 코디네이터 배치 - 일본어교육거점학교(17곳) ◦ 일본어 지원 프로그램 - 전입·편입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초기 면담 대응 - 예비학급(pre-school) - 일본어 지도자 파견, 일본어교육 거점학교, 재학 학교의 특별교육과정 - JSL커리큘럼 일본어 지도/교과 모어 지도 ◦ 야간학급 개설(3개 교)	◦ 일본어 지도 체제 정비 - 지원 기간 총 3년 - 취학 후 14일 간: 초기적응지도 - 이후 1년간 : 전·후기단계 진행 - 이후 2년간 : 교과로 이어지는 학습 단계 진행 ◦ 언어지원자 배치, 파견 - 취학지원자 배치(14개교) - 순회 지도원 파견(7명, 37개교) - 학교 요청 시, 이중언어 상담원 파견 ◦ 학령기 맞춤 지원 - 예비학교 개최 - 진로탐색회 실시 - 롤모델 파견 ◦ 일본어 지도자, 교원자질 향상 연수
지원 거버넌스	◦ (문부과학성)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참고 자료 개발과 작성 - JSL커리큘럼 - 외국인 아동·학생 수용을 위한 안내서 - 특별교육과정 편성·실시 - JSL대화형 평가 DLA - 외국인 아동·학생 담당 교원 양성·연수모델 프로그램 ◦ (도도부현) - 문부과학성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에 따라 도도부현의	◦ (아이치야간중학을 이야기하는 모임) - 공립 야간중학교 개설 운동 - 민간의 자주 야간 중학 운영 - 일본어와 교과 학습 지원 - 진로 지원, 생활상담, 정서적 지원 - NPO법인이 아닌 민간단체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조 모델 ◦ 공립 야간중학교와 자주 야간중학, 지역사회의	◦ (이쿠노파크 도야) - 이주 배경 아동·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며 일본어 학습과 교과 학습,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 -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교육 연계 ◦ 오사카대학, 간세이가쿠인대학이 도야와 협력프로젝트 추진 ◦ 이쿠노구청은 이쿠노파크 등 NPO와 포괄연계협정 체결,	◦ (TOMO2) - 일본어와 교과 학습지원, 모어 지원 - 축적된 NPO 3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 텍스트 개발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문화 활동과 정서적 지원 ◦ 중간조직 HICE - TOMO2와 지역소방단, 유치원, 기업 연계, 화재 예방이나 동화책 읽어주기, 각종 문화

구분	중앙정부	아이치현	오사카시	하마마츠시
	추진 방침 책정 - 인재 확보와 육성 시정촌에 인재 파견, 보조금 지원,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행 ◦ (시정촌) - 시교육위원회는 일본어 지도, 학습지원, 모어 지도 사업을 위탁운영 - 일본어 지도 거점 학교 설치, 운영 - 일본어 지도자, 모어 지도자 파견 - 지역 기업과 NPO연계 시교육위원회, 국제교류협회, NPO, 학교, 지역 단체 등의 협의체 조직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롤모델 발굴 및 홍보	연계로 미취학, 학교밖청소년, 중퇴, 고립은둔청소년 증가 문제에 대응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사회의 수요를 이쿠노파크에 연계 ◦ 기업섹터 Retown은 이쿠노파크의 파트너로 식문화를 중심으로 글로벌타운 만들기에 이쿠노파크와 사업 추진	활동 공동주최, 후원함으로써 지역의 다문화공생 추진

출처) 연구자 작성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공교육, 학교생활, 교우 관계 등 다영역에 걸친 정서적 지원이 필수인데 일본에서는 지역의 NPO가 이 역할을 수행하며 '안심하고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나의 장소'를 만들고 있음. 그러나 이 역할은 꼭 NPO만이 가능한 것은 아님. 지자체가 그러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한 인력, 재원, 장소를 마련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함

VI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제언

Ⅵ.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및 결론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

○ 경상남도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경상남도 주민으로 인정하고, 주민의 복리(well-being)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의 수혜자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체류 자격보다는 이주 배경에 초점을 둔 포괄적 정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정책 대상으로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이주 배경을 가진 만 24세 이하 사람으로서 경상남도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의할 것을 제안함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 추산

○ 2025년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규모는 6,865명 정도로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인 가정의 자녀 수를 단순 합산해 추산함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 총 6,071명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인 가정 자녀: 총 794명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 분석)

○ 추산의 대상 범위는 만 18세 이하 다문화가족의 국외 출생 자녀, 등록외국인, 국내 거소 동포이고,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한국 국적을 가졌으나 순환 이주를 경험한 국내 출생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등이 제외된 값으로 과소 추정된 값임을 유의해야 함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구구조

○ 2025년 기준,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구구조는 피라미드형으로

6세 이하 50%, 7~12세 31%, 13~15세 10%, 16~18세 9%임

○ 이주 배경 특성상, 몇 살에 입국했든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어 구사력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 경남은 이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함

○ 나이별 정책 수요 차이가 분명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나이별 공공서비스 대상에 포괄해 나가는 방법이 있음

□ 공공 자원 배분의 선택과 집중 필요

○ 경남 미성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인구의 86.2%는 김해 35.9%, 창원 20.5%, 거제 15.0%, 양산 9.7%, 진주 5.1%에 거주하고 있음

○ 시군별 등록외국인 대비 등록외국인 자녀 비율 즉, 등록외국인 가운데 미성년 등록외국인 비율은 김해 7.2%, 양산 5.9%, 창원 5.8%, 거제 5.1%, 창녕 4.6%, 진주 4.0% 등으로 큼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현안은 경남 전역에서 고르게 발생한다기보다 김해, 창원, 거제, 양산, 진주, 창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관련 공공자원 배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목표 설정과 추진체계 구축 필요

○ 경상남도는 이주 배경 아동 보육료 지원 외에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 정책을 하고 있지 않음

○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 재학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중심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 공급-수요 불균형 심화로 교육 서비스 질 저하, 학교와 교사의 부담 증가, 교육 효과 정체, 정책 사각지대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경상남도는 이민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경남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경상남도 주민으로 포용하는 정책 목표 구체화, 추진체계 구축 등을 함으로써 본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생활 실태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결과는 [그림 Ⅵ-1]에 제시함

영역	조사·분석 결과		시사점
이주 배경	결혼 이주자 자녀	가족해체, 초국적 가족관계 경험	심리·정서 안정 지원
		한국에서 재혼 가족 형성, 친족 관계 거의 없음	
		체류 자격 비교적 안정(국적 취득, F5, F1)	부모 교육
	외국인 노동자 자녀	초국적 가족관계 경험	
		한국에서 원가족 재결합, 친족 관계 유지	
		체류 자격 조건부 안정(F1, F2, F3, F4, B1 등)	정주 지원
문화 접변 특성	심리·정서적 불안정성	(내적) 두려움, 분노,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등	심리·정서 안정 지원
		(외적) 자해, 자살 충동, 자살, 절도, 게임중독, 학교 중퇴 등	
		(원인) 복잡한 가정사, 부모 돌봄 부재, 부모의 학대와 착취	부모 교육
	한국어 학습 어려움	(영향) 한국 친구와 또래 형성 어려움, 학습 결손	
		(원인) 한국어 학습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원인) 수시 편입학의 한계	한국어 교육 체계 개선
		(원인) 학교 언어교육체계의 한계	
가족 생활	가족구조	(재혼 가족) 새아빠(엄마), 친엄마(아빠), 동복·이부형제 등	심리·정서 안정 지원
		(이주 가족) 일반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가족 내 사용 언어	(재혼 가족) 모국어, 한국어, 영어 등 2~3개 언어	부모 교육
		(이주 가족) 모국어	
	가족생활	출신 문화권에 따른 부모 역할 차이	
		부모의 장시간 근로로 자녀 돌봄 공백	돌봄 지원
		부모-자녀 역할 역전으로 자녀의 부모화 현상	
학교 생활	교사	이중언어 강사, 한국어 학급 교사 의존도 높음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교육 인프라 개선·강화
	친구	국내외 거주 외국인 친구와 또래 관계 유지·형성	
		한국인 친구 관계 형성 어려움. 언어, 심리적 거리감 등 이유	
	수업	(한국어 학급) 한국어 교육 서비스 편차	
		(일반 학급) 학습 열망은 있으나 학습 부진 상태	
	진학	(개인) 한국어 역량, 성적, 상급학교 진학 정보 부족	
		(사회)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교육 인프라 부족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이유	취학통지서를 받아도 초등학교 입학 거부	
		학력심의위원회의 학교 배정 불만으로 편입학 보류	
		한국어가 부족해 학교생활의 재미와 의미 상실로 중퇴	
사회 경제적 활동	공공도서관, 청소년 지원 시설 등 이용 경험 없음, 청소년증 모름		이민 사회 인프라 마련
	아르바이트(카페, 식당, 예식장 서빙 및 배달 등) 경험 있음		
	아는 사람에게 차별받았다고 인식할 때 심리적 타격이 큼		

[그림 Ⅵ-1]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분석 결과와 시사점

2.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1)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근거 조례 제정

○ 경상남도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시스템 구축이 가장 필요함. 조례 제정은 정책의 체계적, 안정적, 지속적, 발전적 추진을 위한 초석임

○ 아동·청소년기 외국인 주민 현안 대응에 초점을 둔 본 조례는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생애주기인 아동·청소년기를 기준으로 포괄하기 때문에 중복사업 또는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생애주기별 복지제도와 연계 가능성도 큼

○ 조례의 목적은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경남이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지원과 보호로 관련 사업과 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전담 지원 TF 조직 구성

○ 경남지역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현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경남형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현재 조직 체계와 현안의 특성을 고려해 TF팀 구성을 제안함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교육청,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비롯한 관련 기관 담당자로 TF팀을 구성해 업무 효율과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TF팀의 주요 역할은 일본 사례에서처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입국해서 한국어에 숙달해 우리 지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임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위원회 구성·운영

○ 경상남도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현안 발굴과 정책적 대응을 위해 경상남도는 지역 대학, 관련 중간 지원조직, 민간 단체, 기업, 국가별 교민회 등을 연계한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거버넌스로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함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센터 설치·운영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플랫폼으로서 센터가 필요함. 지원센터는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안전하게 머물며 필요한 지원과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 아이들의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이 좋아야 하므로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아이들이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 기능은 한국어 학습지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 진로·진학 지원, 심리상담, 경제·사회참여 지원 교육과 활동, 자원 연계 등임. 이곳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시작하는 삶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한국어, 한국문화, 기초 교과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와 '연결'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연결을 위해서는 연계 지원이 필요함

○ 친구, 이웃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함께 하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이곳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이지만, 이 안에서의 활동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끼리의 활동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한국 사회의 공공서비스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원 연계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센터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전담 코디네이터는 접수 건별 연계 지원이 아닌 센터에 등록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별 연계 지원을 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

○ 센터의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는 교육청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학교에 다니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개인별 맞춤형 통합지원의 시너지를 높일 수도 있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정례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규모 증가, 거주 장기화 등은 내집단 특성 변화, 다양한 현안 발생, 정책 수요 다양화로 이어지는데, 지역의 사회현상 변화 모니터링으로서 주기적 실태조사는 정책 효과 확인과 증거 기반 정책 추진 실현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임

○ 경남은 이민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문화접변 경로, 인권 실태, 학업 성취 실태, 근로환경 실태, 결혼·임신·출산 실태 등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삶의 궤적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 축적, 분석이 필요함

□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포럼 운영

○ 이민 사회로의 이행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지역 내 주요 행위자와의 협력, 지역 주민의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함.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육성형 이민정책으로 전환된 만큼, 경남은 외국인 주민의 정착·정주 지원과 외국인 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함

○ 이것이 가능한 논의 구조로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포럼을 제안함. 포럼은 아동·청소년기 외국인 주민의 지원, 적응 양태 등 다양한 영역을 논의하는 자리로 법·조례에 명시된 추상적인 개념인 경남이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한 숙의(deliberation)의 장임

○ 포럼은 매년 세계인의 날(5월 20일) 또는 맘프(MAMF) 기간 행사로 정례화할 수 있음

2) 한국어 교육 체계 확충

(1) 경상남도

□ 한국어 교육 지원 기관 다각화

○ 경상남도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적응·정착에 핵심 요인인 한국어 교육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의 일환으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거점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어 학습 지원 기관 다각화의 핵심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어 역량이 학교나 직업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배움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인 만큼 학교와의 협업이 중요함

○ 일본 사례연구에서 착안할 수 있는 점은 한국어 지원 기관의 교강사와 아이들 재학 학교의 담임교사, 한국어 학급 담당 교사, 이중언어 강사 등과의 팀티칭인데, 아이의 한국어 능력을 학교와 지원 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것임

□ 지역 대학과 한국어 교육 지원 협업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은 김해, 창원, 양산, 거제, 진주, 창녕 등으로 지역 소재 대학의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지원, 진로 교육, 사회참여 활동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한국어 교육을 예로 들면,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영산대학교, 인제대학교는 국립국어원으로부터 한국어교원 자격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이고 창원대학교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수행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임. 경상남도는 해당 학교의 한국어교원 자격을 운영하는 학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센터와 MOU를 맺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한국어 학습 학기제 프로그램, 방학을 이용한 한국어 학습 계절학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창원, 진주, 양산, 김해 등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경상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수 있음.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원 2급 자격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데,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요건에 한국어 교육 실습 20시간 외에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 200시간을 포함토록 하는 것임

□ 경남형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도입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성과를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경남형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도입을 제안함

- 시험 결과 아이들의 한국어 수준은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아이, 한국어를 말하나 공부할 수준은 안 되는 아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준만큼 하는 아이로 구분할 수 있음

○ 한국어 교육의 정책 대상은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아이와 한국어를 말하나 공부할 수준이 안되는 아이이고,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효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시험 결과는 그 자체로 학생의 한국어 공부에 관한 동기 부여에 영향이 있고,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 구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2) 경상남도교육청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다수는 학교에 다니지만, 배우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진입 장려를 넘어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상태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예비학교 과정 운영

○ 공교육 진입 방법은 입학과 수시 편입학이 있음. 둘 다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다닐 최소한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로, 학생, 교사, 학교 모두 어려움이 큼

○ 센터 단위에서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재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통역을 배치해 외국인 학부모 대상 신입생 설명회를 하고 있음. 본 연구는 정보제공 성격의 행사인 신입생 설명회와 차이가 있는 예비학교 과정 운영을 제안함

○ 일본 사례에서 착안한 예비학교 과정의 목적은 학교 초기 적응을 위한 기초 한국어 교육, 학교·교육 정보 제공, 교사와의 신뢰 형성, 예비학교 참여자들과 네트워크 형성이고, 최소 8회 이상 만나 진행하는 '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대상은 이주 배경 학생과 학부모인데, 아이들의 입학 패턴을 고려해 예비학교 유형은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초등학교 편입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중고등학교 편입학생을 위한 예비학교'로 구분해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초중고 편입학생을 위한 예비학교는 최소 2주간 편입학한 학교에서 유사한 기간에 입학한 아이들을 모아 진행할 수 있고, 이 과정을 수료한 후 한국어 학급과 일반학급에 편성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어 학급 설치 확대

○ 한국어 학급은 수요가 있는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하고 선발되는 과정을 거쳐 설치·운영되고 있어 학교의 의지와 교육청 예산 한계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임

○ 한국어 학급 미설치 학교에 한국어 학습 수요 학생이 있는 경우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어 학급과는 서비스양 차이가 현격해 서비스 질과 효과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 본 연구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어 학급 설치 확대를 제안함.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현재 한국어 학급 설치는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학교장의 의지가 약해도 학교별 한국어 학습이 필요한 이주 배경 재학생 20명당 한국어 학급 1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또한, 김해, 창원, 양산, 거제, 진주, 창녕은 관내 일반고등학교에 최소 1개 이상 한국어 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 한국어 학급 지원 목표 재설정과 기간 확대

○ 한국어 학급의 교육목표는 한국어 교과 학습이 가능한 상태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학급 지원 기간을 현재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어 학급 표준 교재는 기초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 2종이 개발되어 있는데, 경험적으로 두 과정 모두 학습한 아이와 기초 한국어만 학습한 아이의 교과 학습 역량에 차이가 있음

○ 표준 교재 2종을 모두 다루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한국어 학급 지원 기간 확대는 필요함

□ 한국어 학급 교사 정원 내 정교사 정수화

○ 한국어 학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담당 교사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 정원 내 정교사로 20명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어 학급 전담 교사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연속성 등의 특수성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필요하며, 교사의 5년 순환 근무 적용도 제외되어야 함

□ 팀티칭 강화를 위한 이중언어강사 제도의 이원화

○ 이주 배경 학생 증가와 학교 내 이중언어강사의 역할 비중 및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중언어강사 제도는 이중언어 교사와 이중언어 강사로 이원화가 필요함

○ 현재 이중언어강사는 담임교사, 한국어 학급 교사와의 협력 수업, 이중언어 방과 후 수업, 학교에서 발생한 이주 배경 학생 관련 사건 사고 처리, 학부모 상담, 알림장 번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당 연간 최대 80시간 강사비 지원으로는 이 같은 업무를 소화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음. 학교와 학생 모두 이중언어강사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도가 높다는 점과 업무 특성상 이중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중언어가 가능하며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역할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 이중언어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이중언어 교사는 학교의 이주 배경 학생 비율 또는 규모를 고려하여 채용·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이주 배경 학생 규모는 교사 1명이 감당할 수준을 초과함으로 학교 내에 다양한 근무 형태의 이중언어 강사가 상주하며 아이들과 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교사 지원 체계 마련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가 커 밀집 학교로 분류되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지도는 한국어 학급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일선 교사와 이주 배경 재학생이 소수인 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몰라 적절한 지도가 어려울 수 있어 상황별 지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 경남지역 학교장 대상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필요성 등과 관련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학교 교육 인프라, 교사의 행태, 학교의 분위기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엇보다 학교장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 실태,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지는 것이 필요함

○ 교사 대상 교육도 필요함.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교사 연수를 활용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공유하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숙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3) 교육부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내용적 학습권 보장 강화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내용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진급 제도 개선이 필요함. 학교에 진입하는 것은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실제 배움이 있고, 성장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되는 것임

○ 12월 초에 편입학한 아이가 편입학 시점으로부터 학년이 끝날 때까지 수업일 수 중 2/3만 출석하고 진급하는 것이 정말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함

○ 디지털 시대 전환으로 사회정서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어느 사회에서 살아가더라도 기초학력과 마음의 힘은 그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임

3) 심리·정서 안정 지원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지원 체계 구축

○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많음. 원인은 문화접변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 폭력 피해까지 다양하고, 사건 발생 시점도 이주 전에 발생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온 아이도 있고, 이주 후 한국에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 문제는 상담과 치료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창구가 없다는 것임. 2024년부터 학교 교사가 가정폭력과 학교 폭력 사건 발생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언어장벽과 그로 인한 심리적 장벽, 한국의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은 아이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임

○ 경상남도는 심리적 불안정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이 창구가 기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오프라인 창구는 본 연구가 제안한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센터에 설치하되,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메신저앱에 다국어 상담 채널을 개설하고 언어별 상담사가 대응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전담 인력 양성

○ 초기 상담 연결도 중요하지만, 본격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영역에서도 전문가의 이중언어 능력은 중요함. 민감한 사안일수록 전문가, 통역사 등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임

○ 이중언어 가능자가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등 국가 공인 상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향후 우리 사회의 필요를 생각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전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4) 돌봄 지원

□ 보편적인 돌봄 지원 서비스 대상으로 포용

○ 이주 배경 아동의 돌봄은 언어장벽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나, 경상남도가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범위 안에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들은 경상남도의 주민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거니와, 경상남도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아이들이 보장받는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기 때문임

□ 이중언어 돌봄 노동 인력(아이 돌보미) 양성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약 81%는 만 12세 이하이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규모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 있음. 이에 이중언어가 가능한 아이 돌보미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5) 부모 교육

□ 부모 상담 교육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이 필요함. 학부모 교육과는 다른 내용으로, 핵심은 문화와 종교에 따른 다양한 관습 차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과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임

○ 본 연구에서도 여자아이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계부에 의한 성폭행과 성매매, 친모에 의한 비자 장사 도구화 문제를 비롯해 일부 러시아권 부모의 자녀 방임도 한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함

○ 부모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상담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임. 자녀 관계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양육 방식의 변화를 원하는 부모와 상담 연결이 된 내담자와 이후 코칭 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예비 학부모 교육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는 언어장벽으로 많은 경우 아이 교육과 관련한 정보와 행사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가령,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 중,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경우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어려움.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찾아간 기관에서도 판단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예비 학부모 교육은 일회성 행사의 성격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함. 한국에서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교육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예: 학교와 병원 이용 관련, 재난 시 대피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 참여 부모들 간 사회자본 형성 지원을 위해 4회~8회 정도 기간을 갖는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함

6) 정주 지원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체류자격 안정화를 위한 비자 사다리 설계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인구감소,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 이주한 유입 인구임. 경남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게 될 이 아이들이 경남에서 계속 거주하며 지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지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류자격 지원임

○ 주로 부모 체류자격과 체류자격이 연동된 미성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일 때 영주권 취득을 못 하면 성인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방법은 많지 않음

○ 2025년 법무부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직·연수(D10), 취업(E-7-Y)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비자 사다리를 설계했고,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해당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하면 지역특화 우수 인재(F-2-R)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반가운 소식이나 경남에 적용해 보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중 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창녕 정도에 불과함. 경남에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규모가 큰 김해, 창원, 양산, 거제, 진주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아이들을 지역주민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설계 시 이들을 포용하는 방식의 체류자격 트랙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진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우리 지역에 정주할 청년 인구로서 이들이 건실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 진로 교육은 문자 그대로 이들의 진로 지원 효과도 있지만, 목표 설정을 도와 줌으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현재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태임. 또한, 수혜자 입장에서 진로 교육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학교-대학-센터 등이 연계해 진학 지도와 연계한 진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

○ 지역 대학 대학생(유학생 포함)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에서는 한국어 및 교과 학습 지도를 받아도 되고, 다양한 취미 활동도 가능하게 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삶,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이 관계를 통해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함

□ 소속감 제고를 위한 청소년증 발급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들의 정주를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역 소속감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임

○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청소년증)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항이 정의하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사람임. 따라서, 청소년증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 시장, 군수가 관내 주소를 가진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게 발급할 수 있음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자 청소년 우대 할인 혜택, 교통카드,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결제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음. 아이들은 이 카드를 가짐으로써 경남도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한국 아이들과 자신의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함. 경상남도 역시 이 카드를 매개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바우처 지급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7) 이민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 함께 하는 세계시민교육

○ 경남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이 태어나거나 살고 있는 지역, 경남,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평화, 문화 다양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경남이 조금 더 공정하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한데, 경상남도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역 대학, 시민단체, 국제 자매 도시 등과 협력을 통해 이주 배경이 있든 없든 경남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사회참여 및 국제 교류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지원해야 함

□ 인권 교육

○ 경상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함. 나이별, 직업별, 이주 배경 유무별 인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인권 교육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기술을 길러 이민 사회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역량인 인권 존중 인식을 기르는 교육임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종사자와 같은 특정 직업군은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사례 위주 세미나 또는 토론식 교육 참여를 유도해 인권 감수성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다국어 정책 홍보

○ 언어장벽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아이들의 보호자가 정부 공공정책에 접근이 어려운 주요 이유임. 이에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서비스를 종합한 일종의 다국어 가이드북을 실물과 QR 코드 등의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함

○ 이렇게 제작한 정보가 실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기회가 필요한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입국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교를 방문할 때 안내가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과 협업하는 방법이 있음

○ 한편, 국가별 지역 교민회와 주요 국가별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정확한 정책 정보를 유통하는 방법이 있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관계기관 합동. (2025).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3~'27) 2025년도 시행계획(안).

김경주, 김부경, & 한나현. (2023). 전남 이주배경청소년 생활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 전남여성가족재단. 2023-02.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단일호): 229-256.

김영혜, 김희주, & 장윤선. (2024). 경기도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1-268.

박미화·이창원·김도원·이다솜. (2024). 고령 이주민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4-01.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상률, 이경상, 임지연, & 이민정. (2018).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KIEP] 중국종합연구 총서, 18(01), 1-252.

법무부. (2022). 비자네비게이터.

송지현·이태영. (201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분석. 「사회복지정책」, 39(3): 151-179.

신윤정, 이창원, 이규용, 장은숙, 양미선, 최혜리, & 주수인. (2018).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 성장 환경 분석.

아영아, & 전명숙. (2017).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가족 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38, 125-147.

양계민, 김지연, 장윤선, 김사강, 김동진, 이탁건, & 김주영. (20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6-01.

양계민, 장윤선, 임후남, 최유, 최지연, & 권채리. (20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28-01.

양계민. (20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25). 2025년 가족사업안내.

연보라, 이윤주, & 김현철. (2019).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 지원모델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80.

우복남. (2020). 충남 이주배경아동 지원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기본연구과제 2020-5.

유지희, & 황숙연. (2018).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4), 169-193.

윤현희. (2023).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RR2023-01). 연구보고서, 2023, 1-656.

이수인, 이순미, & 최지훈. (2019). 지역사회 기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전북연구원 정책연구 2019-06.

이종찬.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우울, 자아존중감, 학교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5(2), 877-897.

이지영. (2012). 일본의 이주자정책이 여성이주에 미치는 영향: 출입국관리정책, 이주노동자정책,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2(2), 267-271.

이지영. (2017). 일본의 국제결혼가족의 사회적 수용성과 사회통합. 국제지역연구, 21(1), 179-200.

이해응. (2019). 제주지역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

보고서 2019-01.

이혜림. (2022). 경남 다문화가족 생활실태와 지원 방안. 경남여성가족재단.

최정호, 박봉수, & 배봉철. (2022). 인천 이주배경청소년 포용적 지원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2022-04.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Berry, J. W., & Sabatier, C. (2010). Acculturation, discrimination, and adaptation among second generation immigrant youth in Montreal and Par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3), 191-207.

Bourhis, R. Y., Moise, L. C., Perreault, S., & Senecal, S. (1997). Towards an 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6), 369-386.

Birmaher, B., Ryan, N.D., Williamson, D.E., Brent, D.A., & Kaufman, J. (1996).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Part II.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12): 1575-1583.

Cho, R. M. (2016). Exploring the acculturation profiles and adaptation of children in multiethnic families in South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5(3), 245-274.

Costigan, C. L., & Dokis, D. P. (2006).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acculturation differences and adjustment within immigrant Chinese families. Child development, 77(5), 1252-1267.

Chiswick, B. R., Lee, Y. L., & Miller, P. W. (2006). Immigrants' language skills and visa categor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0(2), 419-450.

Dimitrova, R., Bender, M., Chasiotis, A., & van de Vijver, F. J. (2013).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on of Turkish-Bulgaria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7(1), 1-10.

Eccles, J. S., Midgley, C., Wigfield, A., Buchanan, C. M., Reuman, D., Flanagan, C., & Mac Iver, D. (2013).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The impact of stage-environment fit o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in schools and in families.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74-85.

Eccles, J.S. (1999).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ges 6 to 14. The Future of Children, 9(2) 30-44.

Navas, M., García, M. C., Sánchez, J., Rojas, A. J., Pumares, P., & Fernández, J. S. (2005). Relative Acculturation Extended Model (RAEM): New contributions with regard to the study of accultu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1), 21-37.

Portes, A., & Rumbaut, R. (2001). “Chapter 3. Not Everyone is Chosen: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Determinants” in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s Second Gene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44-69.

Sam, D. L., & Berry, J. W. (2010). Acculturation: When individuals and group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mee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4), 472-481.

Weisskirch, Robert S. (2010). Child language brokers in immigrant families: An overview of family dynamics, mdiAzioni 10

Williamson, A. F. (2018). Welcoming new Americans?: Local governments and immigrant incorpor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愛知県. (2025a). 愛知県の外国人住民の状況.

愛知県愛知県. (2025b). 愛知県の多文化共生の取り組み.

大阪市. (2020). 多文化共生指針.

大阪市教育委員会. (2021). 多文化共生のまちづくり.

小島祥美. (2015). 特別の教育課程導入と外国人児童生徒の教育. 移民施策研究, 7, 56-70.

高橋龍介. (2024). はじめの一歩教室やってるよ！-名古屋の自主夜間中学奮闘記. 同時代社.

文部科学省. (2014). 外国人児童生徒のための対話型アセスメントDLA

文部科学省. (2022). 外国人児童生徒等教育に関する施策の充実-高等学校等における日本語指導の制度化について.

文部科学省. (2025a). 外国人児童生徒教育の現状と課題.

文部科学省. (2025b). 文化的言語的に多様な背景を持つ外国人児童生徒のための対話型アセスメントDLA

浜松市教育委員会. (2025). 外国人子供教育支援推進事業の説明資料.

文部科学省. 帰国・外国人児童生徒教育等に関する施策概要.

https://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001.htm(검색일: 2025.10.22.)

文部科学省. JSLカリキュラム開発の基本構想.

https://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001/008/001.htm (검색일: 2025.10.20.)

政府広報オンライン. 夜間中学とは.

https://www.gov-online.go.jp/article/202412/entry-6818.html(검색일:2025.10.20.)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본 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보고서 2025-07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인 쇄 2025년 11월 30일
발 행 2025년 11월 30일
발 행 인 정 연 희
발 행 처 (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우 : 51430)
Tel (055)713-7075 Fax (055)713-7093
홈 페 이 지 gnwff.or.kr
인 쇄 처 동하씨앤피
인쇄업체 전화번호 Tel (055)239-8819

ISBN : 979-11-995268-3-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